

2020
제54호

禮 文 예산문화



꽃과 운얼굴은 한 철의 면모와 하나 꽃과 운 마음이 있는
생을 지지 않네 장미꽃 백 송이는 일을 주일이면 시들
지 만 마음 꽂한 송이는 뼈 깊은 향기를 내뿜네
경주회 추기경님의 마음 꽂음을 학자 나옹이 경자

景行維賢 剋念作聖

錄千字文句 張元敏



胡地蘇幕草葉來不
招葉肖然亦非
暑氣
香風張倫秋

知物有本末事有終始
所先後則近道矣

錄大學句 庚子年初冬 張元敏



우리가 하는
나의 마음에
들어

碧洞千尋逼寒梅幾
影浥波新
皇東熙



예산문화원



본관

구조 : B1~3층
면적 : 1,137m²
용도 : 문화학교 및 전시



신관

구조 : 1~3층
면적 : 795m²
용도 : 문화학교 및 전시



예산시네마

구조 : 단층
면적 : 499m²
용도 : 영화상영



추사학당

구조 : 단층
면적 : 99m²
용도 : 추사인문학교



표제 석봉 고봉주

표지그림 2020 예산문화원문화학교 회원 작품 모음

예산문화원보 통권 제54호(비매품)



발행인 김종옥 **발행처** 예산문화원(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번지)
발행일 2020년 12월 **전화** 041) 333-2441, 335-2441 **팩스** 041) 334-4330
홈페이지 <http://www.cnkccf.or.kr/yesan.do> **기획** 박세진 **행정지원** 이충환
김동활 이다연 이수영 장혜민 **제작·인쇄** 도서출판 내포(070-7761-6537)

역사의 기록으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코로나19란 전염병으로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힘들게 보낸 2020년은 저물어가고 이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하얀 소띠의 해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아오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문화원 행사는 Trademark라 할 수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고 문화학교, 충남학, 예산학 등 우리 예산문화원의 사업들이 일시 중단되거나 규모를 축소시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와중에도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등 코로나로부터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의 성과들을 한데 묶어 『예산문화원보 54호』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54호에는 충남학, 예산학 등의 인문강좌에서 강의되었던 자료들을 실어 강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라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문화원 직원들의 글도 실어 문화원 발전방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축제, 행사 등의 사진들을 실어 금년에 이루어진 문화원 일들을 사실적으로 먼 훗날까지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원보가 우리 문화원 역사의 일부가 되어 예산문화원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문화원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김종옥

발간사 001 역사의 기록으로 문화원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예산문화원장 이·취임식 004 이취임식 화보

005 이임사

006 취임사

지역학 칼럼 예산학

008 한말 예산 지역의 의병 투쟁

030 추사가(秋史家) 한글 편지에 대한 일고찰

060 대동법 시행을 주도한 포저 조익

충남학

065 백제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

079 동학농민혁명 설화와 소설화 양상 연구

우리 문화원 098 문화원 이야기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100 풍경의 유혹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104 문화공감-동아리 소개 예산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



예산문화원 106 신년 하례회

이모저모 106 마을 동제 지원

108 영선관리

109 문화답사

109 운영회의

110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111 문화학교

112 추사인문학교

113 충남학 인문강좌

113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색소폰강의

113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14 예산학 인문강좌

115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11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116 자암김구 서예대전

117 삼국축제



제17·18대 예산문화원장 이·취임식(2020.11.11)



이 임사

김 시 운(전 예산문화원 원장)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예산문화원장으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작별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예산문화원과 함께 해 주시고 기관간의 돈독한 관계로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해주신 황선봉 군수님, 이승구 군의회의장님과 도의원님 군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기관장님과 지역단체장님 또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문화원 임직원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전국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관 증축과 예산시네마 등 임기 중에 많은 무수히 많은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분에 넘치는 영예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묵묵히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새로 18대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는 김종옥 신임원장님은 평생 동안 교육에 전념하신 분으로 예산문화원 원장에 매우 적합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문화원은 물론 지역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문화원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남이 있는 곳에 이별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항상 이별을 예비해두어야 하지만 늘 삶은 그렇게 희망을 보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힘들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작별을 고하는 자리가 되어 다음을 기약할 줄 아는 멋진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 동안의 평가는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뜻으로 돌리고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물러갑니다.

예산문화원 여러 임직원 및 1700여 예산문화원 회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저는 예산문화원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저 자신은 미안하지만 뒤에서 힘을 보태고 응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사

김종옥(예산문화원 원장)

존경하는 예산 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65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예산문화원의 제18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황선봉 군수님, 흥문표 국회의원님, 이승구 군의회 의장님,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님, 서기용 경찰서장님과 안성호 교육장님, 김기영, 방한일 도의원님, 박응수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장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님과 충남문화원연합회 유환동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문화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평생 봉직했던 공주대학교의 원성수 총장님, 최석원 전총장님, 산업과학대학 김계웅 학장님과 흥성찬 전학장님, 그리고 옛 동료 교수님들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그리고 내빈 여러분 !

20세기 대표적인 문화학자인 영국의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라는 말은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개념에는 음악, 회화, 연극, 영화, 문학 등과 같은 예술적 활동은 물론이고, 주거 및 생활관습 등 인간의 삶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포함되며, 또한 문화는 민족, 국가, 시대, 집단,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문화라는 말에서, 우리 고장 예산을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곳이 문화원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문화원 발전에 대한 저의 구상과 포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서 과거에 꽂피웠던 유형·무형의 전통문화 자료들을 발굴, 조사, 정리하여 보존, 흥

보하고, 예산의 훌륭한 인물들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낸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를 통하여 예산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현대에는 그에 따르는 문화가 발전하여야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빛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예산군민의 취향에 맞고 유익한 각종 생활문화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산의 문화를 전승해주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문화가 단절 없이 영원히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자랑인 예산시네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군민이 전 세계의 각종 문화를 간접 경험할 뿐 아니라, 문화 예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문화 관련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군민이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문화원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Roadmap을 만들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산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가시자고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문화원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김시운 전임 원장님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말 예산 지역의 의병 투쟁

박 민 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1. 홍주의병의 봉기와 예산

1) 최익현의 의병통합전략

호서의병의 동향과 관련해 볼 때, 일제의 한국 침략군인 한국주차군사령관 長谷川好道가 1906년 12월 본국 정부에 보고한 문서 가운데 의병의 근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는 대목이 주목된다.

의병의 근거지는 종래 지방 양반의 소굴이라 칭하는 충청남도에 있다. 충청남도의 내포(內浦)라 칭하는 신창·예산·대흥·청양·정산·홍주·덕산·해미·결성·보령·남포 등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각 군에는 한국 황실과 관계가 깊은 양반들이 다수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배일주의를 가지고 있다. 1895년 중에 충청남북도에 걸쳐 봉기하여 충주 관찰사 및 단양 군수를 살해한 의병과 같은 무리나, 올해 5월 홍주성을 점거한 민종식(閔宗植)과 같은 류(類)는 모두 이 지방에서 나온 자들이다. (중략) 지나간 해 민후사건(閔后事件) 아래 민씨 일족은 일본을 원망하여 자칫하면 배일행동으로 나가려하고, 또 그들은 한국 황제폐하의 진의도 역시 일본을 깊이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배일의 위의(爲義)를 주창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은 폐하에 대한 더없는 충의라고 한다. 이것이 의병 봉기의 한 원인이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포(內浦)에 있는 양반과 같은 경우는 생계가 윤택하여 대부분은 서울에 저택을 가지고 있어 관직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살지만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곧바로 충청남도로 돌아가 은거하는 것을 상례로 삼는다. 즉 그곳 지력(地力)이 늘 의병의 봉기 및 근거지인 까닭이다.¹⁾

위 보고문서 가운데 나오는 양반은 청양 정산의 민종식과 최익현, 그리고 예산의 이남규를 대표적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들이 곧 중기의병을 선도했던 핵심 지도자들로서, 상호 긴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4, 2002, 47쪽



한말 의병과 사진을 찍은 Frederick McKenzie

밀한 연계하에 의병투쟁을 전개해 갔으며, 이런 연고로 인해 충남 내포지방을 의병의 근거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충남 예산은 중기의병 시기 항일의병의 연원 가운데 한 곳이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늑결 이후 일어난 항일의병 가운데 대표적인 의진이 홍주의병과 태인의병이다. 민종식을 주장으로 한 호서지방의 홍주의병과, 최익현을 정점으로 한 호남지방의 태인의병은 충남 청양에서 연원하여 상호 연계하에 활동하였다. 두 의진은 최익현의 삼남지방 항일의병 세력 연합전략 구상하에서 봉기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00년 청양군 정산(定山)으로 퇴거한 최익현이 의병을 계획한 것은 1905년 11월에 늑결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는 을사조약 늑결에 항거하여 매국적인 을사5적을 처단할 것을 요구한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리고 나아가 의병을 일으켜 국권회복을 도모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결과 홍주의병과 더불어 공동항전을 구상하고 태인의병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최익현이 항일의병을 도모하려던 구체적인 움직임은 1906년 1월 충남 논산군 노성의 궐리사(闕里祠) 집회에서 나타났다. 일명 춘추사(春秋祠)라고 불리는 궐리사는 공자의 영상을 봉안한 영당(影堂)으로 현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다. 그는 명암 신협(明菴 申挾)의 초청을 받고 궐리사에 가서 1906년 12월 26일(음 12. 1) 원근의 유생 수백 명을 모아 강회를 열고 절박한 시국상황을 알리는 한편, 일치단결하여 국권회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²⁾ 그리하여 연명 상소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각지의 유생들에게 2월 13일 충남 진위(振威)에 집결토록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최익현이 이때 진위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서울로

2) 『면암집』 권16, 잡저, 「魯城闕里祠講會時誓告條約」



면암 최익현



노성 궐리사(현송당)(논산 교촌)

올라가는 길목으로 이곳을 지목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무렵 호남지방에서는 전북 고창 출신의 유생 고석진(高石鎮)과 진안 출신의 최제학(崔濟學), 그리고 전 낙안군수 임병찬 등이 의병을 도모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들은 거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충남 정산에 있던 최익현을 호남으로 모셔와 의병장에 추대할 계획을 세웠다. 최익현은 송병선의 순국 소식을 듣고 1906년 2월 하순경 드디어 정산을 떠나 호남으로 내려갔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민종식과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항일의 두 거두인 최익현과 민종식 양인은 의병투쟁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투쟁전략을 함께 협의했던 것으로 인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익현이 주도한 태인의병과 민종식이 이끈 홍주의병의 상호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최익현은 호남으로 향하면서 항일투쟁 방략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군사가 훈련되지 못했고 무기도 이롭지 못하니 반드시 각 도, 각 군과 성세를 합쳐야만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마땅히 남으로 내려가 영, 호남을 깨워 일으켜 호서와 함께 서로 성원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³⁾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최익현의 원대한 투쟁방략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삼남의 여러 우국지사들과 연계하여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항일의병을 일으켜 상호 연합전선의 구축을 통해 항일전을 전개하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삼남지방이 동시에 상응하여 항일전을 벌이겠다는 투쟁 방략은 최익현과 민종식을 주축으로 한 의병 지도자들의 공통된 혹은 합일된 투쟁방략으로 생각된다.

3) 최제학, 「면암선생창의전말」, 『독립운동사자료집』 2, 1971, 57쪽.

이에 따라 최익현은 예산 출신의 문인인 남규진에게 곽한일과 함께, 영남·호남과 함께 의각(犄角)의 형세가 되도록 호서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도록 권유하였으며, 화서학파의 동문인 유인석에게는 남북에서 함께 호응하지는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남의 문인 조재학(曹在學)과 이양호(李養浩)에게도 사람들을 모아 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영남 각지에 편지를 보내 거의를 독려하였다. 이처럼 원대한 전략하에 호서에서는 민종식이 의병을 도모하게 되자, 최익현은 지역적 연고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내려가 이 지역의 항일세력을 규합해 거의하였던 것이다. 최익현이 이처럼 거의를 준비하던 당시의 정황은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송연재(송병선-필자주)가 등대(登臺)하여 또 순절한즉 선생이 들으시고 설위통곡(設位痛哭)을 제공들 순절이 장하나 그러나 사람마다 한갓 죽으면 누가 회복하리오 하시고 거의할 계책을 결단 하사 문인을 보내어 이판서 용원과 김판서 학진과 이관찰 도재와 이참판 승렬 이참판 남규와 곽면 우 종석과 전간재 우씨 제공에게 편지하여 상의하되 응하는 자가 없고 복합상약(伏閤相約)은 왜적 이 탐지하고 군사를 거의 다 진위에다 두어 막는지라 문인 고석진이 고왈 태인 거하는 전 낙안군수 임병찬이가 가히 의논할 만하나이다 하니 선생이 최제학을 보내어 의논하신즉 병찬이 쫓기를 원하고 예산에 우거한 곽한일이 선생의 의향을 아는 고로 남규진으로 더불어 와서 보았고 일을 말 촘함에 가히 임사(任事)할 만한지라 선생이 성명도장과 격서와 기호(旗號)를 주시고 한일에게 일러 월 충청도 일은 군에게 부탁하노라 하시고 또 참판 민종식씨가 내포에서 기병하여 장차 기를 세울지라 선생이 이르되 반드시 각 도가 일심합력하여야 서기기망(庶幾期望)이 있을 것이니 나는 남으로 행하여 영, 호남 양도를 고동시키리라 하시고 가묘에 하직하시고 전라도로 행차하사 임낙안 병찬에게 모군·치양(置糧) 등 일을 지휘하시고 영남 문인 이양호·조재학을 영남으로 보내어 각처에 상의하라 하시고 (하략)⁴⁾ (맞춤법 및 띠어쓰기, 꽈호 속 한자-필자)

즉, 최익현은 송병선의 순국에 충격을 받아 거의를 결심하게 되었고, 각처의 명망지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고석진의 추천으로 임병찬과 조우하여 함께 거의를 준비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종식을 정점으로 하는 호서지방 의병과의 연계 임무는 곽한일과 남규진 양인에게 맡기고, 최익현 자신은 호남으로 내려가 거의함으로써 영남, 호남 두 곳의 민심의 호응을 모두 얻어 의병을 규합하려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나아가 영남지방의 의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영남 출신의 이양호와 조재학 두 문인을 파견한다는

4) 필자미상, 『勉菴先生事實記』(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한글 필사본, 1933년 1월)

것이다.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청양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의병투쟁 방략 구상은 삼남지역 전체의 항일세력을 규합하여 전면전과 같은 항일전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상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펼쳐오던 지역분산적 형태의 개별전을 지양하고 연합전을 구상한 것은 항일무장투쟁의 향후 방향 설정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에서 화두와도 같았던 통일전선 구축과 운동세력 통합문제에도 선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아쉽게도 더 이상 구체적 진행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삼남지방 항일세력 통합과 그에 기반을 둔 지역분담 역할 구상은 이상 언급한대로 최익현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술할 민종식도 이러한 논의에 깊숙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밖에 의병 동지들도 다수 이와 같은 논의에 동참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전지에서 볼 때, 청양의 정산에서 발원한 의병의 항일투쟁 방략은 최익현의 태인의병과 민종식의 홍주의병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이런 관점에서 태인의병과 홍주의병은 연원을 같이 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의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남지방에서는 최익현 등의 구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6년 단계에서는 명확한 호응 세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인, 홍주의병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의병부대가 탄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호남으로 내려간 최익현은 주지하다시피 1906년 6월 4일 태인에서 거의한 뒤 순창까지 행군하였다. 이곳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고 참패하였다. 이에 그는 참모장 임병찬과 함께 피체되어 8월 28일 대마도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한 끝에 1907년 1월 1일 새벽에 옥중 순국하고 말았다. 그의 유해는 노성 무동산(舞童山,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에 안장되었다가 경술국치 직후에 일제의 펍박을 받아 예산 광시로 이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을사 홍주의병의 제1차 거의(擧義)와 예산

충남지방에서는 의병전쟁 전 시기에 걸쳐 항일전이 시종일관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 가운데서도 홍주의병은 충남지방 의병투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진이었다. 홍주성을 장악한 이 의진은 홍성뿐만 아니라 예산, 청양, 서산, 홍성, 보령 등 내포지방 항일세력이 모두 결집된 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의병은 규모나 활동 면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단위 의병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의병 가운데 하나였다. 충남지방 항일세력의 결정체라는 점이 홍주의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의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홍주의병은 전기의병 시기



관한일 의병장 송덕비와 민종식 유하비

김복한(金福漢)·안병찬(安炳讚) 등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벌어졌던 항일전의 맥락을 이어서 을사조약 이후 중기의병 시기에도 대규모 의진이 편성되어 활동에 이어갔다.

예산은 1905년 을사조약 늑결을 계기로 재기한 중기의병 시기 홍주의병의 발상지(發祥地)였다. 1906년 3월 15일경 예산군 광시(光時)에서 1차 의병이 편성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광시에서 홍주의병의 연원이 된 의진이 편성된 이유와 배경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이 홍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 같다. 이 시기 의병 편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이설(李愬)과 안병찬 등이다. 전기의병 해산 이후 은둔해 있던 이설은 김복한과 함께 을사조약 늑결 직후 함께 상경하여 조약을 성토하고 그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경무국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1906년 2월 석방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곧바로 재거(再舉)를 계획하고 동지 안병찬과, 을미사변 이후 1895년 말경 청양군 정산에 낙향해 있던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1861~1917) 등과 연락하며 의진 편성에 착수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설은 안병찬에게 서신을 보내 의병 재기항전을 촉구하는 한편, 민종식에게도 서신을 보내 의병의 항일전을 선도해 주도록 요구하였다.⁵⁾

이에 민종식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고 거사계획은 구체화되어 갔다. 마침내 안병찬·박창노(朴昌魯)·이세영(李世永) 등이 1906년 2월 하순 정산 천장리(天庄里)에 있던 민종식의 집에 모여 거사 절차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들은 약 보름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3월 15일경 예산군 광시(光時) 장터에서 거의(舉義)하였다.⁶⁾

5) 복암선생기념사업회, 『국역 복암집』, 2006, 175-176쪽.

6) 홍주의병의 기병 날자는 기록에 따라 1906년 정월에서 3월 중순까지 걸쳐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확단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 안병찬과 임승주의 기록에서 3월 중순(15, 17일)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다.



면암 묘(예산군 광시면)

이때 모인 의병의 규모는 일부 자료에는 3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3백~6백 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병의 편제는 창의대장 민종식 휘하에 종사관 홍순대(洪淳大), 중군사마(中軍司馬) 박윤식(朴潤植), 참모관 박창로(朴昌魯), 군사마(軍司馬) 안병찬, 유회장(儒會長) 류준근(柳濬根), 운량관(運糧官) 성재한(成載翰) 등으로 갖추어져 있었다.⁷⁾ 위 편제의 지도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정재호(鄭在鎬)·최상집(崔相集)·최선재(崔璇在)·이상구(李相龜)·이세영(李世永)·채광묵(蔡光默)·이만식(李晚植)·이동규(李東珪)·민정식(閔廷植)·윤자홍(尹滋洪) 등도 참여하고 있었다.⁸⁾ 이들도 이세영·정재호를 제외하고는 대개 관력이 없는 재야 유생이었다. 이와 같은 거의 과정과 편제로 볼 때 1차 홍주의병은 을미 홍주의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병찬을 비롯하여 박창로·채광묵·이세영 등의 핵심인물들이 역시 을미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⁹⁾

민종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광시에서 일어난 제1차 홍주의병은 거의와 동시에 부일매국적을 성토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을 맹렬하게 성토하면서 거의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통문을 각처로 발송하였다. 그 가운데 부일매국 관리들을 성토한 대목에서는 “정부에는 개돼지 같은 놈들이 녹만 받아먹고, 궁중에는 효경(梟獍) 같은 놈들이 서로 나아가 임금과 나라를 팔아먹고 외인에게 붙어

7) 宋容緯 編, 『洪州義兵實錄』, 洪州義兵遺族會, 1986, 307쪽.

8) 성덕기, 「의사 이용규전」

9) 유한철, 「洪州城義陣(1906)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10쪽.

구차히 하루의 안일만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의 조약을 맺으면 내일 또 하나의 조약을 맺고, 금년에 하나의 국권을 빼앗으면 명년에 또 하나의 국권을 빼앗는다. 연해의 어업과 삼림·금광은 이미 다 빼앗아 버렸고 인사의 공사까지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각지 역둔토도 장차 빼앗기게 되었으니 반드시 삼천리강토를 다 빼앗아야 그만둘 것이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려 해도 경작할 땅이 없고, 장사를 하려 해도 점포가 없고, 공업을 하려 해도 기술을 사용할 곳이 없으니 장차 그 놈들의 노예가 되고 그 놈들의 어육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성토하고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서울에 주재한 각국 공사관에도 「호소문」을 보내 항일전의 명분을 밝히면서 국권 회복과 일제구축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의병이 항일전에 앞서 각국 공사관에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끊임없이 보냈던 사실을 통해서도 의병이 일제를 구축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홍주의병은 제대로 활동을 전개하기도 전에 해산당하고 말았다. 홍주성을 점거하기 위해 광시를 떠난 의진은 곧 난관에 봉착하였다. 홍주성의 관군도 동참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홍주군수 이교석(李敎奭)이 의병 측에 가담하기를 거절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말았기 때문이다. 의병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광시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홍주 대신에 공주를 점거하기로 계획을 바꾸고 선발부대를 공주로 출발시켰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공주와 서울에서 출동한 2백 명의 군대가 청양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공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병들은 청양군 화성면 합천(合川)으로 이동하여 일시 머물렀다. 그러나 이튿날인 3월 17일 새벽 일제 현병, 경찰의 공격을 받아 안병찬과 박창로를 비롯하여 윤자홍·최선재 등 26명이 체포되고 군사들은 패산하게 되어 이로써 의진은 해산되고 말았다.

예산 광시에서 거의(舉義)한 제1차 홍주의병은 의진 결성 후 해산 때까지 이처럼 활동기간이 불과 2~3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쌓은 활동경험과 실패의 교훈은 곧 이어 전개되는 제2차 홍주의병이 중기의병을 상징할 만큼 강력한 전력과 결집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10) 송용재 편, 『홍주의병실록』, 483-484쪽.

2. 홍주의병의 재기항전과 예산

1)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제1차 홍주의병이 와해된 뒤 의병 참여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혹심하였다. 의병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각지로 흩어져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민종식 의병장은 합천에서 탈출한 뒤 전북 전주로 내려가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진안·용담·장수·무주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4월 20일경 전북 여산(礪山)에 집결한 뒤 남포를 경유하여 홍산(鴻山) 지치(芝峙, 현 부여군 내산면 지터리)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민종식은 1906년 5월 11일 이상구·문석환·정재호·이용규·김광우·조희수·이세영 등과 함께 의병 재기의 가치를 올리게 됨으로써 제2차 홍주의병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¹¹⁾ 민종식 의병은 이후 서천·비안·판교를 지나고 남포, 결성(結城)을 거치면서 전력을 확충한 뒤 5월 19일 호서의 요충지 홍주성을 공격해 일거에 점령하였다. 이후 홍주의병은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될 때 까지 10여 일 동안 일제의 土方源之助 경부(警部)를 쳐단하는 등 기세를 떨쳤다.¹²⁾

홍주의병 탄압작전은 한국 침략의 원흉인 통감 伊藤博文이 직접 지휘하였다. 통감이 한국주차 군사령관 長谷川好道에게 직접 군대를 동원해 홍주의병을 탄압, 해산시킬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¹³⁾ 그리하여 러일전쟁을 기화로 한국을 침략하여 주둔한 일제의 소위 한국주차군이 의병 탄압전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전투가 곧 5월 31일의 홍주성 공방전이었다.

서울에서 긴급 출동한 田中 소좌가 지휘하는 보병 2개 중대와 전주수비대에서 파견된 1개 소대, 그리고 현병대 등 일본군 대부대는 5월 31일 새벽 야음을 틈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새벽 2시 반 공격을 개시하여 3시경에 기마병 폭파반이 폭약을 사용해 동문을 폭파시켰다. 이를 신호로 일본군 보병과 현병·경찰대가 기관포를 쏘며 성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제2중대 제1소대와 제4중대 제1소대는 각각 갈매지 남쪽 고지와 교동 서쪽 장애물 도로 입구에서 잠복하여 의병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때 의병 측에서는 성루에서 대포를 쏘면서 대항하였으나 북문도 폭파되어 일본군이 들어왔다. 의병은 치열한 시가전을 결행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일본군의 화력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1971, 329쪽.

12)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141쪽.

13) 「韓國ニ於ケル暴徒鎮壓ノ爲兵力ヲ使用ス」(1906. 5. 27)(公文類聚·第30編·明治39年第5卷)(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에 밀려 많은 사상자를 내고 처참하게 죽어갔다.¹⁴⁾

일본군은 홍주성을 점령한 직후부터 경과보고를 수시로 하였다. 의병 측의 인적 피해상황도 보고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성을 점령한 후에도 일본군대가 철수하는 6월 7~9일경 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홍주성을 점령한 다음날인 6월 1일에는 의병 60명을 살육하고, 127명을 체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뒤이은 6월 4일의 보고에는 희생자(시신) 82명, 피체 145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6월 14일 주차군 참모장의 최종 보고에서는 희생자 83명, 피체 154명으로 정리되어 있다.¹⁵⁾ 일본군은 홍주의병 탄압작전에서 구식총 9정, 포 75문, 화승총 259정, 촌전총(村田銃) 1정, 양총 9정, 엽총 3정 등의 구식 혹은 신식 무기류를 노획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⁶⁾

그러나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입은 참화의 실상은 일제측 보고와는 큰 차이가 있다. 희생된 의병의 수는 적계는 80명에서 많게는 1천 명으로 자료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홍주의병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유병장 유준근은 그의 일기에 의병 3백 명이 순국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최후까지 남아서 의병들을 독려하면서 분전하였던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成載平)과 전태진(田泰鎮)·서기환(徐基煥)·전경호(田慶浩) 등을 비롯하여 3백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리고 윤석봉·유준근 등 간부 78명은 일본군에 피체된 뒤 서울로 끌려가 심문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 윤석봉 이하 69명은 석방되고, 나머지 남규진·유준근·이식·신현두·이상구·문석환·신보균·최상집·안항식 등 9명은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 유폐당하였다. 또한 중군장 이세영도 그해 6월에 체포된 뒤 서울 경무청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은 후 그해 겨울에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황해도 황주의 鐵島로 유배되었다.¹⁸⁾

2) 홍주의병의 재기항전과 수당 이남규

홍주성 함락 후 살아남은 의병들은 인근 각처로 분산 탈출하였다. 이들은 도처에서 재기항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소규모의 의진을 다시 편성하여 항일전을 벌였다. 홍주의병이 재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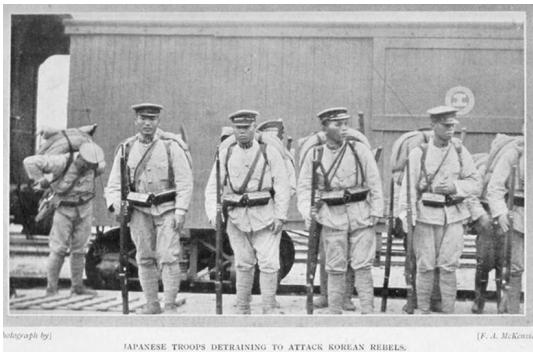
14)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141-142쪽.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III, 66·68·92쪽 참조.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III, 77쪽.

17)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전투」, 144쪽.

18) 정운경 엮음, 「동유록」, 『독립운동사자료집』 1, 566-567쪽.



의병 탄압 출동 일본군(1907)



명치38식 소총



화승총

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구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와 그의 일족인 이용규(李容珪)였다.

먼저 민종식의 처남이던 이용규는 그해 7월에 청양군 뉴치(扭峙)에서 의병 4백 명을 모은 뒤 부여노성을 지나 연산 부흥리(富興里)에서 일본군을 만나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훈련 부족과 화력의 열세로 패하였고, 간부들은 피체되거나 순국하고 말았다. 조병두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대전역에서 순국하였고, 채경도·오상준 등의 참모들은 피체된 뒤 공주부에 감금되었으며, 나머지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용규는 그 뒤 8월경에는 온양 석암사(石岩寺)에서, 그리고 9월에는 다시 공주 노동(蘆洞)에서 연이어 거병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¹⁹⁾ 이와 같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간헐적인 투쟁을 지속하였던 것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 기인하는 결과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병들은 조직력과 기동력, 투쟁력을 발전시켜 갔다.

그뒤 이용규는 1906년 10월경 예산군 한곡(閑谷, 현 대술면 상항리)에 있던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 1855~1907)의 집으로 가서 민종식 등을 만나 재기항전을 재차 도모하였다. 홍주의병의 막후 지원자였던 이남규는 1900년 비서원승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향리에 퇴거해 있던, 조야의 중망을 받던 대관 출신의 인물이었다. 그는 홍주의병 패산 후에도 그 중심인물들과 부단히 연락을 취하면서 재기항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남규는 제1차 홍주의진이 와해된 뒤 안병찬, 이세영 등 핵심인물들이 공주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며, 이후 홍주의병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안병찬 등이 구금된 뒤 향리에 있던 이남규는 공주관찰사 서리 곽찬(郭贊)에게 두 번이나 편지를

19) 성덕기, 「의사 이용규전」, 332-333쪽.



홍성 의병총



홍성 조양문. 홍주의병 당시 의병과 일본군간에 격전이 벌어진 현장이다

보내 의리와 사리에 입각해 의사들의 석방을 종용하였다.²⁰⁾ 투옥 후 얼마 되지 않은 5월 5일에 안병찬이 석방되어 민종식이 이끄는 홍주의병에 참모사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²¹⁾

앞서 이남규는 1906년 5월 19일 홍주성을 장악한 의진이 편제를 새롭게 하였을 때 박영두(朴永斗)와 함께 선봉장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그가 직접 홍주성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에 민종식이 이남규와 함께 거의하고자 하였다. 이남규는 단지 앓아서 힘써 주선하였으며, 끝내 홍주성에는 들어가지 않았다”²²⁾고 기록한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가 직접 홍주성에 합류하였을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종식이 의진의 편제를 정할 때 상징적 역할이나 영향을 기대하고 이남규를 선봉장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 점은 이남규가 홍주의병에 뜻을 같이 하여 묵시적으로 동참했던 사실을 암시해 주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남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포지역이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고 다투어 말하였다.”²³⁾고 한 일진회원의 지적도 이남규와 홍주의병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20) 이남규, 『수당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97, 292-294쪽.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348쪽. 수당이 곽찬에게 의사들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은 林翰周의 「洪陽記事」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296-297쪽)

22) 황현, 『매천야록』, 435쪽.

23) 황현, 『매천야록』, 436쪽.



이남규 순절 순국 조난지

이러한 입장과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남규는 홍주의병 패산 후 의병 재기를 위해 성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1906년 10월 이남규의 집에 이용규를 비롯하여 곽한일, 박윤식, 박창로 등 의사들이 집결하였다. 이들은 예산 관아를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하고 11월 20일을 거사일로 하여 민종식을 다시 대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봉재(愈鳳在)가 지은 이용규의 전기에서는 이남규를 주축으로 한 이러한 재거 계획에 대해

(1906년) 9월 보름(음력-필자주)께 예산 한곡에 있던 족형 전 참판 이남규의 집에 이르러 동지 민종식·곽한일·박윤식·김덕진·김운락·황영수·정희규·박창로·이만식 등 수십 명과 협의하고 꾀를 내어 다시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²⁴⁾

라고 하였으며, 성덕기(成德基)가 지은 또 다른 이용규의 전기에서도

9월 그믐에 먼저 정장(精壯) 수백 명을 비밀리에 예산 근처 동리에 매복시키고 맹주 민종식과 함께 한곡의 전 참판 이남규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먼저 맹주(민종식-필자 주)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서로 상의하여 무리를 모아 예산을 습격하려 하였다.²⁵⁾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2, 318-319쪽.

2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2, 333쪽.

고 기술하여, 이남규가 홍주의병의 재거 계획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민종식과 이용규 등 홍주의병 중심인물들이 이남규의 후원하에 재기를 도모하였을 때, 그 지휘부는 대장에 민종식을 선임한 것을 필두로 중군장에 황영수와 정재호, 운량관에 박윤식, 참모에 곽한일·이용규·김덕진 등으로 편제하였다. 이들 외에도 이남규·박덕일(朴德一)·박창로·이세선(李世善)·윤병일·윤필구·조희수 등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대개 민종식과의 관계가 돈독한 인물들이었다.²⁶⁾

이들은 거사 계획을 구체화시켜 11월 20일을 기하여 예산읍을 공략한 뒤 이곳을 활동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를 받고 출동한 일제 현병 10여 명과 일진회원 수십 명에 의해 이남규·이충구(李忠求) 부자를 비롯하여 중심인물들이 모두 체포되고 말아 재거계획은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남규는 민종식을 은닉시킨 혐의로 일제 군경에게 체포되어 공주로 끌려가 한동안 갇혔다가 풀려났으며, 그의 아들 이충구는 하룻밤 사이에 세 차례나 흉형을 당했지만, 민종식의 거처를 끝내 밝힐지 않았다고 한다.²⁷⁾

그뒤 예산을 중심으로 내포지방에서 강력한 항일세력이 형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이게 되자, 일제는 그 정점에 있던 이남규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1907년 9월 26일(음, 8.19), 일본 기마병 1백 명이 예산에 있던 그의 집을 급습하였다. 일본군이 포박하려 하자, 그는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士可殺 不可辱)”고 하며 가마에 올라 집을 나섰다.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이남규를 회유하여 그에게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온양 坪村에 이르러 이남규와 그를 따르던 장자 이충구, 그리고 노복 김응길(金應吉) 등을 무참히 위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²⁸⁾

그날 수당을 방어하다가 중상을 입고 요행히 목숨을 건졌던 또 다른 노복 고수복(賈壽福)은 당시의 참변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증언으로 남겼다.

(일본) 병정들이 고의로 느릿느릿 걸어서 날이 저문 뒤에야 평촌 앞길,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통역관이 주인 어른께 “공은 평소에 일본을 원수로 대해 왔으니 그래 앞으로 의병장이 되시겠소이다. 만약 머리를 깎고 귀순한다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뿐이외다.”라고 지껄이더군요. 이에 공께서는 “의거는 참으로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굽힐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왜적은 칼날을 함부로 휘둘렀

26) 『顧問警察小誌』, 내부 경무국, 1910, 119쪽.

27) 『三千百日紅』, 平洲李昇馥先生八旬記, 人物研究所, 1974, 56·83-84쪽.

28) 박민영, 「수당 이남규의 절의와 항일투쟁」, 『만해학보』 6, 2003, 187-189쪽.

습니다. 공의 아드님과 우리 두 소인네는 황급히 몸으로 가로막았지만, 팔은 비틀리고, 앞으로 몇 발자국 나가서 칼로 난도질을 당했사오며, 그리고는 이내 움직임이 없이 잠잠했습니다. 아드님께서 공을 대신하여 죽기를 애원하자 역시 모진 칼끝을 받으셨습니다.²⁹⁾

수당의 참화 소식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 전년인 1906년에 면암 최익현의 순국이 민족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듯이, 수당의 순국도 당시 격화되어가던 항일투쟁의 전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일종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도 다음과 같이 수당의 순국 소식을 2회에 걸쳐 자세히 전하였다.

예산군에 사는 전참판 이남규 씨는 본시 문학재상으로 여러 해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고로 사림에서도 흡양하더니 무슨 사단이 있던지 일병에게 포박하여 해씨(該氏)는 보교를 타고 그 아들은 도보하여 쫓아가더니 온양군 외암동(巍巖洞)에 이르러서 이씨의 부자가 일시에 피살하였다더라.³⁰⁾
(맞춤법-필자)

이씨는 본래 문학이 고명한 사람으로 명예가 있고 벼슬이 아경(亞卿)에 이른 자이라. 이제 집탈(執奪)할 만한 끝이 없이 불문곡직하고 삼부자를 일시에 포살하였으니 이런 행위로 한국 인심이 분을격동(憤鬱激動)하는 것을 책망할까.³¹⁾
(맞춤법-필자)

이남규 부자의 참화 소식은 대마도에 끌려가 유폐되어 있던 ‘홍주9의사’에게도 그 실상이 비교적 자세히 알려졌다. 예산에서부터 대마도 유폐지로 찾아간 남규진의 소실(小室)이 피수(被囚) 의병들에게 전해준 참변의 실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곧, 남규진의 소실에게 “예산 황동(黃洞)의 이참판댁(李參判宅)의 일은 온 집안이 함께 멸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들은 바와 같습니까?”라고 의사들이 묻자, 소실은 전문(傳聞)에 의거하여

車를 탄 사람들이 뜻밖에 들이닥치더니 이참판을 결박하고 신창의 뒷산으로 가자, 피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아들이 함께 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구하려다가 살해를 당하여 그 곁에서 죽고, 부리는 종 한 사람도 그 상전의 죽음을 보고 또 죽음을 당하고, 청지기 한 사람은

29) 『三千百日紅』, 平洲李昇馥先生八旬記, 人物研究所, 1974, 57쪽.

3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일자, 「잡보」.

3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8일자, 「시사평론」.

한 쪽의 다리를 잘렸습니다. 그 집안의 부인과 그 자부(子婦)는 지금 다행히 집에 있고 또 그 손자도 살아 있는 것이 다행합니다.³²⁾

라고 대답하면서 그 실상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의병 재기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력으로 인해 이남규 부자가 입은 참화 소문은 이처럼 세간(世間)에 널리 퍼져 항일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남규의 집에서 체포된 이용규·박윤식·김덕진·곽한일·정재호·황영수 등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전남 신안군의 지도(智島)로 유배되었으며, 홍순대와 김재신은 전북 옥구군의 고군산도로 유배되었다.³³⁾ 그리고 안병찬·박창호·최선재·윤자홍 등 수십 명은 공주감옥에 감금되어 온갖 수모를 겪었다.

주장 민종식은 미리 신창군 남상면의 성우영(成祐永)의 집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공주 탑곡리 방면으로 피신해 있었다. 일제 경찰대는 신창에서 김덕진(지도 유배)과 신창규(辛昌圭)를 체포하여 고문한 끝에 신창규로부터 민종식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고, 결국 1906년 11월 20일 주장 민종식도 체포되어 공주부로 끌려갔다. 민종식은 공주에서 신문이 끝난 뒤 12월 3일 앞서 피체된 중심인물 6명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평리원(平理院) 감옥에 감금되었다. 홍주의병에 연루되어 민종식과 함께 체포되었던 궁내부 특진관 이남규(李南珪)와 성우영(成佑永) 양인은 이때 보호 감찰을 조건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정만원(鄭萬遠)·이진규(李珍珪)·신창교(辛昌教) 등 3명은 무죄 방면되었다.³⁴⁾ 그뒤 민종식은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날 내각회의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진도에 유배되었고, 같은 해 12월 응희황제 즉위 기념으로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

예산 방면에서의 이와 같은 재기노력 외에도 홍주성 실탄 이후 각지로 흩어진 의병들은 부여·정산·당진 등지에서 항일전을 벌이면서 의병세력을 확산시켜 갔다. 우군관 홍순대는 1906년 11월 부여군 은산면에서 8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해 재기하였다. 또 남포의 성문에는 ‘의병대장 송’이라는 이름으로 친일관리인 군수 이철규(李哲圭)의 처단을 경고하는 방문이 나붙었다.³⁵⁾ 청양의 안병찬과 박창로, 면천의 이만식, 서산의 맹달섭, 전라도 출신의 강재천 등은 홍주성 실탄 후 정산의

32) 文奭煥, 『馬島日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344쪽

33) 〈황성신문〉 1907년 7월 24일, 「流刑諸氏發配」

34) 〈황성신문〉 1906년 12월 6일자, 「閔宗植押上報告」

3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2, 319쪽.

칠갑산 방면으로 들어가 항쟁을 계속하였다. 안병찬과 박창로는 1907년 12월 일제 현병에 체포되었는데, 이때 박창로는 3백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있었다고 한다. 홍주의병의 유격장 이만식은 당진·해미·대흥·서산·부여·공주를 비롯해 경기도 안성·용인 등지까지 진출하면서 활동하였다. 맹달섭은 박창로·이만식 등과 함께 칠갑산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였는데, 1907년 1월에는 70명의 의병을 이끌고 부여군 일세촌(日勢村)에서 일본인 3명을 처단하였다. 이후 그는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 경기도 죽산으로 이동하여 윤필구 의병과 합세하여 광주·용인·안성 등지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청양 출신의 김동락(金東洛)과 김무경(金武京)도 홍주성 실향 후 정산·청양·부여 등지를 무대로 1909년 7월 일제 현병에 체포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밖에 차상길(車相吉) 등 15명은 홍주성에서 물리난 뒤 6월 6일 당진 소난지도로 들어가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밖에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박우일(朴禹日)·맹순량(孟順良)·이근주·한계석 등도 충청도·전라도 일대에서 1907~1909년까지 간헐적으로 항일전을 수행하면서 의병전쟁의 파급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³⁶⁾

3. 예산지역의 의병장

예산과 연고를 가진 한말의 의병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광시에 묘소가 있는 최익현과 한곡의 이남규를 비롯하여 박창로, 남규진, 그리고 곽한일, 이세영, 성재한, 윤자형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최익현, 윤자형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이남규와 박창로, 남규진, 윤자형은 예산 출신으로 확인되며, 아산 출신의 곽한일, 이세영, 성재한은 이남규를 정점으로 한 예산지역의 의병활동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앞에서 논급한 최익현과 이남규를 제외한 인물들의 약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규진(南奎振, 1863~?)은 예산 창리(滄里) 출신으로 1863년에 태어났다. 자를 경천(敬天), 호를 창호(滄湖)라 하였으며, 최익현의 문인이었다. 앞서 보았듯이 을사조약 늑결 이후 최익현이 삼남지방 의병세력 연합을 구상할 때 그는 곽한일과 함께 최익현의 명을 받아 호서에 머물면서 호서의병과 최익현이 주도하는 호남의병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홍주의병에 가담하여 돌

36) 유한철, 「홍주성의진(1906)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30-31쪽.

격장(突擊將)으로 활동하였으나,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될 때 동지들과 함께 일본군에 피체된 뒤 대마도에 유폐된 ‘홍주9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06년 8월 8일부터 1908년 10월 7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대마도에 피수(被囚)되었다. 10월 8일 문석환, 신현두, 최상집과 함께 석방되어 환국하였다.³⁷⁾

곽한일(郭漢一, 1869~1936)은 아산군 송악면 역촌리에서 태어났다. 자를 원우(元佑), 호를 장암(壯菴)이라 하였으며, 최익현의 문인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 늑결에 항거하여 스승 최익현이 민종식과 연계하여 의병을 일으킬 때 남규진과 함께 여기에 동참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최익현의 의병투쟁 핵심 전략은 호서, 호남, 영남 등 삼남지방의 항일의병세력을 규합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곽한일은 최익현의 명을 받아 남규진과 함께 민종식을 정점으로 하는 호서 의병과의 연계 임무를 맡아 호서지방에 잔류한 채 홍주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다. 곽한일은 남규진과 함께 이런 연고로 인해 민종식 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한 직후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는 남규진과 함께 4백 명의 군사로 해미성을 점거하려다가 홍주성이 일본군에게 포위되었다는 급보를 듣고 홍주성 함락 직전인 29일경 홍주의병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곽한일은 남규진과 함께 홍주성에 입성하기 전 이미 돌격장(突擊將)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편제가 재편될 때는 소모장(召募將)에 선임되었다. 5월 31일 홍주성 함락 때 성을 탈출한 그는 최익현의 호남의병에 합류하려 했지만, 이 무렵에는 최익현 이하 13의사들이 체포되고 의진이 무너진 뒤였다. 이에 동료들과 함께 예산을 중심으로 홍주의병의 재기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수당 이남규를 비롯하여 김덕진(金德鎮)·이용규(李容珪)·박윤식(朴潤植) 등과 재거를 도모하여 다시 민종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편제를 이룰 때 이용규·김덕진과 함께 참모(參謀)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일진회원에 의해 기밀이 누설되어 10월 2일 일제 군경의 급습을 받아 거사 계획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곽한일은 이남규 부자, 박윤식, 이용규 등과 함께 피체되었고, 공주를 거쳐 서울의 평리원(平理院)으로 이감되어 문초를 받았다. 1907년 7월 곽한일은 김덕진, 이용규, 황영수, 박윤식, 박두표와 함께 전남 지도(智島)로 종신 유배되었다가, 사면으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경술국치 후인 1913년 2월에는 임병찬 등 의병세력이 주축이 되어 비밀리에 결성된 독립운동단

37) 박민영, 「한말 의병의 대마도 被囚 경위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87쪽.

체인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에 가담하여 총무총장(總務總長)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독립의군부의 실체와 조직이 일제에게 밭각된 ‘독립의군부사건’으로 인해 일제에게 피체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출옥 후에도 항일투쟁을 계속하면서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고, 이로 인해 1916년에는 종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936년 작고할 때까지 일경의 감시를 받았다.

박창로(朴昌魯, 1946~1918)는 예산 출신이다. 전기, 중기 홍주의병에 모두 참여한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1895년 정산에서 기의(起義)하여 1896년 1월 안병찬·채광묵 부대와 홍주에서 합류하여 김복한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정제기(鄭濟驥)와 함께 임존산성(任存山城)을 수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³⁸⁾ 그러나 의병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던 홍주관찰사 이승우(李勝宇)의 변심으로 김복한과 이설 등 핵심인물들이 피체되고 의진은 와해되었다. 그 뒤 1905년 11월 을사조약 늑결로 전국적으로 항일투쟁의 기운이 고조되어가자, 다시 의병을 규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안병찬·이세영 등과 함께 1906년 2월 하순 정산 천장리(天庄里)에 있던 민종식의 집에 모여 거사 절차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약 보름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3월 15일경 예산 군 광시 장터에서 거의하였다. 이때 박창로는 창의대장 민종식 휘하에서 참모관(參謀官)에 피임(被任)되어 지휘부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의병은 홍주성을 점거하기 위해 광시를 떠난 직후인 3월 17일 청양군 화성면 합천(合川)에서 관군과 일제 군경의 공격을 받아 패산하고 말았다. 이때 박창로는 안병찬·윤자홍·최선재 등 동료 26명과 함께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수모를 겪었다.

그 뒤 4월경 공주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홍주의병의 재기를 위해 동지들과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06년 5월 홍산(鴻山) 지치(芝峙)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의진이 행군하여 서천 읍내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의병의 수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사기가 고무된 의병들은 서천과 남포에서 총포와 탄약을 접수하고 친일 군수를 감금하는 한편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의진은 홍주성으로 접근한 뒤 5월 19일 일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성을 점령하고 기세를 떨쳤다. 이 때 박창로는 안병찬, 안항식, 이칙(李拭) 등과 함께 참모사(參謀士)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기세를 떨치던 홍주의병은 일본군이 탄압의 전면에 나서 5월 31일 새벽에 총공격을 가해오자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로 인해 사방으로 패산하고 말았다.

박창로는 홍주성이 무너지자 청양의 안병찬, 면천의 이만식, 전라도 출신의 강재천 등과 함께 청양 칠갑산 방면으로 들어가 항쟁을 계속하였다. 또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1906년 10월 예산 지

38) 林翰周, 「洪陽紀事」; 송용재, 『홍주의병실록』, 홍주의병유족회, 1986, 136-138쪽.

방을 중심으로 의병 동지들과 수차 모임을 가졌으며, 11월 20일 예산읍을 근거지로 삼아 김덕진·황영수 등과 함께 민종식을 대장으로 재추대하기로 하고 거사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기밀이 누설되고 의병장 민종식이 피체됨으로써 거사에 성공하지 못하고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성재한(成載翰, 1860~1906)은 아산시 신창면 원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이명은 재평(載平)이며, 자를 운거(雲舉)라 하였다. 1906년 민종식이 이끄는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항일전을 벌였다. 안병찬·이세영·박창로 등이 주축이 되어 3월 15일경 예산 광시 장터에서 1차 거의할 때 여기에 가담하여 운량관(運糧官)을 맡았다. 이 의병이 패산(敗散)한 뒤 5월에 2차 의진이 재기하여 홍주성을 점령할 때 참전하여 활약하였다. 뒤이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홍주성이 함락될 때 성을 사수하다가 채광묵 부자 등과 함께 전사 순국하였다.

고광 이세영(古狂 李世永)은 1869년 아산시 읍봉면 신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12대 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혁혁한 무반가문이었다. 생부 민하(敏夏)는 무과급제 후 현감을 지낸 분이고, 13살 때 3종숙 민철(敏哲)에게 입양되었는데 양부는 정3품 훈련원정(訓練院正)과 수군절도사를 지낸 무관이었다.

어린 시절 고광은 전통 주자학을 공부했으나, 고루하고 경직된 유학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21세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가 관립 신식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園)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근대문명에 눈뜨게 되었다.

이 무렵 일제침략으로 인해 국운은 나날이 위태로워졌다. 이에 고광은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국난극복을 위한 항일투쟁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게 되었다. 항일전에 투신할 결심을 굳힌 고광은 청일전쟁 발발 무렵 고향 아산을 떠나 의병 봉기의 기운이 더욱 왕성하던 정산군 관현리(현 청양군 장평면)로 이사하였다. 고광이 이사한 다음해에는 참판 민종식이 이곳으로 내려왔으며, 1900년에는 재야 항일의 거두 면암 최익현이 또한 이곳 정산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갖고 의병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고광이 항일투쟁에 제일 먼저 투신한 것은 1895년 전기의병 때였다. 김복한 의병장을 중심으로 홍주의병이 봉기했을 때, 고광은 참모장으로 이 의진에 참여했으나 곧 패산하고 말았다. 이때 고광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이후 재야투쟁의 한계를 절감한 그는 무반가문의 전통을 이어 정통 무관의 길로 나갔다. 군부주사로 출발한 고광은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참위(參尉)로 임관한 뒤 정3품 정위(正尉) 계급에 올라 친위대 지휘관을 거쳐 현병대장 서리를 맡았다. 하지만, 군부가 일본군의 철저한 간섭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고광이 국권회복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더욱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고광은 미련 없이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정산으로

내려와 재기항쟁의 기회를 노렸다.

고광이 낙향한 이듬해인 1905년 11월 일제의 강압에 의해 망국조약인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 여기에 항거하였다. 고광은 민종식이 주도하던 홍주의병에 중장군(中軍將)으로 참여하여 1905년 5월 홍주성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화력의 열세로 패산하여 동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서울로 압송되고 말았다. 1906년 11월 종신유배형을 받고 정운경, 전덕원, 황청일 등 저명한 의병장들과 함께 황주 철도로 일시 귀양을 갔다가 1908년 특사로 풀려났다.³⁹⁾

윤자형(尹滋亨, 1868~1939)은 예산 출신으로 홍주의병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7월 을사조약 늑결 이후 광무황제는 전국 각지의 인물들에게 은밀히 조칙을 내려 의 병투쟁을 고무시켰다. 이때 그는 ‘호남삼도육군대도독(湖南三道陸軍大都督)’으로 임명되었으며, 아울러 삼도대원수군제(三道大元帥軍制) 12개 조 사목(事目)을 칙명으로 규율하며, 삼도의 군량 및 군사권과 장관(將官)의 임면, 직인의 사용 권한 등을 하사받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2년 동안 항전을 벌였다.⁴⁰⁾

4. 예산의병의 특징

예산지역의 의병은 내포지방 항일세력의 전력이 투입되어 결성된 홍주의진으로 집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홍주의병의 연원이라 할 제1차 홍주의병이 1906년 3월경 예산 광시에서 일어났고, 1906년 5월 31일 홍주성이 함락된 뒤, 홍주의병이 재기항전을 계획 구상할 때 예산지역이 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곧 예산은 홍주의병의 발원지인 동시에 종결지이기도 하였다. 홍주의 병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여준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홍주의병의 중요한 동력이 예산에서 나왔던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중기의병의 최고 지도자였던 면암 최익현이 구상한 삼남 의병세력 통합구상에 따라 호서의 홍주의병과 호남의 태인의병이 결성되었으며, 호서의병과 호남의병 사이의 연락을 담당했던 인물이

39) 鄭雲慶, 「同遊錄」, 『독립운동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560-567쪽.

40) 「詔勅」(三道大元帥尹滋亨, 1908.7.7); 詔勅(忠淸慶尙全羅三道臣民, 1908.7.7); 「勅命」(南三道大元帥軍制事目, 1908.7.7); 「勅命」(爲義兵大將兼湖南三道陸軍大都督者 : 1908.7.10, 이상 국가보훈처 소장자료)

예산의 남규진과 아산의 곽한일이었다. 즉 최익현의 의병 구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비중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남규진과 곽한일 두 사람이 민종식이 주도하는 홍주의 진에서 시종일관 중심인물로 활동했던 것도 그 배후에 최익현이 자리잡고 있었던 점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예산지역 의병세력의 최고 지도자였던 수당 이남규는 청양의 최익현, 민종식 양인과 더불어 충남 내포지방 항일세력을 규합하여 홍주의병을 결성하였고, 나아가 그 활동을 후원한 인물이었다. 특히 홍주의병이 와해된 뒤 재기항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수당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이용규와 민종식의 재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자(父子)가 함께 참화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곧 예산은 홍주의병의 재기항전의 근거지였고, 그 중심에 수당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예산지역의 의병투쟁은 1905년 을사조약 늑결 이후 1906년에 일어난 중기의병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웃한 청양, 아산, 홍성 등지의 항일세력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의 항일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사가(秋史家) 한글 편지에 대한 일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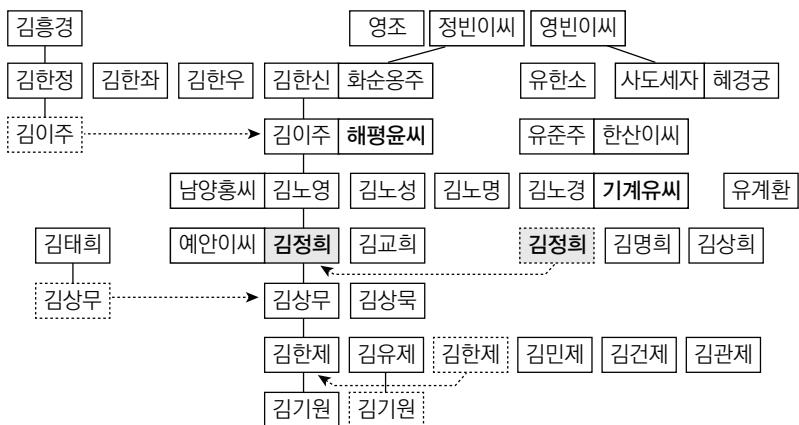
- 해평윤씨, 김노경, 기계유씨, 추사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¹⁾

박정숙(경기대 서예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며

추사의 문집 대부분이 편지글이라고 할 만큼 추사는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다. 추사는 ‘추사체’라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서체로 인해 당대 최고의 서화가일 뿐만 아니라 고증학자·실학자·금석학자로도 일세를 풍미한 당시 최고의 한문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한글 편지를 썼다는 것은 한글서예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표1〉 추사가 인물 관계도



출전: 이중덕, 「조사가 한글 편지에 대한 개괄적 고찰」, 『조사의 삶과 교류』, 과천시 조사박물관, 2013, 105쪽.

1) 이 논문은 '추사박물관 학술총서 9 추사 가문 글씨의 위상'에 발표한 내용 중 일정 부분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추사가(秋史家)에는 유독 한글 편지가 많이 남아 있다.(〈표2〉 참조) 추사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한글 편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것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해평윤씨가 그의 아들인 김노경에게, 김노경이 부인 기계유씨에게,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추사가 아내 예안이씨에게 보낸 편지만을 간추려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추사가의 한글 편지는 고 김일근 교수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하여 소장처가 바뀌었으며, 판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한글 편지 판독자료집』이 나온 관계로 이미지와 판독은 이 두 곳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2. 추사가 한글 편지의 서지사항 및 선행연구 검토

1) 서지사항

경주김씨는 조선 후기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김홍옥과 그의 직계손부터 명문가로 부상한다. 경주김문이 조선 후기 노론 벽파의 핵심 가문이 되었던 것은, 유신(儒臣)으로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실천적 유교 지식인으로 고려에 자결로 충절을 지켜 절의의 상징이 된 상촌 김자수(金自粹, 1351~1413), 강빈(姜嬪, 소현세자 빙)과 소현세자의 세 아들에 대한 신원을 주장하다 친국을 받던 중 장살(杖殺)된 학주(鶴洲) 김홍옥(金弘郁, 1602~1654),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1720~1758)와 혼인해 부마가 된 김한신(金漢蘊, 1720~1758),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1745~1805) 등 여러 선조(先祖)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의 특수성 때문인지 추사가(秋史家)에는 유독 한글 편지가 많이 남아 있다. 추사를 중심으로 추사 가문의 한글 편지는 추사 개인 40건의 한글 편지까지 더하면 약 85건이 남아 있다.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이 39세로 사망하고 그의 부인 화순옹주는 14일간 곡기를 끊고 따라 죽음으로써 정조는 예산 추사 고택 옆에 정려문을 세워 조선 왕실 인물 중 유일하게 정려문이 만들어졌으며, 부친 김노경은 기계유씨가 34세로 사망하였지만 끝내 재혼하지 않고 소실만 두어 서녀 두 명 남겼다. 게다가 추사 또한 부인 예안이씨에게 보낸 사랑의 연시(戀詩)같은 한글 편지 38건이 남겨진 것은 추사가의 돋독한 부부사랑의 집안 내력과 궁중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사가의 한글 편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1720~1758)에게 하가(下嫁)한 영조의 서녀 화순옹주가 시누이 경의왕후 흥씨(1735~1758)에게 받은 편지 1건, 김이주

의 부인이며 추사에게 할머니인 해평윤씨(1729~1796)의 편지가 15건²⁾, 추사의 부친인 유당 김노경(1766~1837)의 편지가 23건, 추사의 모친 기계유씨(1767~1801)의 편지가 3건, 추사 김정희(1786~1856)의 한글 편지가 40건, 추사의 둘째동생 김상희(1794~1861)의 편지가 2건, 추사의 손자 김관제(1870~1910)의 편지가 1건으로 전체 7인이 쓴 85건의 한글 편지가 남아 전한다.(〈표 2〉 참조)

본 논고에서는 추사가 한글 편지(〈표 2〉) 중 해평윤씨가 그의 아들인 김노경에게, 해평윤씨의 며느리이며 추사 김정희의 어머니인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보낸 한글 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2〉 추사가 한글 편지 목록표

필사 현황		필사 현황				
번호-인물		생몰연도	추사와의 관계	건수	편지 작성 시기	수신자
1	혜경궁(시누이)	1720~1758	증조모	1건	1754~1757	화순옹주
2	해평윤씨	1729~1796	조모	15건	1775~1793	아들에게 5건 며느리에게 8건 조카에게 2건
3	김노경	1766~1837	생부	23건	1780~1832	장조모 광산김씨에게 1건 어머니 해평윤씨에게 1건 부인 기계유씨에게 6건 며느리, 손녀, 서녀 겸 14건 누님에게 1건
4	기계유씨	1767~1801	생모	3건	1791~1792	남편(김노경)에게 3건
5	추사	1786~1876	본인	40건	1818~1844	부인 38건
6	김상희	1794~1873				며느리 2건
7	김관제	1870~1912	서종손	2건	1831	서매에게 1건
계				85건		부인 죽산박씨에게 1건 김한제에게 1건

2)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에서 해평윤씨의 편지 13건 기계유씨의 어머니 한산이씨의 편지 2건으로 나누었으나 15건 모두 해평윤씨의 것으로 재해석하였음을 밝힌다. 이 문제는 다음 논문에서 다시 서체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추사가의 한글 편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한 『조선시대 한글 편지 서체 자전』에서 행별 음절별 음소별로 서체적 유형을 볼 수 있으며, 2013년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이 출간되어 어휘 판독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행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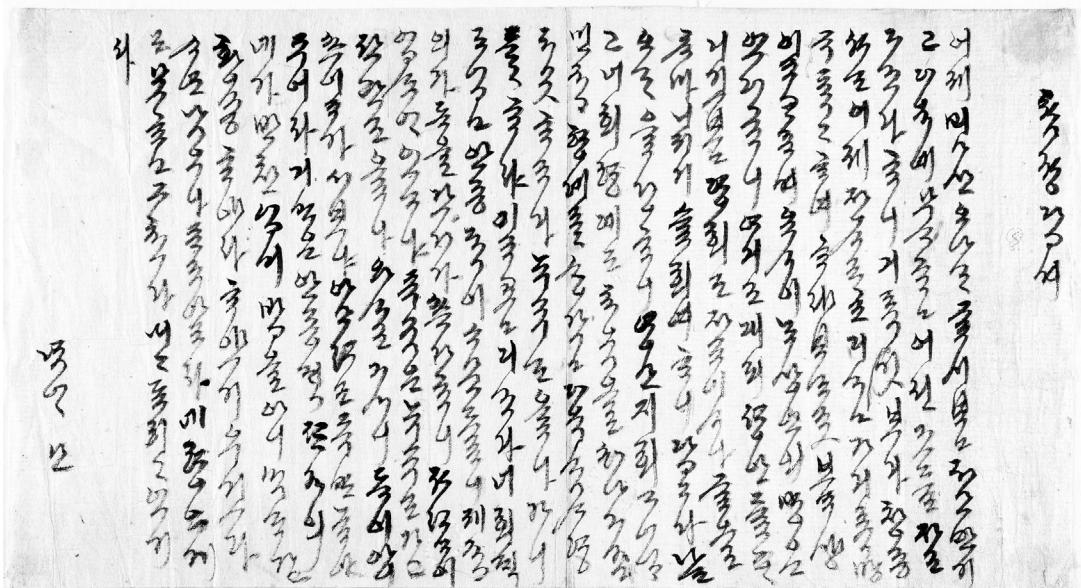
1. 김일근, 「추사가의 한글 편지들(상)」, 《문학사상》 114, 1982, 396~416쪽.
2. 김일근, 「추사가의 한글 편지들(하)」, 《문학사상》 115, 1982, 377~381쪽.
3. 김일근·황문환, 「어머니 해평윤씨(추사조모)가 아들 김노경(추사부친)에게 보내는 편지」, 《문화과 해석》 6, 문현과해석사, 1999, 61~68쪽.
4. 박정숙, 「추사의 모친 기계유씨의 생애와 글씨세계」, 《월간서예》 통권366호, 2012, 127~131쪽.
5. 이병기, 「추사가 한글 편지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197~231쪽.

이와 같이 추사가 한글 편지의 서지나 판독, 서체 특징에 대해서 몇 건의 논문이 나왔으나 추사가 여성들의 편지 글씨 특징에 대해선 아직 연구된 논문이 없다. 이제 그들의 편지 글씨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추사 가문 여성 글씨의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이는 18세기 후반의 여성 한글 서체의 시기적 특성과 아울러 한 가문의 한글 서체가 어떤 필법으로 쓰였는지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

3. 추사가 한글 편지의 서지 및 연원

1) 종가댁 안주인인 시어머니 해평윤씨의 글씨 세계

해평윤씨(海平尹氏, 1729~1796)는 추사 김정희의 할아버지 김이주(金頤柱, 1766~1840)의 부인이다. 해평윤씨의 편지는 15건이 전하며 주로 아들 노경이나 며느리들에게 쓴 것으로, 편지 내용의 대부분은 종가의 안주인으로 집안 대소사와 제사 등을 주도면밀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도1>의 편지는 해평윤씨가 아들 김노경에게 보낸 편지로 발신일이 정조 16년(1792) 8월 20일(念日)이다. ‘오늘을 당하여 영모지회’가 가엾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윤씨의 시조모(김홍경의 부인 창원황씨)의 기일(忌日)인 8월 20일로 짐작된다.



〈도1〉 해평윤씨가 김노경에게 보낸 편지

판독: (부분)…… 여기도 대되 평안들 호니 깃브고 정희(正喜)도 잘 이시나 글을 쓰마 넋기 슬희
여 호니 답”다 나는 오늘을 당호니 영모지희(永慕之懷) 『이업고 너희 형례도 처음으로 떠나 디내
고 민집[閔室](노경의 큰누이, 閔相燮에게 출가) 형례를 싱각고 더욱 심수 정티 못하것다 뉴슈(留守)
는 올나가니 든”호랴 일코고 디낸다…… 념일(念日) 모(母)

해평윤씨는 맏아들 김노영이 아들이 없어서 막내아들 김노경의 아들 김정희를 종가의 양자로 들여서 애지중지 사랑으로 보살핀 것 같다. “정희도 잘 이시나 글을 쓰마 넋기 슬희여 호니 답답
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장손으로서 엄정한 교육을 하려 했을 것이나, 추사의 어린 시절은 여느 어
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책 읽기를 싫어하는 모습에 더욱 더 친근감이 듈다. 해평윤씨는 큰 아들 김
노영의 벼슬길을 따라서 수안(遂安: 郡守職), 개성(開城: 留守職)에 있으면서 한양에 있는 넷째 아
들 노경과 편지를 주고받은 듯하다.

2) 대사헌과 여러 판서 등 수많은 요직을 지낸 김노경의 한글 편지

추사의 아버지 유당 김노경(西堂 金魯敬, 1766~1837)은 자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西堂). 영
의정 흥경(興慶)의 증손으로, 월성위(月城尉) 한신(漢蘊, 1720~1758, 영조 제2녀 화순옹주의 夫)

의 양자 김이주(金頤柱)와 해평윤씨(윤득화(尹得和)의 딸)의 넷째 아들로 1801년(순조 1) 선공부 정(繕工副正)을 지내고, 1805년 현감으로서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을 거쳐 승지·이조참판 및 경상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또, 1819년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이조·공조·형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 1827년 판의금부사·광주부유수·지돈녕부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조선 후기에 가장 화려한 정치경력을 가진 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榮華가 지나치면 殖禍를 부르는 법’이라는 말처럼 김노경은 익종(효명세자)이 대리청정을 할 때 김로(金鏘)·홍기섭(洪起燮) 등과 같이 중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李肇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1830년 지돈녕부사 재직 중 삼사(三司)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의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833년에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를 지낸 뒤 1837년 3월 30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 김노경의 사망 년도를 1840년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1840년은 돌아가신 뒤 김홍근(金弘根)이 윤상도(尹尙度)의 옥사를 재론하여 관작이 추삭된 해이다. 이후 1857년(철종 8)에 신원되고 관작이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김노경 또한 글씨를 잘 써서 아들인 정희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글 편지를 23건이나 남긴 것으로 봐서 추사의 한글 편지는 부친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김노경이 쓴 한글 편지는 그의 나이 22세(1787년)때부터 67세(1832년)사이에 쓴 것으로 누님에게 1건, 장조모(丈祖母, 광산김씨)에게 1편, 어머니 해평윤씨에게 2건, 부인 기계유씨에게 5건, 며느리에게 14건이 있다.(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편지(<도2>)는 김노경의 한창 젊은 나이인 26세(辛亥 七月 念日 想樓, 1791년 7월 21일) 때에 근무지인 수원(현릉원)에서 서울에 있는 부인 기계유씨에게 보낸 편지³⁾이다.

편지의 필사 격식을 알아보면 대략 앞면-위여백-앞여백-간행-후면의 순서로 적는다. 이는 수신자가 편지를 읽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편지지를 돌려가며 읽게 되고 끝날 무렵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 편지는 ① 의외 오:늘 ②전 날 듯하옵 ③도 낫지 못하오시니 ④후면;여더 보고 힝여의 순서로 읽으면 된다.

이 편지의 배경과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김노경이 사복시 주부로 번(番)을 들었을 때 장동 집으로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십구일 제사는 형 김노명(金魯明, 1756~1775)의 제사를 말하며 발신자 서명인 상루(想樓)는 김노경의 별호로 번을 들어 지내던 건물의 이름으로 짐작된다. 편지 내용의

3) 이 편지의 규격은 세로가 31.0cm, 가로가 53.0cm로 본문의 행수를 보면 종이 앞면에 38행, 뒷면에 5행 등 모두 43행으로 배행하여 세로쓰기 배자 방법이며, 본문은 1행당 적은 행은 6자, 많은 행은 16자 정도로 배자하여 썼다.

대강은 아래와 같다.

“뜻밖의 인편에 온 편지 보고 든든하다는 말과 함께 머리 뒤에 생긴 종기가 고름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것, 임지의 업무가 수일 내에 끝나지 않아 경복(노비)에게 옷을 보내니 즉시 빨아 보내달라는 것, 부모님 병환도 낫지 않으시고 형님 제사도 임지 업무로 인하여 참례치 못하니 통한 함을 어찌 다 적겠는가”라고 적었다. 또 “머리 뒤에 생긴 종기는 약을 붙이고 행여 덧나면 큰일이니 조심하고 만약 독이 있고 근(根)이 있으면 즉시 의원에게 보여서 행여 괴이한 잡약을 써서 덧내지 말라”고 당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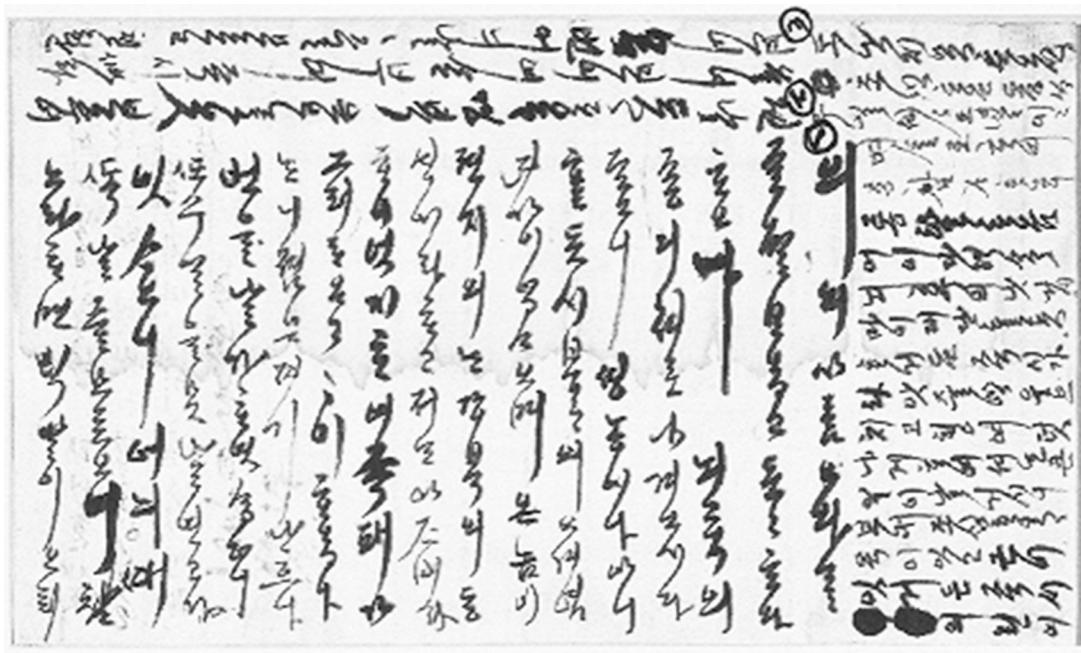
이 시기의 김노경은 1790년 7월 7일부터 1792년 2월 21일까지 현릉원령(顯隆園令)을 지냈으므로 25세부터 주부(主簿) 첨정(僉正) 등의 말직에 근무하며 지방관으로 전전하여 부부가 떨어져 살았던 듯하다. 내용 중에 힘든 업무에 대한 괴로움과 쉴 틈도 없는 업무로 인해 조사(早死)한 셋째 형 노명의 제사에 참석 못함을 한하고 있다. 거기다 아내의 머리 뒤에 종기 난 것이 걱정되어 함부로 잡약을 쓰지 말고 의원에게 보이라는 남편의 따뜻한 충고까지 곁들인다.

이토록 김노경 부부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애듯하게 지내다가 부인 기계유씨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유명(幽冥)을 달리한다. 그런 탓인지 추사 형제들은 혼자 되신 부친을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사와 부인 예안이씨는 번갈아 시봉하였던 관계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예안이씨에게 보낸 추사의 한글 편지가 남아 있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가에서 한글 편지가 남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孝)와 부부의 자애(慈愛)로움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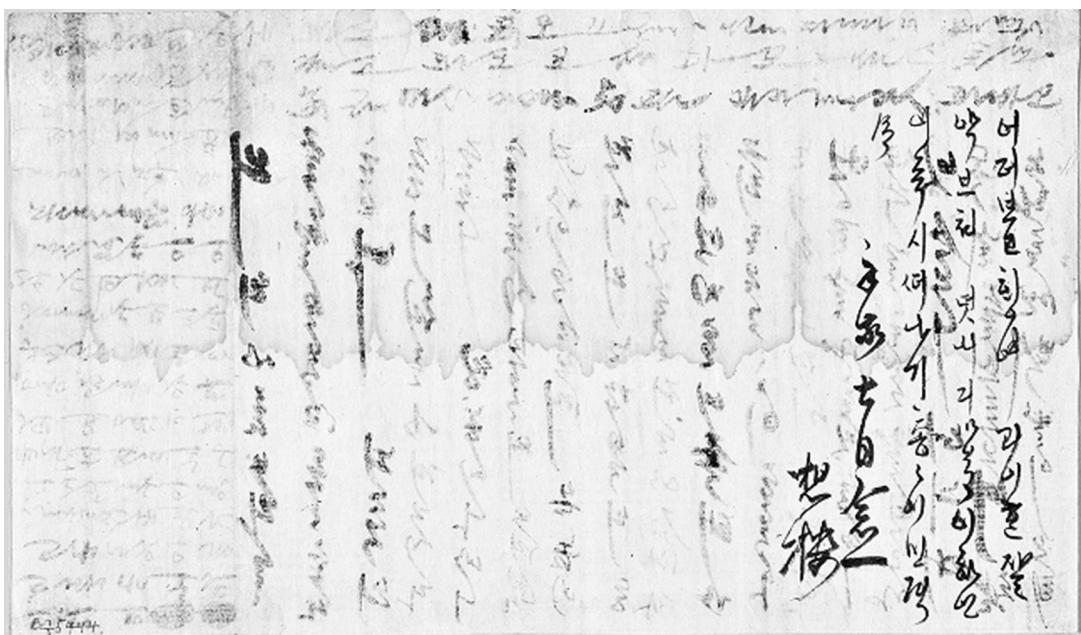
또한 부부의 편지에서 보면 서로에 대한 호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내 유씨는 남편 김노경에게 ‘민망호오이다’, ‘일코습느이다’, ‘엇더호오시니잇가’ 등에서 보듯이 ‘하소셔’체에 속하는 ‘높임’의 어투를 쓰는데 비해 남편이 아내에게는 ‘내여습’ ‘고이호읍’ ‘보내웁’ 등으로 평서, 의문, 명령 등에서 쓰는 ‘호읍’류 종결형으로 구사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⁴⁾ 이로써 조선시대 부부의 호칭은 16세기에는 <이응태묘출토편지>나 <순천김씨묘출토편지>⁵⁾에서 보이는 부부간의 호칭은 서로 ‘자내’로 부르는 대등 관계였다가 17세기에는 이처럼 차등관계로 바뀌었다가 18세기 이후 다시 대등관계로 회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황문환, 1999, 「근대국어 문헌자료의 ‘호읍’류 종결형에 대하여」 ’99 가을 배달말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요지,(문현과 해석 아내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보내는 편지 재인용)

5) <이응태묘출토편지>; 자내 여하고 아무려 살 셰 업소니 수이 자내훈듸 가고 쳐 호니 날 드려가소……(아내가 남편에게), <순천김씨묘출토편지>; … 자내를 그리 성티 몬호거슬 두고 와 이시니 호로도 무옴 편호 저기 업세(남편 채무이(蔡舞易)가 아내 순천김씨에게)



〈도2-1〉 아내에게 쓴 김노경의 편지(1791년)-전면 부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물번호 구5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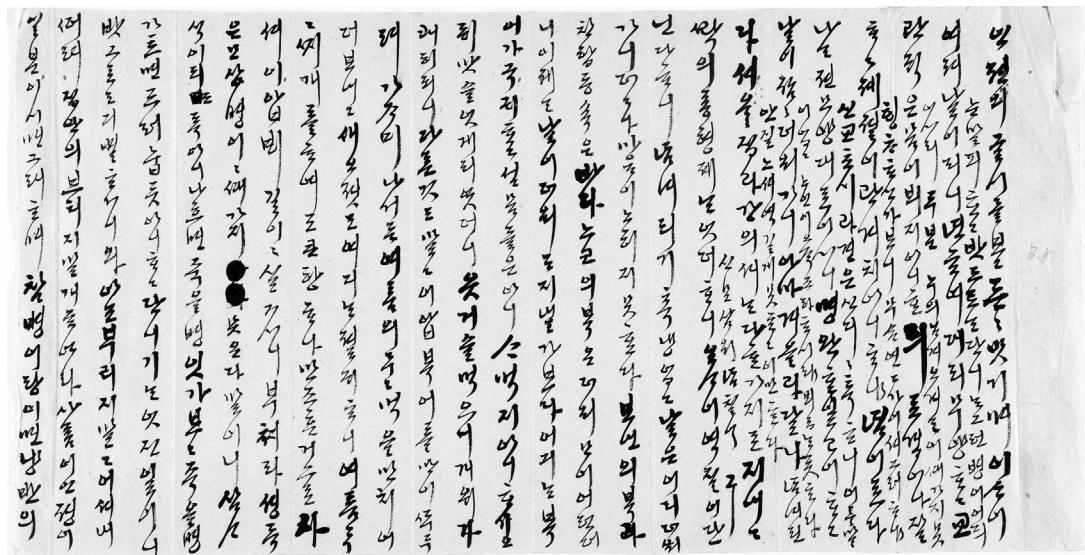
〈도2-1〉 아내에게 쓴 김노경의 편지(1791년)-후면 부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물번호 구5444)

판독; 의외 사람 오와늘 글월 보읍고 든든호와 호오나 뇌후의 종기쳐로 나 겨오시다 호오니 성농이나 아니흘 듯시브옵 외오셔 념녀 가이업소오며(생략) 온 놈이 편지의는 경복의 동싱이라 하고 저는 아즈비라 허니 엊지하여 족폐가 그려허온고 고이허옵 나는 니점은 져기 나흐나 번을 날가 허엿습더니 쪼 수일을 못 날 연고가 잇소오니 어늬 째 쪽 날 줄 모르오니 참노라 헤면 벽발이 오리 【상여백】전 날 듯하옵 경복은 오늘 웃보 주어 올녀 보내여습 부대 즉시 짜라 보내옵 번 어늬 날 날 줄 모르고 친환【우여백】도 낫지 못호오시니 초민호온 등 십구일 제소도 년년이 이 벼슬로 허여 못 참스호오니 통할호음 어이 다 떡습 뇌후의 낫 거시 마이 대단호 듯 허거든 즉시 가라앗을 약을 브치고 흥여 덧나게 허여셔는 큰일이 날 거시니 브대 조심하옵 독이 잇고 근이 잇거든 즉시 의원이

【후면】어더 보고 흥여 괴이흘 잘약 브쳐 덧내디 마옵 이 하인이 즉시 쬐 나기 총총 이만 떡습 卒亥 七月 念日 想樓

이 편지의 글씨체를 보면 아들 추사 김정희의 편지 서체와 비슷한 풍격을 엿볼 수 있다. 김노경의 편지 서체는 전체적인 면에서 다소 조화롭지 못한 듯 산만하게 보이지만 행간, 자간의 흐름이 시원하고 힘차서 문자들 간의 대소 차이, 서선의 굵기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문자간의 세로 연결 서선은 사향곡선으로 힘차게 운필하여 유창미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노경이 쓴 26세 때의 편지 서체에서 초기의 젊은 패기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40대 이후에 쓴 편지((도3))에서는 행간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온화한 선비풍의 글씨로 바뀐다. 노경의 한글 편지 글씨는 아들 추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된다. 어머니 기계유씨 글씨 또한



〈도3〉 김노경이 며느리 손녀 서녀에게 보낸 편지

아주 빼어났으니, 추사의 필재(筆才)는 양친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독: 인편의 글시들 보고 든” 밧기며 이수이여려 날이 되니 년후여 대되 무양하고 교관덕은 몸
이 뵙지 아니한듸 도섭(調攝)이나 잘하고 계절이 관겨치 아니하느냐 념이로다 나는 전 모양대로 이시
니 명완(命頑)한 일 고이하고 날이 점” 더워 가니 아마 겨울과 달나 념녀된다 셔울 집과 강의셔는 다
Hon가지로 지내고 짹의 종형제는 엇더하니 요소이 역질이 단닌다 하니 념녀되기 측량업고 날은 이리
더워가니 더고나 마음이 노히지 못한다 보낸 의복과 찬합 등속은 바다 노코 의복은 더워 뜨이 어렵
더니 이제는 날이 더워도 지낼가 보다 …… 신묘 삼월 념칠일 구

3) 명필 가문에서 태어나 명필을 낳은 기계유씨의 한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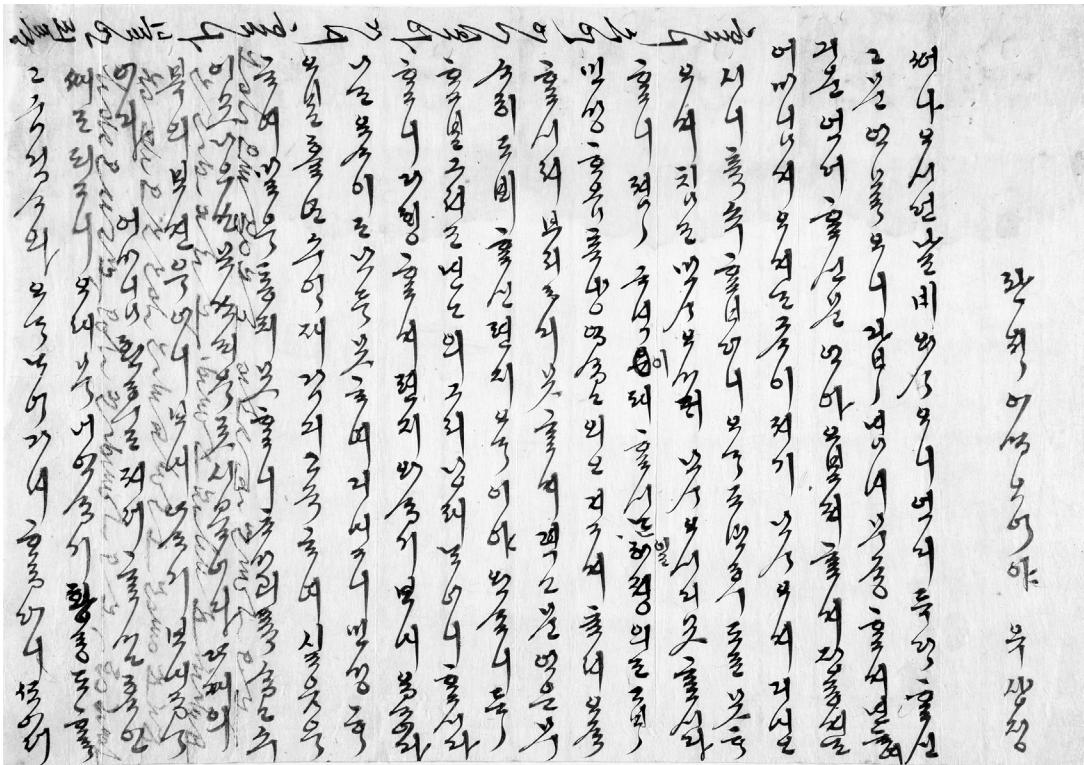
추사 김정희의 생모 기계유씨(杞溪俞氏, 1767. 1. 19.~1801. 8. 21.)는 김제군수를 지낸 유준주(俞駿柱, 1746~1793)와 참판 이해중(李海重, 1727~?)의 딸 한산이씨의 장녀로 태어나 월성위가에 출가하여 35세에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의 아들이 바로 조선의 대 명필 추사 김정희이다.

김노경과 혼인하여 스무 살인 1786년에 정희를 낳았고, 그 밑으로 명희(命喜, 1788~1857), 상희(相喜, 1794~1861) 등 모두 세 아들을 낳았다. 기계유씨의 자세한 생애는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3건의 편지 글씨로 보아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잘 썼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수재 유척기(知守齋 俞拓基, 1691~1767)는 금석학의 권위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이 집안의 대표적 인물이다.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영조의 서녀 화순옹주의 남편)의 비문을 짓고 쓸 정도로 문장과 글씨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할아버지 아재 유한소(雅齋 俞漢蕭, 1718~1769)는 문과에 급제하여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 분이며, 문장으로 이름을 날린 저암 유한준(著菴, 俞漢雋, 1732~1811), 예서에 능했던 기원 유한지(綺園 俞漢芝, 1760~1834)는 재종조(再從祖) 할아버지시다. 유한지가 추사의 외가라는 사실만으로도 추사의 글씨는 외탁했다고 할 정도로 조선의 명필 가문이다. 기계유씨 남동생으로 이조판서로 추증된 유계환(俞繼煥, 1771~1853)이 있는데, 기계유씨의 편지에서 이름 그대로 ‘계환’으로, 김노경의 편지에서는 자인 ‘조승(祖繩)’으로 언급되었다.

기계유씨는 보기 드물게도 추사 김정희를 임신한 지 24개월 만에 출산하였다는 일화, 또 추사를 출산하던 날 충남 예산 추사 본가의 우물물이 막혔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기계유씨는 편지글 세 건이 전해지는데, <도4>의 편지는 쓴 시기가 정조 15년(1791) 8월 25일이다. 편지 내용엔 시기가 써어 있진 않지만 1791년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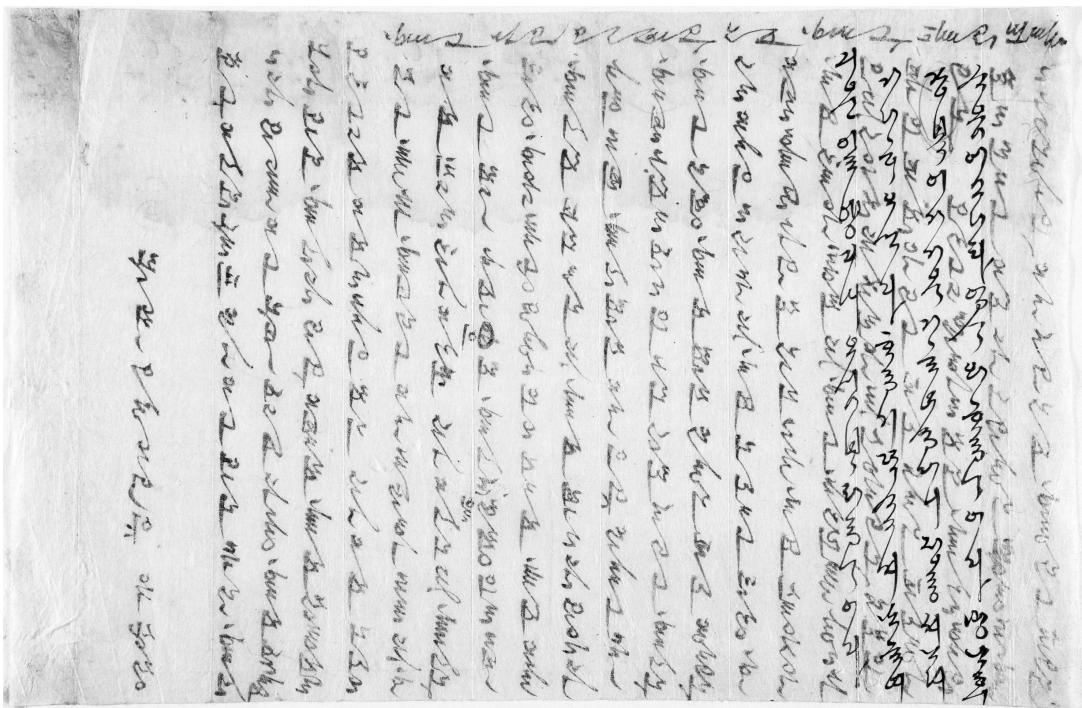


〈도4-1〉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쓴 편지(국립중앙박물관소장) 앞면

이 편지의 사연 속에 “덕소 문안은 무수히 도비(到配)호오신 편지 오늘이야 왓사오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부친인 유준주가 정조 15년(1791) 7월 29일에 태묘를 개수하는 일을 할 때 잘못한 죄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조선왕조실록, 정조 33권, 15년 7. 29.) 그대로 시기가 일치한다.

이때 기계유씨는 친정에서 모친을 모시고 지내면서, 수원(현릉원)에서 첨정 벼슬을 하고 있는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기계유씨의 나이는 24세 추사의 나이는 5세였다.

기계유씨는 1791년(정조 15) 8월 25일(〈도4〉)에 편지 보내고 3일 뒤 8월 28일에 또 남편에게 긴 편지(〈도5〉)를 쓴다. 그래도 할 말이 남아 추신으로 후면에 노비 경복이의 가관(혼인)하여 줄 일을 세세하게 적고 있어 부부간의 따뜻한 교감을 엿볼 수 있다. 3일 전에 부친 편지(25일자 편지)의 사연 속에 “덕소 문안은 무수히 도비(到配)호오신 편지 오늘이야 왓사오니”라고 한 것은 부친인 유준주가 정조 15년(1791) 7월 29일에 태묘를 개수하는 일을 할 때 잘못한 죄목으로 유배를 간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조선왕조실록, 정조 33권, 15년 7. 29.) 이때 기계유씨는 친정에서 모친을 모시고 지내면서,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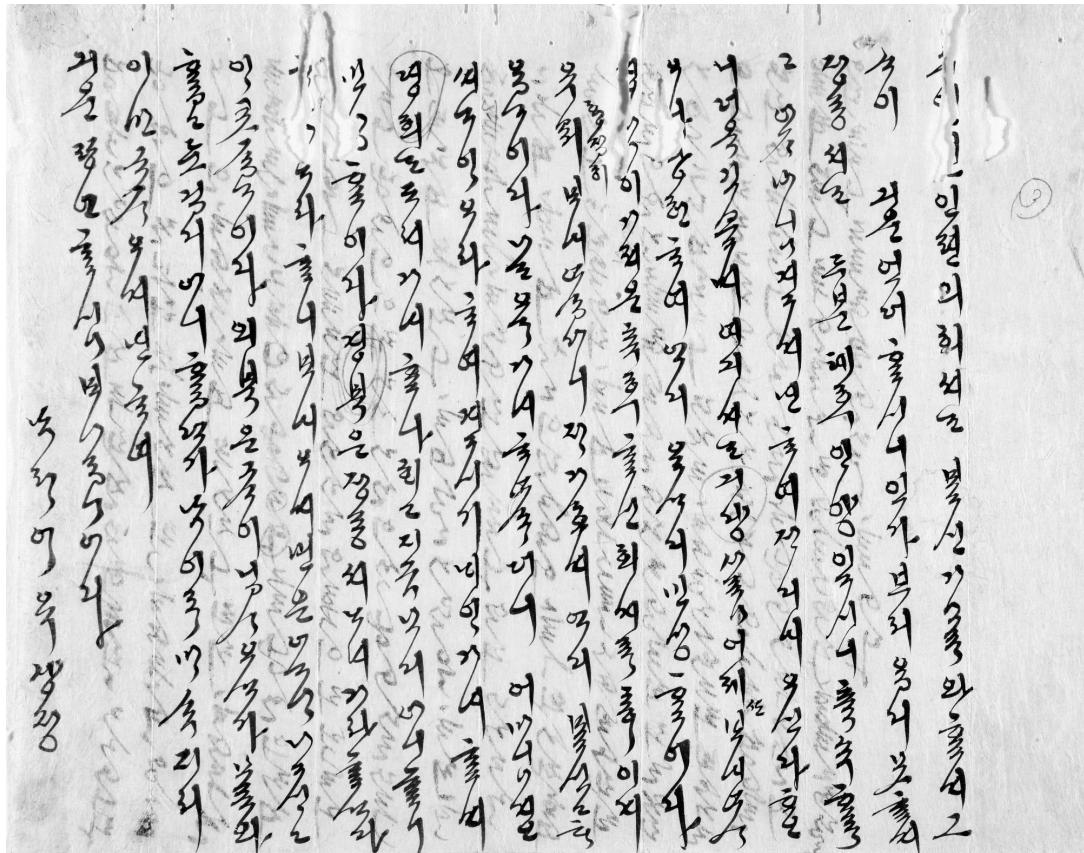


〈도4-2〉 기계유씨가 남편 김노경에게 쓴 편지(국립중앙박물관소장) 뒷면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3일 전에 보낸 답장 편지는 잘 보셨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장동에 계시는 두 분 어르신의 안부와 아주머님의 안부, 유배된 친정아버지의 근황을 적고 친정인 창동에 있다가 이제 시댁으로 가려 하니 아들 정희가 기침이 낫지 않아 걱정이라는 내용, 임지에서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물음과 보내드린 의복은 너무 두껍지 않더냐...”⁶⁾는 등 3일 전에 보내고 또 보내건만 남편에 대한 걱정과 자식과 어르신들 걱정뿐이다.

6) 원래 최초의 판독자이신 고 김일근 교수께서는 기계유씨가 예산에서 서울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였으나 바뀐 일부 판독과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 편지사업단연구원 이종덕 선생님에게 자문을 받았다.



〈도5〉 남편에게 쓴 기계유씨의 편지(1791년) 전면 부분(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물번호 구5463)

판독; ###(수일 견) 인편의 회서는 보오신가 모루와 ھ오며 그수이 [隔]과운 엇더호오시니잇가 브리옵디 못 ھ오며 장동셔는 [隔]두 분 테후 일양이오시니 축슈 ھ읍고 [隔]아즈바님겨오셔 년 ھ여 잘 디내오신다 ھ오니 더욱 깃브오며 여기셔는 ھ당(機張) 사름 어제 ↓[쏘] 보내여소오나 #(당)한(當限) ھ여 엇디 오오신디 민망 ھ오이다 ##(경산)이 가져온 ھ후(追後) ھ오신 회서(回書)를 총"이 겨유 뻐 ↓[황잡히] 보내여습더니 잘 가소오며 엇디 보오신고 ھ입느이다 나는 오늘 가려 ھ여습더니 [隔]어 마님겨오셔 나이일 오라 ھ여 겨오시기 나이일 가려 ھ오며 명희는 ھ려가려 ھ오나 허고(咳苦) 지금 낫디 아니 ھ오니 미#(망) ھ오이다 경복은 장동셔 ھ려가라 ھ오신다 □□□ 오라 ھ오니 보내오며 번(番)은 어느 날 나오실고 일코습느이다 의복은 그수이 넙소오신가 모루와 ھ읍고 듯겁디 아니 ھ옵던 가 ね이옵 말솜 자리 이만 ぐ조오며 년 ھ여[移] 과운 평안 ھ오심 ㅂ라옵느이다 ね팔일 유 양장/ (후면 생략)

편지에서 보듯이 추사의 어머니 기계유씨의 글씨는 추사에 뒤지지 않는다. 그녀의 글씨는 궁체

의 단아한 모습과 일반 사대부가의 활달한 기상이 함께 어우러져 역동성과 풍격(風格)이 일품(逸品)이다. 그런데 문자의 대소, 연결성, 조세 표현, 필력 등이 남편 김노경의 편지 서체와는 매우 달라 사대부가의 남녀 서체의 특징을 한 번에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예로 기계유씨 편지 글씨에 나오는 'l'모음 시작 부분 획형은 참정(斬釘, 잘라진 못대가리) 모양으로. 역입하여 멈추었다 날카롭게 뻗어 내린 세로획의 강한 필치를 볼 수 있다. 기계유씨 편지는 전편에 흐르는 유려하고 역동적인 빠른 필세, 받침 'ㄹ'과 재점(再點)의 흐르는 듯한 연결서선에서 우아한 기품과 울림의 서체미를 볼 수 있다.

4) 아내 사랑으로 남겨진 추사의 한글 편지

추사의 문집 대부분이 편지글이라고 할 만큼 추사는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다. 추사는 '추사체'라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서체를 창안해 서예의 신기원을 개척한 서화가일 뿐만 아니라 고증학자·실학자·금석학자로도 일세를 풍미한 당시 최고의 한문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한글로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한글 서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증조부 월성위 김한신, 조부 김이주⁷⁾, 조모 해평윤씨, 양부 김노영⁸⁾과 친부 김노경, 모친 기계유씨 등에서 이루어 놓은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사의 한글 편지는 40편이 남아 있으며, 부인 사후(死後) 며느리 풍산임씨에게 보낸 2건과 보유 편지 6건을 제외한 32건의 편지에는 면면마다 남다른 부부의 정분(情分)을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사연들이 남아 있다.

추사의 편지는 당대 최고 석학으로서의 명성에 비해 파격으로 느껴질 정도로 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애틋한 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 부인 예안이씨와의 금슬이 각별하였음을 알게 한다.

추사는 15세 되던 1800년에 이희민(李羲民)의 딸인 한산이씨(韓山李氏)와 혼인하였으나 1805

7) 김이주(金頤柱, 1730~1797): 광주부윤(1771), 전주판관, 형조판서, 우참찬을 지냈으며, 부인은 해평윤씨(1729~1796)다. 魯永, 魯成, 魯明, 魯敬, 長女(夫, 閔相燦), 次女(夫, 洪最榮) 모두 4남 2녀를 두었다.

8) 김노영(金魯永, 1747~1797): 문화현감(1774), 예조참판, 수원 부사(1788), 수안 군수(1791), 개성 유수(1793) 지냈다. 부인은 남양 홍씨(1748~1806)이며 딸만 다섯이며 아들이 없어 넷째 동생 김노경의 장자 정희를 양자로 들임. 長女는 李友秀(1776~1828), 次女는 李羲肇, 三女는 尹景成, 四女는 閔致恒, 五女는 李墅에게 출가하였다.

년 부인 한산이씨가 스무 살 나이에 갑자기 졸(卒)하자 1808년 23세 때 이병현(李秉鉉)의 딸 예안 이씨(醴安李氏, 1788~1842)를 재취(再娶)로 맞아 들였다.

재혼 후 새 사람의 덕이었는지 추사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 1809년 24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부친 김노경도 호조참판으로 승진해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추사도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경에 다녀오는 등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대전환기가 되는 시기였으며 부부의 금슬 또한 더욱 좋았기에 미술사학자 최완수(崔完秀) 선생은 추사의 재혼을 일러 “은반지를 잃고 오히려 금반지를 얻은 기쁨이 있었던 듯하다.”⁹⁾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사가 부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1818년 추사 33세 되던 해에 쓴 편지다. 효성이 지극한 추사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대구로 내려가 있던 부친 김노경을 뵈러 가 있을 즈음 서울 장동 월성 위궁에 있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다.

지난번 가는 도중에 보낸 편지는 보시었는지요? 그 사이 인편이 있었으나 답장을 못 보았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심히 섭섭했다오.¹⁰⁾ (도6)

이처럼 부인의 소식을 기다리는 정감 어린 사연과 부인에 대한 깍듯한 존대어 사용은 30대 젊은 지식인인 추사의 부인을 향한 애정과 예우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다 추사가 40대가 되면서 1829년(44세) 평양에서 장동 본가에 보낸 편지에는 대 유학자 추사도 부인의 질투 앞에서는 찔찔매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다른 의심하실 듯 하오나 이실(李室, 이씨 집안에 시집 간 누이)의 편지가 다 거짓말이오니
곧이듣지 마십시오. 참말이라도 이제 백수(白首)의 나이에 그런 일에 거리끼겠습니까? 웃습니
다.¹¹⁾ (도7)

편지의 시기 배경을 보면 추사의 생부 김노경은 환갑을 지내고 1828년 7월 평안감사로 임명되

9) 유홍준, 완당평전 152쪽 학고재.

10) 1818년(33세) 추사가 대구감영에서 장동본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 (31× 53cm). (판독문: 거번 둉노의셔
흐온 편지는 보와 겨시옵. 그 수이 인편 잇소오나 편지 못보오니 봇그려워 아니 혀야 겨오시옵. 나는 무옴
이 심히 섭”흐옵”)

11) 1829년(44세) 11월 26일 편지 추사가 평양에서 장동 본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23×41.6cm)(판독: 다른
의심하실 듯하오나 니집 편지가 다 거운 말이오니 고지듯지 마옵. 춤말이라 혀고 인제 빅슈지연의 그런
것 걸의깃실잇가. 웃습.)

어 평양으로 간다. 추사가 마침 예조참의에서 물러나 있을 때라 아버지를 찾아 평양으로 가 있는 동안 기생 죽향과의 염문이 부인의 귀에 들어가 죽향과의 일은 오해라고 진땀 흘리며 부인을 안심 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이름을 날렸던 평양 기생 죽향에게 시를 지어준 것¹²⁾을 보면 부인의 괜한 오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월성위궁에서 귀족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추사 부부에게 하늘도 시기하셨는지 추사가 55세 되던 해(1840, 憲宗 6년)에,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와 관련하여 탄핵을 받아 1840년 7월에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이 귀양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된다. 이 때 남편의 화(禍)로 인해 충격을 받았는지 예안이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픈 부인이 걱정된 추사는 제주에서 써 보낸 15건의 한글 편지에는 건건마다 몸이 좋지 않았던 부인의 병에 대한 걱정과 위로가 빠지지 않았다.

당신은 요사이 어떠하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을 리가 있소. 아마 멀리 있는 나를 속이는 듯하오며 미음죽은 잘 드시고 있소? 당신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날 보호하여 주는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시오.¹³⁾ (도8)

1842년 3월 편지에서는 추사는 노경(老境)이라 한 번 병을 앓게 되면 쾌유될 길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당신 혼자 몸이 아니라고 몸을 잘 신섭(慎攝)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부디 당신 한 몸으로 알지 말으시며 이천리 바다 밖에 있는 내 마음을 생각하셔서 충분히 조심하고 조섭 잘 하시기 바라오며…¹⁴⁾ (도9)

12) 『완당선생전집』 권10, 시, 패성 기생 죽향에게 회증하다[戲贈湏妓竹香] 2수

높이 솟은 저 대 하나 일념향이 아닌가 / 日竹亭亭一捻香

노랫소리 녹심에서 기다랗게 뽑혀 나네 / 歌聲抽出綠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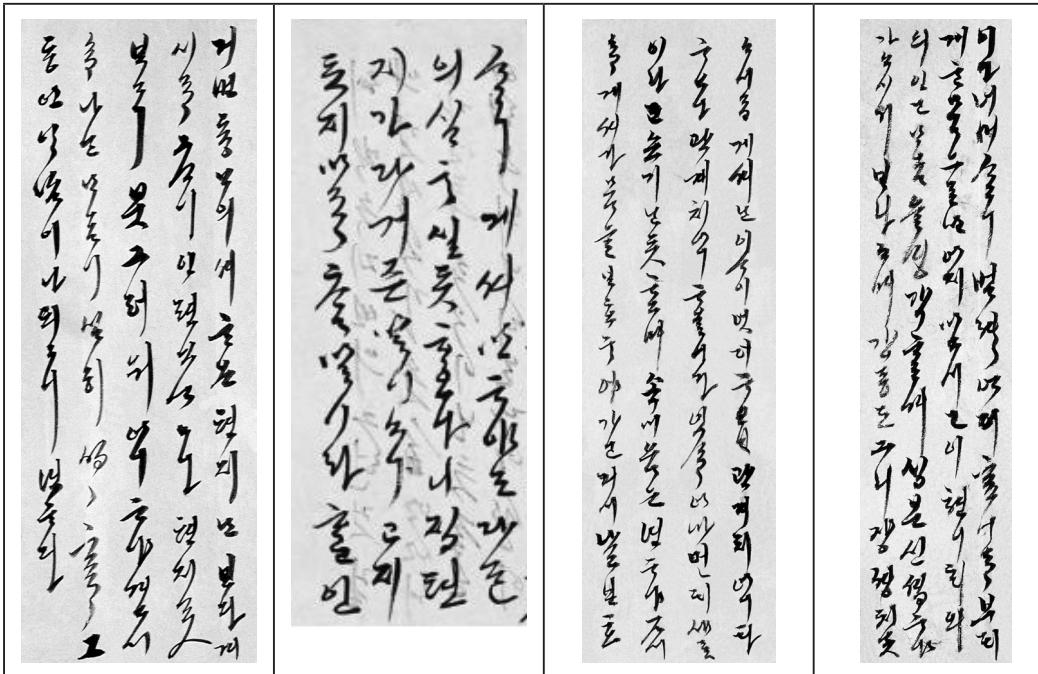
장 보는 벌꽃 훔칠 기약을 찾고픈데 / 衙蜂欲覓偷花約

지조가 높다 한들 특별한 애 지닐 수야 / 高節那能有別腸

13) 1841년(56세) 윤3월 20일 직전 제주도 추사가 예산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 26 39.6(판독; 관겨치 아니 타호오나 관계치 아니하올 이가 잇습. 아마 먼 디 샤름이라고 쇼기논 듯하오며 속미음은 년후야 주시옵. 계셔가 몸을 보호하야 가는 거시 날 보호하야 주는 것시오니 그리 아오시옵)

14) 1842년(57세) 3월 4일 제주도의 추사가 예산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 27.5 × 42.1cm.(판독; 부디 게 혼 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니 허외의 잇는 무음을 성각호오셔 십분 신섭(慎攝)하야 가오시기 바라오며…)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음을 애써 표현하여 부인에 대한 자애(慈愛)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6〉

〈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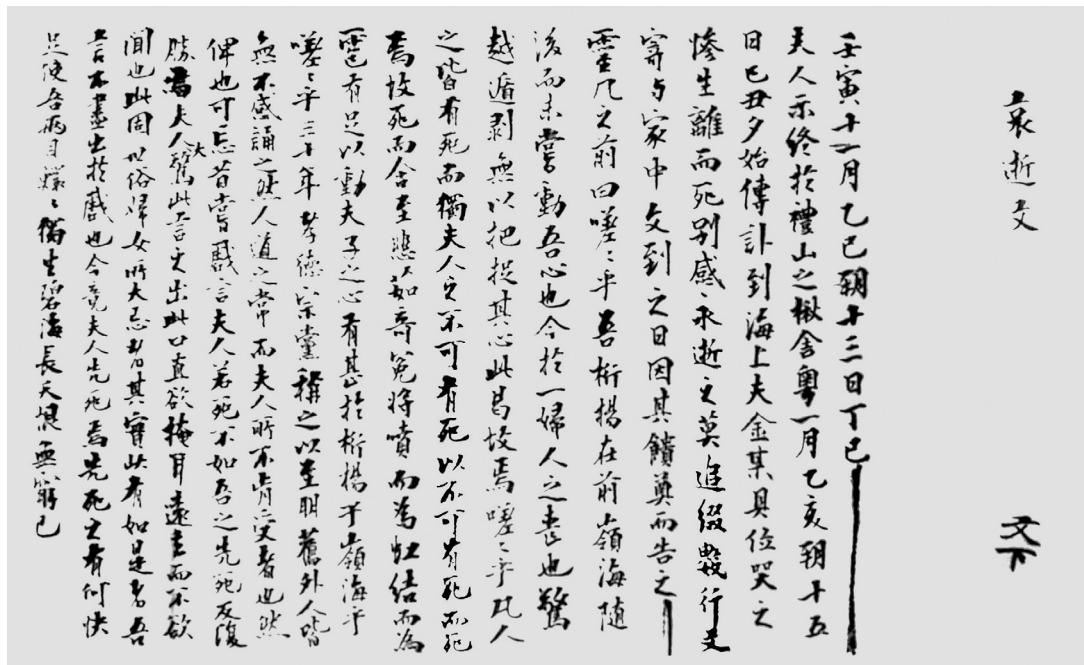
〈도8〉

〈도9〉

그러나 남달리 금슬이 좋았고, 귀양살이에 필요한 옷가지와 음식을 챙겨주던 아내 예안이씨가 1842년 11월 13일 사랑하던 남편의 해배(解配)도 보지 못한 채 끝내 세상을 뜨고 만다. 더욱 기막힌 사연은 1842년 11월 13일에 부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은 다음날인 11월 14일(57세)에 한 편의 편지를 쓴다. 편지에는 “이 동안은 무슨 약을 자시며 아주 자리에 누워 지내시오? 간절한 심려 갈수록 그치지 못하겠소.”라고 하여 아내의 병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지 4일째 되는 날인 11월 18일의 편지는 아내의 병세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아우(上희)의 편지를 받고 추사는 이미 부인의 죽음에 대한 예감을 갖고 있었는지 더욱 애를 태우며 육지로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또 한 통의 편지를 쓴다. 이것이 부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지난번 부친 편지가 인편에 함께 갈듯 하오며 …우록정을 자시나 보오니 그 약이 조금 차도
가 있을지 멀리 밖에서 심녀 초조함 형용하지 못하겠습니...¹⁵⁾

이미 죽은 아내의 부고를 이듬해 정월 보름 저녁에야 받은 추사는 상복을 입고 통곡하며 ‘애서문(哀逝文)¹⁶⁾을 적어 슬픔을 토로하였으니, 읽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도10〉 부인 예안이씨 애서문『추사한글 편지』서울서예박물관 224쪽 발췌

현대역: 임인년 11월 을사삭(乙巳朔) 13일 정사에 부인이 예산(禮山)의 추사(楸舍)에서 일생을 마쳤는데 다음 달 을해삭(乙亥朔) 15일 기축의 저녁에야 비로소 부고가 해상(海上)에 전해 왔다. 그래서 부(夫) 김정희는… 어허! 어허! 나는 항양(桁楊)이 앞에 있고 영해(嶺海)가 뒤에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한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자도 길이 없으니 이는 어인 까닭이지요……

15) 1842년(57세) 11월 18일 제주도의 추사가 이미 사망한 부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22×35cm 김선원소장(판독; 우녹전을 주시거나 보오니 그 약이나 꽈하 동령이 겨시울지. 원외셔 심녀초절후읍기 형용 못해 개습. 나는 전편 모냥이오며…)

16) 『완당선생전집』 권7, 제문, 부인예안이씨애서문(夫人禮安李氏哀逝文)

예전에 나는 희롱조로 말하기를 “부인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소.”라 했더니, 부인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크게 놀라 곧장 귀를 가리고 멀리 달아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요. 이는 진실로 세속의 부녀들이 크게 꺼리는 대목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이와 같아서 내 말이 다 희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었소.

지금 끝내 부인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뻔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푸른 바다와 같이 긴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끝이 없을 때름이외다.¹⁷⁾

죄인의 몸이라 부인의 상례를 직접 치를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 하다가 정화수를 올린 후 상투를 풀고 예산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하여 비통한 울음을 제문으로 토해 내었다.

먼저, 혼인 후 삼십 년 동안의 효성스런 덕행으로 친척들이 칭찬하였고 벗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여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예안이씨가 추사 가문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지 부인의 일생을 상찬하고 있다.

그리고는 평소에 희롱조로 말한 “부인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소.”라는 말이 진실로 희롱만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지아비 추사의 사랑은 푸른 바다 보다 깊고 긴 하늘보다 높은 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임을 더 말 할 것이 없겠다.

추사 또한 애서문(哀逝文)으로도 그 아내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던지 또다시 도망시(悼亡詩)¹⁸⁾를 쓴다.

〈귀양지에서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노라〉謹識配所輓妻喪
어찌면 저승에 가 월로(월하노인)에게 애원하여 / 那將月姥訟冥司
내세에는 그대와 나 땅을 바꿔 태어나리 / 來世夫妻易地爲
나 죽고 그대 살아 천리 밖에 남는다면 / 我死君生千里外
이 마음 이 슬픔을 그대가 알리마는 / 使君知我此心悲¹⁹⁾

17) 완당전집, 제7권, 제문 (부인 예안이씨 애서문) 고전번역원 db

18) 도망시(悼亡詩)란 부인을 사별(死別)한 남편이 그 기막히고 애처로운 심정과 가슴에 맷히는 갖가지 회한을 시로서 표현하는 것으로 만시(輓詩,弔詩)의 한 종류이다. 마냥 엄격하게만 생각되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먼저 간 아내에게 바친 시는 요즈음의 현대인들보다 더 절절하고 애듯하다. 종종 때 대사성을 지낸 이희보(1473~1548)는 내세에서도 부부되자고 한 약속 잊지 말라고 하였고(『哭亡妻悼亡詩』, 『詩評補遺』에 실려 있다.) 하곡 정제두의 문인인 강화학파의 중심인물인 심육(1685~1753)은 아내 진주 강씨를 잊고서 오십년간 함께 했던 좋은 벗을 잊었다면서 생전의 잔소리가 그립다는 표현을 하여 가장 소중했던 사람인 아내에게 바치는 도망시(悼亡詩)가 많이 전해온다.(『樗村遺稿』에 실려 있다.)

나의 이 기막힌 슬픔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으니 남녀간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月下老人)에게 송사(訟事)라도 하여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부로 만나되 그때는 부부가 서로 바뀌어서 당신이 지금의 나의 처지에 있어 보아야 비로소 나의 이 비통한 심정을 그대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애도하고 있다.

4. 추사가 한글 서체의 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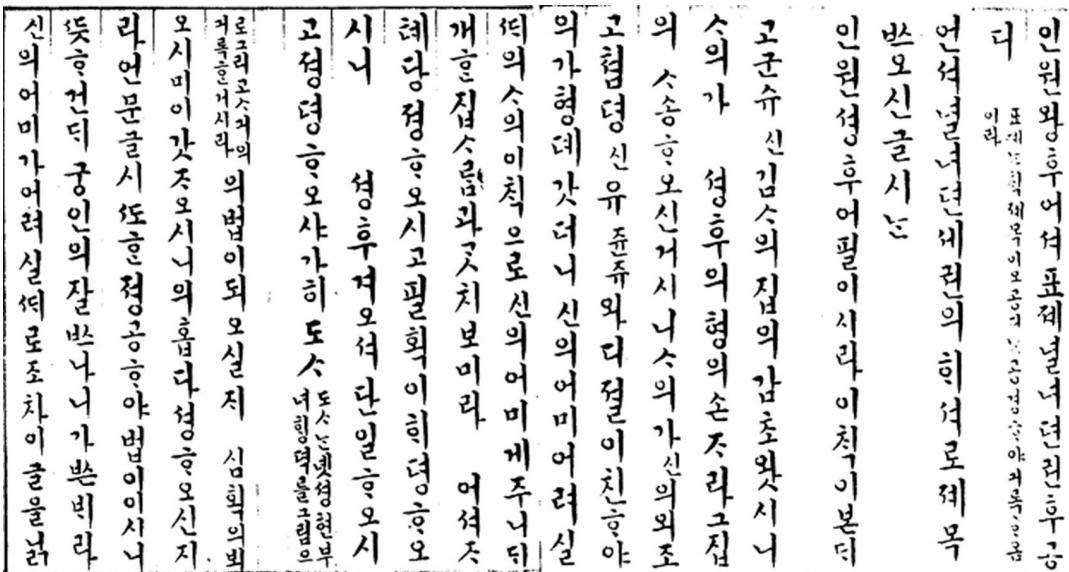
1) 『자손세훈』에 기록된 기계유씨의 글씨 공부

그동안 추사 및 추사가 여성들의 한글 서체에 대해서 연구한 바로는 그 어떤 것보다 명필이었다. 해평윤씨의 한글서체는 일반 사대부 가문의 한문필획에서 나온 서간서체의 전형(典型)이었으며, 기계유씨의 글씨는 서사 상궁의 궁체 필법과 서간의 흐름에서 오는 정(正), 측(側), 경(輕), 중(重), 순(順), 역(逆) 등의 필법과 맞물려 완벽한 미적 구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글씨는 단연코 기계유씨의 글씨라고 말해오곤 했다. 더군다나 기계유씨 가문이 대대로 명필 집안이긴 하지만 궁체의 필법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늘 궁금해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된 『고문서집성』 86권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었다. 이 책은 서산 대교 경주김씨 댁 고문서 자료로, 접첩본 12쪽으로 성립된 『자손세훈』(28.4×12.5cm)의 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자손세훈』은 추사의 동생 산천 김명희(1788~1857)가 어머니인 기계유씨가 늘 보시던 인원왕후의 친필 어서로 표제를 붙인 『널녀년』을 자손들에게 소중히 간직하고 널리 읽어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 철종 3년(1852) 과천 우사(寓舍)에서 제작한 첨이다. 그러면 기계유씨가 어떻게 인원왕후의 『어서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인지 김명희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완당전집, 제10권 도망(悼亡) 고전번역원 db

『자손세훈』 부분



〈도11〉 김명희, 「자손세훈」 부분, 『고문서집성』 제86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언서 열녀전 세 권을 정서로 제목 쓰신 글씨는 인원성후 어필이시라 이 책이 본디 고 군수 신 김 사의 집에 감추어 왔으니 사의가 김성후의 형의 손자라 그 집에 왕실에서 보내온 것이니 사의가 신의 외할아버지 첨정 유준주와 지조와 절개가 친하여 의형제 같더니 신의 어미(기계유씨)가 어렸을 때에 사의가 이 책을 신의 어미에게 주니 대개 한 집사람과 같이 봄이라. …중략… 신의 어미가 어렸을 때부터 이글을 읽고 외우고 또 그 글씨체를 익혀 보배로 감추어 오직 존중하고 조심했으니 중궁 전 어필을 외간에서 얻을 바 아니라, 신의 집의 성후 여러 장을 감추어 왔으니 신의 증조모 화순옹 주에게 내리신 것이다. … 후략 ….

〈도11〉의 내용으로 보아 기계유씨의 부친 유준주와 절친한 김사의²⁰⁾에게서 구한 인원성후가 제작한 『널녀년』을 기계유씨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외우고 또 글씨체를 익혀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기계유씨 글씨의 우아함과 역동적인 글씨는 바로 궁중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공부함으로써 궁체의 필의로 써지게 된 연원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게다가 기계유씨의 장남인 추사의 한글 서체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자료에서 보이는 차남 산천 김명희의 궁체 필의로 쓴 정자 글씨는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명필의 가문에서 궁체를 제대로 익혔음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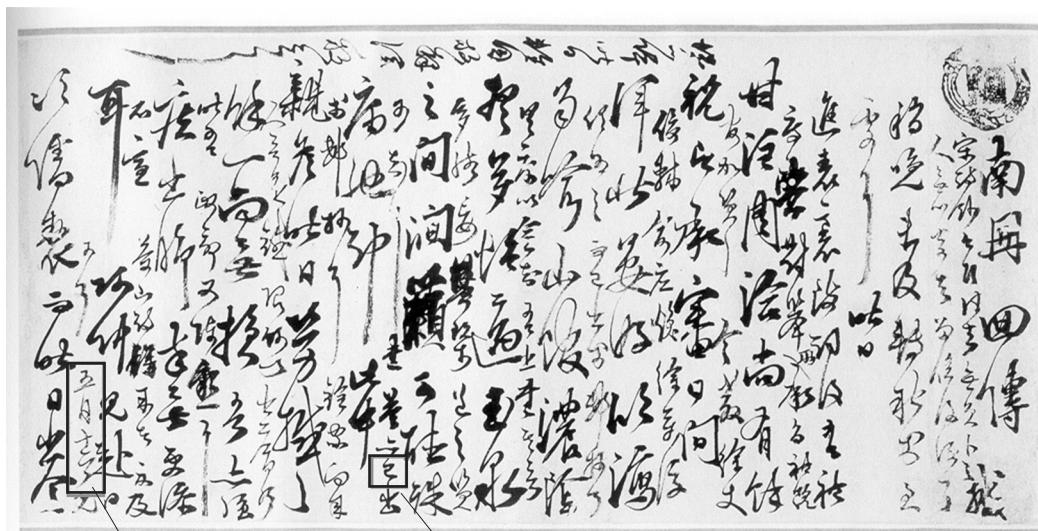
20) 김사의: 본명은 김난순, 자가 사의, 호는 벽곡. 증조부 김제겸, 조부는 김원행, 부는 김이유, 이조판서.

2) 한문 필획의 근거

조선시대 남성들이 쓴 한글 편지는 평소 한자 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한글 서체에도 한자 서체의 필의가 나타나 있음을 소논문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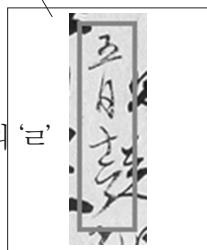
추사 가문의 여성 글씨 또한 사대부 가문에서 출가한 여성들인지라 어릴 때부터 한문을 공부하였거나 부친이나 남자 형제들의 글씨에서 많이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추사 한문 편지의 예(例)에서, 한글의 필획이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다음 한문 편지(<도12>)에서 보이듯 ‘亦已出’에서 ‘已’가 바로 한글획 ‘고’의 모양과 같으며, ‘五月十二日’의 ‘日’자에서 한글 종성 ‘ㄹ’획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ㄹ’은 ‘일’자의 종성 ‘ㄹ’의 차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반가의 한글서체가 한문에서 많이 차용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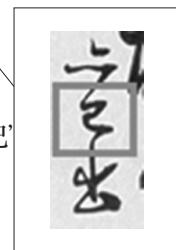


<도12> 「남책(南冊)에게 전함」, 1828년, 과천시 추사박물관 소장.

May 12th character's 'ㄹ'



역이출에서 '已'



21) 봉래 양사언, 미수 허목, 진재 김윤겸의 한글 서체가 그들의 한문 서체와 필획이 같음을 분석 발표한 바 있다.(참고문헌 참조)

5. 해평윤씨와 기계유씨 한글 편지의 어휘 및 음절에 대한 조형성

1) 해평윤씨-기계유씨 한글 편지 어휘 연결문자의 연결성 특징

추사가 여성 한글 편지 글씨 서체는 대부분 흘림으로 썼는데 2자-3자로 이루어진 어휘의 연결 특징(그림-6)을 찾아보면 2자 연결문자에서 어제, 수연, 아니, 떠나, 오늘 감과 등의 연결선은 거의 강하게 연결했으며 획형은 비슷하나 해평윤씨는 연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기계유씨의 연결은 약간의 부드럽고 가는 곡선으로 연결되었다. 해평윤씨와 기계유씨의 편지에 나타나는 한글 서체는 자모음의 획형을 생략하고, 다양한 유형의 자형을 구사하며 허실겸도의 유려함이 돋보인다. 편지 문장 중 ‘사연’자의 ‘연’에서 여 세로획의 생략부분, ‘오늘’자의 종성 ‘ㄹ’을 간략화한 글자 등 여러 부분의 글자에서 유창한 서체의 멋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모려도’의 유연한 연결의 흐름에서 놓익은 필선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판독		어제	수연	아니	떠나	오늘	감과
2자 연결자	기계 유씨	여 제	수 연	아 니	떠 나	오 늘	감 과
	해평 윤씨	여 제	수 연	아 니	떠 나	오 늘	감 과

〈도13〉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 2자 연결문자의 획형 비교도.

〈도14〉의 ‘디내고, 수일재, 아모려도, 깃브나, 요소이, 그소이’들의 3자 연결에서 결구의 형태와 용필의 결구는 같으나 해평윤씨의 연결은 자간이 짧아서 유려함이 적고 기계유씨의 연결은 중봉 필획의 자유로운 필치를 구사하고 있다.

판독		디내오	수일재	아모려도	깃브오	수연을	그소이
3자 연결자	기계 유씨						
	해평 윤씨						

<도14>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 3자-4자 연결문자의 획형 비교도.

2) 윤씨-유씨 한글 편지 자모음 획형의 용필법적 특징

(1) 한글 자음자 획형의 용필법적 특징

관련 문자	가-ㄱ	나-ㄴ	다-ㄷ	라	마	비	시
기계 유씨							
해평 윤씨							
추사 서체 비교							

관련 문자	야	지	치	크	타	피	히
기계 유씨	야	지	치	크	타	피	히
해평 윤씨	야	지	치	크	타	피	히
추사 서체 비교	야	지	치	-	-	피	히

〈도15〉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 문자의 자음획형 비교도.

‘ㄴ’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ㄴ’은 세로획이나 가로획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였다. ‘ㄴ’이 ‘ㅏ’, ‘ㅓ’ 등과 같이 모음이 오른쪽에 올 때에 가로획의 끝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은 18세기 『명의록언해』 등에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18세기 말 19세기 초 기계유씨 해평윤씨 편지 글씨에는 가로획이 많이 올라간다. ‘ㄹ’, ‘ㅍ’의 형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이나 ‘ㄹ’보다 ‘ㅍ’획 첫 획이 강하다.

‘ㅁ’과 ‘ㅍ’의 자형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나 ‘ㅍ’획의 가로획이 더 올라간다. ‘ㅁ’은 초성에 쓰인 ‘ㅁ’이 중성자음으로 이어 쓸 때 제3획이 생략되는 모습은 같다 ‘ㅂ’은 자형의 변화가 없는 글자이나 초성으로 쓰이지만 연결될 때에는 받침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ㅅ’은 해평윤씨나 기계유씨가 동일하게 ‘ㅅ’ 끝에서 회봉하여 첫 획이 짧아지게 된다.

‘ㅇ’은 창제 당시에는 완전한 동그라미였다가 필사할 때는 연결획에서 꼭지가 있는 삼각형으로 보이다가 궁체의 난숙기인 18세기 후반부터 완전한 등근 모양의 ‘ㅇ’의 모습으로 정착되는데 해평윤씨의 글씨나 기계유씨의 글씨에서는 완전한 ‘ㅇ’의 모습으로 정착되기 직전인 18세기 형태를 띠고 있다. ‘ㅌ’은 원래 ‘ㄷ’의 가운데에 가로획의 모습이 보이나, 해평윤씨는 3획을 연결하였으며, 기계유씨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ㅎ’은 ‘ㅎ’에 꼭지점의 세로획과 이어져 있으며 붙어있는데, 꼭지점과 ‘ㅎ’이 서로 떨어져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1612년에 간행된 『연병지남』부터이다.

추사가 여성의 글씨에서는 3획이 나란히 연결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편지글에 즐겨 사용하는 자형으로 19세기 말에 일반화 되었다.

비교서체로 추사의 한글 획 또한 해평윤씨와 어머니 기계유씨의 획과 거의 비슷하여 서풍의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한 집안에 내려오는 획형은 그대로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한글 모음자 획형의 용필법적 특징(도16)

관련 문자	이 ㅣ	가 ㅏ	야 ㅑ	어 ㅓ	녀 ㅓ	보 ㅗ	요 ㅕ	무 ㅜ	슈 ㅠ
기계 유씨	丨	ㅏ	ㅑ	ㅓ	ㅓ	ㅗ	ㅕ	ㅜ	ㅠ
해평 윤씨	丨	ㅏ	ㅑ	ㅓ	ㅓ	ㅗ	ㅕ	ㅜ	ㅠ

〈도16〉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 문자의 모음획형 비교도.

해평윤씨와 기계유씨의 모음자 획형을 <그림-9>를 통해서 살펴보면 해평윤씨의 획형 ‘ㅣ’ 모음의 시작은 뭉툭하게 썼으나, 기계유씨 편지 글씨의 ‘ㅣ’ 모음 시작 부분 획형은 참정(斬釘, 잘라진 못대 가리) 모양이다. 기계유씨의 역입하여 멈추었다 날카롭게 뻗어내린 세로획의 강한 필치는 인선왕후나 명성왕후의 글씨에서도 볼 수 있다.

‘ㅑ’의 획형을 보면 해평윤씨, 기계유씨의 획형은 해평윤씨는 끝이 무디고 거친 반면에 기계유씨는 필사회고하여 2획으로 나타내고 있다. ‘ㅓ’ ‘ㅓ’에서 해평윤씨 기계유씨 모두 가로획의 접필을 세로획의 윗부분에 붙이고 있어 궁체의 현대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의 가로획은 모두 짧게 처리하여 18세기 궁중에서 쓴 소설본이나 효의왕후, 청연공주가 쓴 필사 글씨의 특징 또한 가로획을 짧게 쓰고 있었던 시대적 서풍을 볼 수 있다. ‘ㅜ’ 가로획의 좌저 우고의 기울어짐은 서사상궁의 글씨를 보는 듯 궁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해평윤씨-기계유씨 한글 편지 단일 문자의 결구법적 특징

가) 초중성합자의 구조의 결구적 특징(〈도17〉)

위치	구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좌 우 위 치 합 자	기계 유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해평 윤씨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비교 추사 서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위치	구분	고	느	도	로	모	보	후/흐
	기계 유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해평 윤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상 하 위 치 합 자	비교 추사 서체	ㄱ	ㄴ	ㄷ	ㄹ	-	ㅂ	ㅅ

〈도17〉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의 초중성합자 구조 비교도.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의 자모음을 좌우 위치로 배치하여 쓴 초중성합자 7종의 자형은 대체로 가로폭을 좁게 하였으며 세로획의 길이가 길어졌다. 설음자 ‘나, 다, 라’자의 경우 초성과 중성

을 강한 필치로 접필시켰고 ‘ㅏ’의 수평점은 세로획 아래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긴 사향선이 이루어 지도록 필세 회고하여 힘찬 곡선형으로 나타내었다.

자모음을 상하위치로 쓴 초중종성합자 7종의 자형은 ‘고’ 자를 제외하고 ‘도, 로, 모, 보’ 자는 중 성의 가로획을 짧게 나타내어 자형의 가로폭을 좁게 한 특징이 보인다. 중성모음 각 문자의 점과 선은 짧고, 간결하며 직선적으로 강하게 썼다. 이러한 형태의 자형은 18세기 말 궁중의 필사본에서도 유행된 자형이다. 해평윤씨의 글씨와 기계유씨의 좌우 위치 배자 형태의 자형은 거의 비슷하며 해평윤씨는 아마도 지필묵 사용에 따른 차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나) 초중종성합자의 구조의 결구적 특징(〈도18〉)

위치	구분	ㄱ(깃)	ㄴ(념)	ㄷ(답)	ㅁ(망)	ㅂ(반)	ㅅ(샹)	ㅎ(황)
좌 우 하 위 치 합 자	기계 유씨	긱	넉	답	망	반	샹	황
	해평 윤씨	긱	녁	箓	망	반	샹	황
위치	구분	금	눌	들	못	룰/를	슬	을
상 중 하 위 치 합 자	기계 유씨	숙	숙	숙	숙	숙	숙	숙
	해평 윤씨	숙	숙	술	숙	술	술	술

〈도18〉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의 초중종성합자 구조 비교도.

기계유씨와 해평윤씨 편지 글씨의 자모음을 좌우하 상중하 위치로 나타낸 초중종성합자 7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계유씨는 긴 글씨는 길게 썼으며 해평윤씨는 ‘ㅏ’ 획을 생략하여 좌우 위치

로 결구된 초중성합자 보다 문자의 키를 작게 나타냈다. 이 문자 중 ‘념’자의 ‘년’ 부분 획형은 ‘년’의 세로획을 생략하여 두 여성 글씨의 자형이 거의 같게 썼다. 자모음을 상증하 위치로 배획하여 쓴 추사가 여성 한글 편지의 초중종성합자 7종은 문자의 가로폭 크기를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늘, 들, 룰, 슬’자의 종성 ‘ㄹ’은 굴곡이 약간 느껴지는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한 획으로 간략화했으며, 위아래 문자 종류에 따라 ‘ㄹ’의 간략형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

기계유씨 편지 글씨에서는 초중종성합자의 초성-중성-종성을 가는 선과 굵은 선으로 힘차고 직선적으로 연결하여 씀으로써 역동적인 필획을 구사한 반면 해평윤씨의 편지 글씨 획은 거칠고, 부드러운 맛이 보이지 않는다. ‘늘’자에서 해평윤씨는 점획처럼 뭉툭하게 끊었으며, 기계유씨의 받침 ‘ㄹ’의 흐르는 듯한 연결선의 우아함은, 재점(再點)에서도 볼 수 있다. 후대의 서사 상궁 서희순과 같은 철저한 격식에 둘러싸인 꾸밈이 아닌 자유분방함 그 자체이다.

6. 나오면서

-추사가 한글 편지의 가치와 활용 -

추사가(家)의 김노경이나 추사가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사대부들이 바깥으로 드리낼 수 없었던 자연인으로서의 정감이 진솔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지아비와 대학자로서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한 인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응축된 생애가 깃들어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추사가의 한글 편지는 한문의 행초서 필의를 바탕으로 면면히 내려온 가계(家系)의 한글 필적과 혼용된, 뿌리를 지닌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으며, 한 획도 같지 않은 다양한 필획은 한글 서예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좋은 교본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추사 김정희의 어머니 기계유씨와 할머니 해평윤씨가 쓴 한글 편지 글씨는 추사 가문의 위상에 걸맞게 18세기 후반의 글씨체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글 편지에서 보이는 예술적 필획의 미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은 확실치 않으나 추사 한문 편지에서 한글필획을 엿볼 수 있어 사대부가의 가문에서 전승된 글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점획은 그 근원이 모두 궁중 편지 글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궁중의 미감과 사대부 가문의 글씨가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추사 가문이 궁중과 인연이 깊고 기계유씨 가문 또한 조선의 특별한 명필 가문이란 점에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찾아낸 추사의 동생 산천 김명희의 『자손세훈』의 필첩에서 기계유씨 글씨의 연원이 궁중에서 들여온 사료를 가지고 공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추사 가문 여성의 한글 서체는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강하고, 거친 듯하면서도 물 흐르듯 유려한 연결 획에서 필속의 완급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등 서예적 가치가 듬뿍 풍기는 서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체의 특징은 한글 서예계의 작품 서체의 단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합한 서체라고 보아 임모 및 창작 서체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대 명필가이면서 詩·書·畫·文·史·哲에도 두루 능통하여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의 한류스타였던 추사 김정희는 부인과의 사랑을 한글 편지로, 애서문(哀逝文)으로, 도망시(悼亡詩)로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추사가(秋史家)에는 명필 못지않은 절절한 아내 사랑의 메시지가 편지를 통해서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참고문헌〉

1. 김일근, 1982, 「추사가의 한글 편지들」(上) 문학사상 115호, 396~409.
2. [네이버 지식백과] 김노경 [金魯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명가의 고문서 5, 2006, 『경주김씨 학주후손가 선비가의 여경(餘慶)』,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 박병천, 2014,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
5. 『완당선생선집』 권10, 「시」.
6. 이종덕, 「추사 한글 편지의 판독과 해석」, 추사박물관.
7. 『조선왕조실록』
8. 박정숙, 『조선의 한글 편지』, 도서출판다운샘, 2017.
8. 김일근, 황문환, 이종덕, 박병천, 『추사한글 편지전 세미나논문집』, 논문 참고. 2004.
9.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추사한글 편지』, 도록. 2004.
10. 한국고전번역원 db.
11. 황문환 외 2013, 『조선시대 한글 편지 판독자료집』 2, 역락.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 연구소.
12. 황문환, 2002, 『16,17세기 연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회.

대동법 시행을 주도한 포저 조익

지 두 환(국민대학교 교수)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은 율곡 이이의 대동법을 이어 받아 실행한 대표적인 분이다. 그러나 잠곡 김육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포저 조익은 잘 모르고 있다. 그 후손이 경제학의 대가인 조순 총리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포저 조익은 선조 12년(1579)에 태어나 효종 6년(1655)에 졸한 대학자이며 대 경세가이다.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호는 포저(浦渚)·존재(存齋)이다. 현령 조간(趙侃, 1535~1603)의 손자이고, 첨지증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영중(趙瑩中, 1558~1646)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윤근수의 형 윤춘수의 딸이다. 장현광(張顯光)·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중 음보로 정포만호(井浦萬戶)가 되어 선조 31년(1598) 군량미 23만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난 뒤 다시 수학하여 선조 35년(160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임명되어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사의 관직을 두루 지내던 중, 광해군 3년(1611)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정여창(鄭汝昌) 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고산도찰방으로 좌천되고, 이어 응천현감을 역임하였다. 광해군대에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유폐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광주(廣州)로 은거하였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옮겨 살았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이조좌랑에 임용되어 신창 도고산(道高山) 아래 모옥(茅屋)을 떠나 다시 조정에 들어가, 응교·직제학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인조 9년(1631)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잠시 벼슬을 떠났으나, 3년상을 마친 뒤 곧 관직에 복귀하였다. 1611년(광해군 3)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정여창(鄭汝昌) 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고산도찰방으로 좌천되고, 이어 응천현감을 역임하였다. 한성부우윤·개성부유수·대사간·이조참판·대사성·예조판서·대사헌·공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이원익(李元翼)을 도와 대동법(大同法)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인조 14년(1636)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하자 종묘를 강화도로 옮기고 뒤이어 인조를 호종하려다가, 아들 진양(進陽)으로 하여금 강화로 모시게 하였던 80세의 아버지가 도중에 실종되어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느라고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호란이 끝난 뒤 그 죄가 거론되어 관직을 사탈당하고 유배되었지만, 그 까닭이 효성을 다하고자 한 데 있었고, 또 아버지를 무사히 강화로 도피시킨 뒤에는 윤계(尹槩)·심지원(沈之源) 등과 함께 경기지역의 패잔병들을 모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며 입성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참작되어 그해 12월에 석방되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조정에 들라는 하명을 받았으나,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뒤이어 이조판서·대사헌의 직이 내려졌지만, 모두 사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복을 벗게 되자 인조 26년(1648) 좌참찬이 되어 다시 조정에 나아갔다.

이후 효종 6년(1655) 3월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로 죽기까지 우의정·좌의정과 중추부 판사·영사의 자리를 거듭 역임하였다. 그러면서 윤방(尹昉)의 시장(謚狀) 사건에 관련되어 몇 개월 동안 사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무난하게 벼슬생활을 하면서 김육((金堉, 1580~1658)과 함께 대동법을 확장, 시행하는 데 기여하였고, 각종 폐막(弊瘼)을 개혁하는 데에도 전념하였다.

고향 광주에서 77세로 죽으니 효종은 시호를 내리고, 6월에 대흥(大興) 동화산(東華山)아래에 장례하기까지 관원을 보내어 치조(致弔)하였다. 뒷날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皐書院),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 신창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위의 논술 외에 문집으로 『포저집』 35권 18책이 전하고, 『역상개략 易象概略』은 이름만이 전한다.

조익은 성리학의 대가로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병법·복술에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우정을 지켜온 그와 장유(張維, 1587~1638)·최명길(崔鳴吉, 1586~1647)·이시백(李時白, 1581~1660)을 가리켜 '사우정(四友情)'이라 불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최명길은 일찍이 이항복(李恒福, 1556~1618) 문하에서 李時白·장유 등과 함께 수학한 바 있다.

정전제(井田制)는 조선 전기에 주자성리학 이념에 입각하여 삼대의 이상사회를 실현시키려는 경제정책이 세종대에 만들어진 공법(貢法)이었다. 맹자의 정전제는 조법·철법·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법이었다. 공법은 풍년일 때는 농민에게 유리하지만 흥년일 때는 세금 부담이 많아서 소출량에 따라 거두는 조법·철법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세종은 정전제(井田制) 중의 공법을 실시하면서, 소출량에 따라 토지 등급을 나누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다 풍흉을 고려하는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을 결합하여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법을 바탕으로 하 은 주 삼대(三代)의 이상사회를 구현하여 간 것이, 세종대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공물 문제는 그대로 남겨 두어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는 공

납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대동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삼대의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전제를 시행해야 했다. 따라서 조선후기 현실에 맞는 정전제의 시행 방법인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인조 1년(1623)에 조의의 선혜청소에서 그대로 제시되었다. 조의(趙翼)은 이 상소에서 10의 1세(稅)인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세는 물론 요역 공납(貢納)까지 포함하여 미포(米布)로 세금을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4~6두를 거두는 전세와 공납을 미로 거두는 16두의 대동법을 합쳐서 20두 정도를 거두면 10분의 1세인 정전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그 세금이 균등해지고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흉년이나 재해에 진휼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이상사회 즉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인조 1년 9월 3일 이조 정랑 조의(趙翼)이 소장을 올려 대동청의 설립에 대한 편의 절목(便宜節目)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조의는 재생선혜청(裁省宣惠廳) 낭청(郎廳)을 겸하였다. 공이 오래도록 민간에 있으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익히 보아 왔기 때문에 재처(裁處)하고 구획(區畫)하는 것 모두가 시의(時宜)에 합당하였는데, 이서(吏胥)들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동요시켰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극론(極論)하고는 정자(程子)의 말에 의하면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의 아름다운 뜻을 지닌 뒤에야 《주관(周官)》의 법도를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조 3년 2월 27일 부호군(副護軍) 조의(趙翼)이 또 상소하여 대동법(大同法)을 협파하지 말도록 청하였다.

16세기에는 군역을 대신 치러주고 봉족에게 대립가(代立價)를 받는 대립제(代立制)가 성행했다. 대립가는 2필을 넘어 10필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중종 36년(1541)에 정부에서 양인에게 군포를 거두어, 군역을 대신 치루는 군인에게 주는 납포제(納布制)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용병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에는 5위(五衛) 체제가 붕괴되고 5군영(五軍營) 체제로 전환되어갔다. 이렇게 붕괴되는 5위 체제를 5군영체제로 군대를 재편성하는 것이 바로 10만 양병설로 표방되었다.

이러한 5군영체제의 10만 양병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1593)에 신설된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때에는 궁궐을 5개를 짓는 등 재정을 탕진하여 10만 양병이 진행되지 못하고 여진에게 투항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수도방위와 국왕 호위를 위하여 어영청(御營廳)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도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수어청(守禦廳:만오천)과 총융청(摠戎廳: 2만 명)을 만들어 경기 지역 일원에 대한 방어를 분담하였다. 남한산성 쪽

은 수어청이, 경기 서남북 지역의 방어는 총융청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효종 대에는 북벌론을 외치면서 이러한 체제를 강화하여 갔다. 마지막으로 숙종 8년(1682)에 금위영(禁衛營)을 만들어 10만 양병이라는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우암 송시열은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정전제에 입각한 10분의 1세를 거두어 저축하였다가 재난에 대비한 구휼정책을 하여 이상사회를 이루어 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제로 공안 개정을 하여 공물을 줄여 10분의 1세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효종이 스스로 절약을 함으로써 실현되고 있었다. 공안을 개정하여 쓸데없는 공물을 줄이고 김육이 선혜청을 설치하여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한 것을 찬성하고 있다.

우암은 우선 현종 즉위년 9월 3일에 선왕의 지문을 지어 올리면서 효종 말에 호남 산군의 대동법을 가을에 시행할 것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호남 산군 대동법 시행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이를 후인 9월 5일날 논의하여 영의정 정태화가 적극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10월 4일 다시 의논하여 감사 김시진(金始振)의 장계에 따라 다음 해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종 1년 1월에 다시 효종의 유지를 들어 공안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明나라의 법을 준용하여 供上에 관계되는 일체의 물건을 안에서 사서 쓰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종 1년 5월 9일 이유태가 2만여언에 달하는 여러 가지 개혁책을 건의하면서, 우암 송시열의 주장을 더욱 자세하게 진달하고 있다. 즉 대동법을 시행하여 어용을 항정하여 놓고 어용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시장에서 사다 쓰면 저절로 공안 개정이 될 것이라 하고 어용(御用)을 경(卿)의 10배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종 4년 3월 12일에 드디어 1결 13두를 거두는 호남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인들의 반대는 심하였다. 현종 10년 1월 10일에 송시열이 도라지 산삼 등 공물을 줄이고 각사의 공물들을 차례로 줄이니 좌의정 허적이 도성 백성인 공물주인들이 원망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도라지와 산삼을 감하는 데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각사의 공물을 모두 혁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무 지나친 것만 혁파하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도 많으니, 그 무리들이 또한 힘입어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물 주인들의 이익은 국가의 해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원망을 무슨 돌아볼 것이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을 모두 혁파하지 않는다면 끝내 나라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라고 하여, 공물 주인의 이익은 국가의 해라고 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송시열의 공물 감축 등 개혁에 대해 형조판서 서필원 등이 반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암 송시열이 추구하는 대동법은 율곡 이이가 제시한 것처럼 공안 개정을 전제로 하는 대동법이었다. 이는 정전제의 10분의 1세를 이상으로 하는 조선성리학자들이 전세 공물 요역 모두를 합쳐서 토지에서 10분의 1세를 거두어 복지정책인 구휼을 실현하려는 기본 정책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은 불교의 화엄 철학과 유교의 성리 철학을 들 수 있고, 현대에는 서양의 헤겔 철학을 들 수 있다. 불교의 화엄철학이 당나라 제국의 문화를 만들었고, 성리 철학은 원나라 명나라 문화를 만들었고, 헤겔 철학은 유럽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 화엄철학을 받아들여 석굴암 불국사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조선은 성리철학을 바탕으로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였던 나라였다. 따라서 조선전기 주자성리학은 세종 성종대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로 나타났고, 조선후기 조선성리학은 영조 정조대 문예부흥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유 문화를 창조해냈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유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덕궁과 종묘이고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

김 갑 등(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현재의 예산군 대흥면에는 임존성이 있다. 이 지역은 본래 백제의 영역으로 견고한 성이 축조되어 있던 곳이었다. 성의 규모는 주위가 5천1백9십4척(尺)이었고 그 안에는 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임존성의 성격은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기간에도 이어져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즉 백제의 장군이었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무왕의 종자(從子)였던 복신(福信)을 비롯한 지수신(遲受信) 등과 같이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항거를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전투에서 결국은 흑치상지가 패배하여 당에 항복을 하였다. 그 후 끝까지 항전하던 임존성은 백제의 항장(降將) 흑치상지의 공격으로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 임존성은 신라말 고려 초의 시기, 즉 후삼국기에 와서 다시 후백제와 태봉·고려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몽고와의 항전에도 참여하였으며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사당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말려초의 전란기에 예산 지역과 임존성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그 이후 예산 지역의 동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산현과 대흥군의 성립

신라가 하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자 전국에서 농민반란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결국은 몇 개의 세력으로 뭉쳐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쪽에서는 궁예가 세력을 잡기 시작했고 남쪽에서는 견훤이 세력을 잡아 후백제를 칭하였다. 이들은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였

고 예산과 임존성 지역도 이러한 조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 A-① 당(唐) 소종(昭宗) 경복(景福) 원년, 신라 진성왕 재위 6년에 아첨하는 소인들이 왕의 곁에 있어 정권을 농간함에 기강은 문란하여 해이해지고 게다가 기근(饑饉)이 들어 백성들이 유리(流移)하고 도적들이 별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은근히 반심(叛心)을 품고 무리들을 모아 서남쪽 주현(州縣)들을 공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그 무리가 달포사이에 5천여 인에 달하였다.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공공연히 왕을 일컫지 않고 자서(自署)하여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지휘병마(指揮兵馬)·제치지절도독(制置持節都督)·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행전주자사(行全州刺史)·겸어사중승(兼御史中丞)·상주국(上柱國)·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식읍이천호(食邑二千戶)’라 칭하였다.(《三國史記》卷50 甄萱傳)
- ② 광화(光化) 3년 경신(庚申)에 또 태조(太祖)에게 명하여 광주(廣州)·충주(忠州)·당성(唐城)·청주(青州, 혹은 청천(青川)이라고도 함)·괴양(槐壤) 등을 정벌케 하였는데 다 이를 평정하였다.(《三國史記》卷50 弓裔傳)

A-①은 892년의 일로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현재의 전남 광주)에 도읍을 정하고 관직을 자서(自署)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직 중에 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가 보인다. 이는 당시 존속했던 지(知) + ○주(州) + 제군사(諸軍事) 류의 관직으로 ○주(州)의 군사권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여기서 전주·무주·공주는 현재의 전주·광주·공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시 신라 9주(州) 중 3주(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광역의 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견훤은 전주·무주·공주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당연한 결과로 응주의 관할을 받고 있던 예산 내지 임존성도 견훤의 후백제 영역이 되었다는 뜻이 된다. 과연 그랬을까.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가 이 관직을 ‘자서(自署)’했기 때문이다. 신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자칭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칭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지역과 미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기는 했다고 본다. 임존성 지역도 공주의 통제를 미약하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독립성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가 중앙통제력을 잃으면서 전국의 각 지역은 성(城)을 중심으로 자위(自衛)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B. (이총언(李惲言)은) 신라말에 벽진군(碧珍郡)을 보호하고 있었다. 때에 도적이 충척(充斥)하자 총언은 성을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그에 의뢰하여 편안하였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함께 힘을 다하여 난을 평정할 것을 효유(曉誘)하였다. 총언이 글을 받아보고 심히 기뻐하여 그 아들 영(永)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태조를 따라 정벌케 하였다. 영이 그 때 나이 18세였는데 태조가 대광(大匡) 사도귀(思道貴)의 딸과 결혼시키고 총언을 본읍장군(本邑將軍)에 배수(拜授)하였다.(《高麗史》卷92 李惲言傳)

신라말기에 전국 각 지역의 지방세력은 지역민들을 거느리고 자체 방어에 힘쓰고 있었다. 벽진군도 원래는 강주(康州) 소속의 군(郡)인 성산군(星山郡)의 영현(領縣) 신안현(新安縣)에서 개명된 것 이지만 강주나 성산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존성의 경우도 응주의 통제를 강고하게 받고 있지 않아 후백제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A-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0년 경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황해도 지역을 차지한 궁예가 남진정책을 쓰면서 점차 궁예의 세력권 안에 포함된 것 같다. 궁예는 자신에게 귀순한 왕건을 시켜 경기도 광주 지역을 비롯하여 남양만 일대, 청주, 충주 괴산 등지를 공략하였는데 이때 궁예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출신인 박술희(朴述熙)가 18세에 궁예의 위사(衛士)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궁예 밑에서 기병장군(騎兵將軍)으로 있다 918년 왕건을 옹립하여 개국 1등 공신이 된 복지겸(卜智謙)도 당진 출신이었다. 당진군 면천면은 경기도 남양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지역으로 당성(唐城)이 궁예의 수중에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술희나 복지겸이 궁예 밑으로 간 것이라 생각한다.

그 후 궁예는 그 말년에 이르러 더 남진하여 공주지역까지 수중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이흔암(伊昕巖)이 응주(熊州)에 진주하였다. 이에는 다음 기록이 참고 된다.

C-① 이흔암(伊昕巖)은 궁마(弓馬)를 업으로 하여 다른 재주는 없었으나 이익을 보면 빨리 구하며 궁예를 섬겨 아부하여 임용되었다. 궁예말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응주를 습격하여 취하고 여기에 진수(鎮守)하였다. 그러다가 태조가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화심(禍心)을 품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옴으로 사졸(士卒)이 많이 도망하고 응주는 다시 백제(百濟)의 소유가 되었다.(《高麗史》卷127 伊昕巖傳)

② (태조 원년 8월) 계해(癸亥)일에 응주·운주 등 10여 주현(州縣)이 배반하여 백제에 불었으므로 전시중(前侍中) 김행도(金行濤)를 명하여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東南道招討使

知牙州諸軍事)를 삼았다.(《高麗史》卷1 太祖世家)

C-①은 궁예 말년에 이흔암이란 자가 공주를 습격하여 취하고 여기에 진주하고 있었음을 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궁예 말년에는 임존성도 궁예의 영역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자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서울인 철원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공주는 다시 후백제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C-②는 언간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공주가 후백제에 넘어가자 운주 등 10여 주현도 후백제에 가담하였다. 이 10여 주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임존성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임존성이 백제의 부흥을 표방한 후백제에 붙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려는 전에 시중(侍中)을 지낸바 있던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東南道招討使知牙州諸軍事)를 삼아 이에 대비케 하였다. 시중은 당시 최고의 관부였던 광평성의 장관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그러한 지위에 있던 자를 아주(牙州, 현재의 충남 아산)에 파견한 것은 응주·운주 등을 상실한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응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후백제에 붙은 여파는 의외로 컸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중앙에서 청주인으로 수도 철원에 가 있던 순군리(循軍吏) 박춘길(林春吉)이 반란을 일으키다 살해당하였다. 또 이에 자극을 받은 청주 현지에서 파진찬(波珍粲) 진선(陳瑄)·선장(宣長)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이 반란도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옛 백제 지역이 될 수 있으면 백제의 부흥을 표방한 후백제에 붙으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자 왕건은 태조 2년(919) 청주에 직접 행차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성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케 하였다. 또 예산에 사람을 보내 최남단 방어전선을 구축하였다. 오산성(烏山城)을 고쳐 예산현(禮山縣)이라 하고 대상(大相)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보내어 유민(流民) 5백여 호를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 이를 보면 태조 원년(918) 응주·운주 등 10여 주현이 후백제 쪽으로 넘어갈 때 임존성은 행동을 같이 했지만 오산성은 빠졌던 것 같다.

오산성은 본래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이었으나 신라 경덕왕(景德王)때에 고산현(孤山縣)으로 개명된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지명으로 한다면 고산현이라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백제시대의 명칭인 오산으로 표기된 것은 그 지역민들이 개정된 명칭보다 백제시대의 옛 지명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오산현이 아니고 오산성이라 한 것은 당시 현이나 군이 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산성은 경덕왕 때에 임성군(任城郡)의 영현이 되었다. 임성군은 백제의 임존성을 말하는 것인데 평시 같으면 임존성이 오산성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말려초의 후삼국기에는 각 군현이 거의 타 군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였으므로 오산성과 임존성은 향배를 달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왕건은 예산현을 재건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서 고려와 견훤과의 직접 충돌은 없었다. 다만 견훤이 신라의 서부 지역, 즉 현 경상도의 서부 지역을 공략하는 정도였다. 태조 3년(920)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大耶城; 현재의 경북 합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진례성(進禮城)까지 진출했으나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려 군사의 도움으로 군사를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견훤은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견훤이 이렇듯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 왕건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5년(922) 하지현장군(下枝縣將軍) 원봉(元奉),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 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洪術) 등이 귀순해왔으며 그 이듬해에도 명지성장군(命旨城將軍) 성달(城達)과 벽진군장군(碧珍郡將軍) 양문(良文) 등이 귀부해왔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견훤은 조물성(曹物城, 金烏山城으로 추정)을 공격하였으나 왕건군의 도움으로 실패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왕건의 고려군이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때에 임존성에서도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다음 기록을 보자.

- D-①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백제를 공격하였다.(《高麗史》卷1 太祖世家 8年 10月)
- ② 정서대장군 유금필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鎮)을 공격해서 장군 길환(吉奐)을 죽이고 또 임존군(任存郡)을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高麗史節要》卷1 太祖 8年 10月)
- ③ 왕이 견훤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윤빈(尹邠)을 해안에서 쫓았을 때는 노획한 갑옷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추조(鄒祖)를 변성(邊城)에서 잡을 때는 엎드려진 시체가 들판을 덮었으며 연산군(燕山郡)에서는 길환(吉奐)을 전군(軍前)에서 목베고 마이성(馬利城)가에서는 수오(隨晤)를 깃발 아래에서 죽였으며 임존성(任存城)을 빼았던 날에는 형적(邢積) 등 수백 명이 목숨을 버리었고 청주(青州)를 부수었을 때는 직심(直心) 등 4,5명이 머리를 바치었소……”(《高麗史》卷1 太祖世家 11年 正月)
- ④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임존성을 공격하여 형적 등 3천여 명을 죽이고 잡았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20 忠淸道 大興縣 古跡 任存城)

위의 전투가 있었던 당시 임존성의 공식적인 명칭은 임성군(任城郡)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백제 시대의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의 오산성(烏山城)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개명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민들은 백제시대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 아마도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이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존심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한편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정서대장군 유금필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鎮, 현재의 충북 문의)을 친 후 이어 임존성을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상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D-②). 그러나 D-③에서 보듯이 사망자는 수백 명이었고 나머지는 항복했거나 포로가 된 자들이었을 것이다. 사상자만 3천 명이었으니 이 전투에 참가한 병력의 숫자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임존성 전투에 5천여 명이나 참가했다는 것은 결코 그 전투가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임존성을 지키던 후백제 측의 지휘관은 형적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패함으로써 임존성은 이제 고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백제부흥 운동의 거점이었던 이 지역이 후백제에 가담하여 백제를 다시 세우려 하였으나 왕건의 군사력 앞에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게 되었다. 신라 멸망 후에는 신라와 당군에게 끝까지 항거하였으며 후삼국기에는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통일신라시대 임성군으로 불리던 이 지역은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되었던 것 같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그 개명시기가 ‘고려초(高麗初)’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려초’의 시기는 고려 태조대(太祖代)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존성을 정별하기는 했으나 이 지역을 회유할 필요가 있어 대흥군이라 개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흥(大興)’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크게 흥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초’에 개명된 군현의 명칭에는 자연적인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山)’ · ‘천(川)’ · ‘곡(谷)’ 등의 명칭을 붙인 곳도 있지만 좋은 의미로 지역민들이 평안하라는 의미에서 ‘평(平)’ · ‘안(安)’ · ‘령(寧)’ 등의 글자를 붙이기도 하였고 그 고을이 번성하고 풍성하라는 의미로 ‘흥(興)’ · ‘창(昌)’ · ‘부(富)’ · ‘풍(豐)’ 자를 붙여준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이로써 임존성은 이제 고려 영역의 일부 분으로써 후일 후백제 정복의 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임존성은 통일신라에 이르러 임성군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백제시대의 명칭인 임존성으로 명명되었다. 그것은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신라 말 신라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후백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궁예 말년 이흔암의 공격을 받아 궁예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918년 궁예 밀

에 있던 왕건이 정변으로 왕위에 오르자 혼란을 틈타 응주·운주 등과 같이 후백제로 귀순하였다. 옛 백제 지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자 왕건은 이웃지역인 오산성에 예산현을 설치하여 임존성을 견제하였다. 그 후 925년 왕건은 결국 유금필을 보내 임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리하여 다시 고려의 영역에 편입된 임존성은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되어 후백제 정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III. 고려의 남진정책과 예산진

왕건의 고려군과 견훤의 후백제군은 태조 8년(925) 조물군(曹物郡)에서 만나 싸웠으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그러자 양 진영은 서로 인질을 맺고 화의를 맺었다. 견훤 측에서는 그의 외생(外甥) 진호(眞虎)를 고려에 인질로 보냈고 왕건 측에서는 그의 사촌동생 왕신(王信)을 후백제에 인질로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926년 4월 견훤이 볼모로 보낸 진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에 견훤은 그를 고려 측에서 죽였다고 여겨 왕신을 죽이고 군사를 몰아 응진으로 진군하였다. 이에 왕건은 여러 성에 명을 내려 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도록 하였다. 이때 견훤은 응진을 거점으로 하여 북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왕건 측에서 큰 대응이 없자 물러난 것 같다. 전투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왕건은 공주와 홍성이 후백제 쪽에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견훤에게 대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왕건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운주를 공격하였다. 태조 10년(927) 3월 운주를 공격하여 그곳의 성주(城主) 궁준(競俊)을 성 아래에서 패배시켰다. 이때 궁준은 고려군에 항복한 것 같다. 태조 19년 후백제 신검과 일리천(一利川, 현재의 경북 선산)에서 마지막 대전을 벌일 때 궁준이 지휘관의 하나로 참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종래 임존성을 지키고 있던 군대도 많은 활약을 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운주를 획득한 왕건의 다음 목표는 공주였다. 태조 10년 4월 운주를 획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왕건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응주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실패하였다. 공산성(공산성)의 험준한 지세와 견고한 성벽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공산성은 석성(石城)으로 주위가 4천 8백 50척이었고 높이가 10척이나 되는 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왕건은 착실히 전투준비를 한 후에 후백제를 공략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준비작업은 성

(城)을 쌓는 축성(築城)사업으로 나타났다. 먼저 탕정군(湯井郡, 현재의 충남 온양)에 행차하여 성을 쌓았다. 그것은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고려사》에는 단순히 왕건이 “탕정군에 행차하였다(幸湯井郡)”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유금필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였음에 틀림없다. 태조 11년 7월 왕건이 삼년산성(三年山城, 현재의 충북 보은)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청주에 행차하였는데 후백제군이 청주를 침략하자 탕정군에 성을 쌓고 있던 유금필이 꿈에 계시를 받고 달려가 구해주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운주의 옥산(玉山)에도 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옥산이 현재의 어디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양산성(麗陽山城)이나 월산성(月山城)이 아닌가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옛날에 있었던 산성으로 이 둘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태조 왕건은 남진정책의 전초기지로서 천안부(天安府)를 설치하였다. 태조 13년 8월 대목군(大木郡)에 행차하여 동·서두솔(東·西兜率)을 합쳐 천안부를 삼고 도독(都督)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대승(大丞) 제궁(弟弓)이 도독부사(都督府使)가 되고 원보(元甫) 엄식(嚴式)이 부사(副使)가 되었던 것이다. 후일 후백제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천안에 도독부를 두어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편 천안뿐 아니라 예산에도 일부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라 판단된다. 그것은 고려 태조 17년의 기사에 예산진(禮山鎮)이란 표현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E. (태조 17년 5월) 예산진(禮山鎮)에 행차하여 조(詔)하기를 “지난날에 신라의 정사가 쇠하여지니 뭇 도둑이 다투어 일어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황야에 해골을 드러내게 되었다. 전주(前主)가 분쟁하는 무리들을 굴복시켜서 방국(邦國)의 터전을 열더니 말년에 이르러 해독을 하민(下民)에 끼치고 사직을 전복시켰다. 짐이 그 위태로운 뒤를 이어받아 이 새 나라를 이루하였나니 상처받은 백성을 노역(勞役)하게 함이 어찌 짐의 본뜻이리오. 다만 나라를 창건한 때인지라 할 수 없는 일이로다. 풍우(風雨)를 무릅쓰며 주진(州鎮)을 순찰하고 성책(城柵)을 수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의 난을 면하게 하고자 함이로다. 이러므로 남자는 다 싸움에 종사하고 부녀(婦女)도 오히려 공역(工役)에 나아가게 되니 노고(勞苦)를 참지 못하여 혹은 산림에 도망쳐 숨고 혹은 관부에 호소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도다. 왕의 친족이나 권세가들이 어찌 방자하고 횡포하여 약한 자를 억눌러서 나의 백성을 괴롭게 함이 없다 할 수 있으랴.

내 한 몸으로 어찌 능히 집집마다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소민(小民)들은 이러므로 호소 할 방도가 없었으니 저 창천(蒼天)에 울부짖는 것이다. 마땅히 너희들 공경장상(公卿將相)으로 국록(國祿)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 사랑하기를 아들같이 여기고 있는 뜻을 잘 알아서 너희 녹읍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에 가신(家臣)의 무지(無知)한 무리를 녹읍에 보

내면 오직 취렴(聚斂) 만을 힘쓰고 마음대로 빼앗아간다면 너희들이 또 어찌 능히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비록 혹은 이를 안다 하더라도 금제(禁制)하지 않고 백성 중에 논소(論訴)하는 자가 있는데도 관리가 사정(私情)에 끌려 숨기고 두호함으로써 원망과 비방하는 소리가 일어남이 주로 이에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타이른 것은 이런 줄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 힘쓰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잘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령(令)을 어긴 자는 따로이 연좌(連坐)로 죄를 물을 것이로되 오히려 타인의 혀물을 숨기는 것을 현명한 짓으로 생각하여 일찍이 들어 아뢰지 않으면 선악의 사실을 어찌 들어 알 수 있으리오. 이와 같으니 어찌 절개를 지키고 혀물을 고친 자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훈계하는 말을 잘 준수하고 나의 상별을 청종(聽從)하도록 하라. 죄 있는 자는 별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며 공이 많고 죄가 적으면 상별을 헤아려 행할 것이다. 만약에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녹봉(祿俸)을 추탈(追奪)하고 혹은 1, 2, 3, 5, 6년으로부터 종신토록 반열(班列)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약에 뜻이 봉공(奉公)에 간절하고 시종토록 혀물이 없으면 살아서는 영록(榮祿)을 누리고 사후에는 명가(名家)라 일컫게 될 것이며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대하여 상을 가할 것이다. 이는 다만 오늘 뿐 아니라 만세(萬世)에 전하게 할 것이며 규범을 삼게 할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진소(陳訴)하는 자가 있는데 소환하여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재차 소환하여 먼저 장(杖) 열대를 쳐서 령(令)을 어긴 죄를 다스리고 나서 바야흐로 범(犯)한 바 죄를 논하도록 하라. 만약에 관리가 일부러 천연(遷延)하거든 일자(日字)를 계산하여 벌책(罰責)할 것이며 또 위세를 믿고 권력을 믿어 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아뢰도록 하였다. (《高麗史》卷2 太祖世家 17年 5月)

여기서 보듯이 예산이 언제부터인가 예산진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鎮)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군대가 와서 머무르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진의 명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 5년이다. 이 때 무열왕은 하슬라(何瑟羅, 현재의 강원도 강릉)의 땅이 말갈(靺鞨)과 인접한 곳이라 하여 경(京)을 파(罷)하고 하슬라주(何瑟羅州)라 개명하고 도독(都督)을 머무르게 하는 동시에 실직(悉直, 현재의 강원도 삼척)에 북진(北鎮)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독은 강릉에 있었지만 그 군사력의 일부는 삼척에 주둔했음에 틀림없다. 선덕왕 3년(782) 서해안 지대의 방어를 위해 설치된 패강진(湧江鎮)에 대감(大監)과 제감(弟監)과 같은 무관이 설치된 것이나 흥덕왕 3년(828) 왕으로부터 군사 1만을 받아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淸海鎮)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군대가 주둔한 진(鎮)이 되었을까. 이미 태조 2년 예산현이 성립할 때 군대가 주둔하여 진으로 불렸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본격적인 군대의 주둔이 시

작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가 탕정군 및 운주의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천안부가 설치되는 무렵이 아닌가 한다. 즉 천안부에 도독이 설치되고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일부가 예산에 주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조 13년(930) 천안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남진정책이 실시되고 그 전초기지로 예산진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때는 고창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대승을 거둔 후로 머지않아 이 지역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예산진에 주둔한 군대는 천안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 같다. 당시 왕건의 군대는 운주와 천안 2군데에 집중 배치되었으나 예산은 천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산현이 천안부의 속현(屬縣)이 된 것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반면 임존성에는 운주 관할의 군대가 주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곳은 고려 현종 9년 흥주(洪州, 현재의 충남 흥성)의 속군(屬郡)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시대에는 임성군(任城郡, 임존성)과 그 영현(領縣)으로 존재했던 고산현(孤山縣, 현재의 충남 예산)이 고려시대에는 그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임존성은 운주의 속군으로,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예산진에 왕건이 직접 행차하여 내린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군대에 나가거나 부역에 동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공경장상(公卿將相)들이 자신들 녹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수탈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행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태조 17년의 시점에서 그것도 왕경(王京)이 아닌 예산에 와서 이런 조서를 반포했을까. 그것은 그가 이 지역에 직접 행차하여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태조 2년 청주가 순역(順逆)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와언(訛言)이 자주 일어나자 태조 왕건이 친히 이 지역에 순행(巡幸)하여 민심을 위무(慰撫)하였던 예가 있는 것이다. 예산 일대는 아직도 후백제와의 접경지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편 이 지역에 녹읍을 갖고 있는 이나 지방세력들에게는 지나친 수탈로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경고를 하였다. 예산 일대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곡창지대로 농민들의 불만은 흉작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량미의 부족을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그래야만 앞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서가 발표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운주 일대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F. (태조 17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運州)를 정벌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

(甲士) 5천 명을 뽑아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다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론하니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사오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臣) 등이 적군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미처 진을 치기 전에 강한 기병(騎兵) 수천 명으로써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 베고 술사(術士) 종훈과 의사(醫師) 훈겸, 용장(勇將) 상달·최필을 사로잡으니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高麗史節要》卷1)

이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대승하여 후백제군을 3천여 명이나 목 베었으니 얼마나 큰 전투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왕건군의 주요 구성원은 중앙군도 있었을 테지만 천안이나 예산진, 임존성, 운주의 주둔군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예산진에서 내린 조서도 이 전투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 전투가 왕건군의 선제공격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이제 왕건은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이듬해인 935년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귀순해왔고 뒤이어 신라의 경순왕도 나라를 들어 고려에 바쳤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 견훤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후백제의 신검이었다. 그 마지막 전투는 경북 선산의 일리천(一利川)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왕건 측에서 9만여 명 가까운 군대가 참여하였다. 이에는 본래부터 왕건 휘하의 군대도 있었겠지만 지방 호족들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도 많이 참여하였다. 강원도 명주에서 귀순해왔던 왕순식(王順式)이나 경상북도 풍기(豐基)에서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를 지냈던 강공훤(康公萱) 등이 지휘관으로 참전하였는데 그들 휘하의 군대는 그들이 평소에 거느리던 군대라 추측되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태조 10년 왕건에게 항복한 운주성주(運州城主) 궁준(競俊)도 참여하였다. 그 휘하에는 운주 지역의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예산진이나 임존성의 군대도 참여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요컨대 고려 태조 왕건은 임존성을 공취한 뒤에 태조 10년(927) 3월 운주까지도 손에 넣게 되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왕건은 그해 4월 곧바로 옹주까지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태조 11년 탕정성과 운주 옥산에 성을 쌓으면서 착실한 남진 준비를 하였다. 운주 옥산에는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병력의 일부가 임존성에도 주둔하게 되었다. 태조 13년(930) 고창군 전투에서 대승을 한 왕건은 천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후백제 정벌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때 예산에도 천안도독부의 통제를 받는 일부 병력이 주둔하여 예산진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후일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이 되고 대흥군은 홍주의 속군이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태조 17년에 이르러 예산진에 행차하여 민심을 추스른 왕건은 그해 9월 운주 부근에서 다시 후백제 견훤과 큰 전투를 벌여 대승하였다. 이에 대세는 왕건에게 기울어 후백제 견훤과 신라의 경순왕이 귀순해왔고 태조 19년(936) 신검과의 일이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런데 태조 17년의 운주전투나 신검과의 일이천 전투에 예산진이나 임존성의 군사들이 동원되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IV. 고려 후기 이후의 예산

임존성은 고려후기 몽고가 침략하면서 다시 한 번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즉 고려 고종 23년 몽고군의 일부가 충남 지역에 침입하여 온양과 대흥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는 다음 자료가 참고된다.

- G-① (고종 23년 9월) 정사(丁巳)일에 몽고군이 온수군(溫水郡)을 포위하니 군리(郡吏) 현려(玄呂) 등이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들을 크게 패퇴(敗退)시켰다. 적의 머리 2급(級)을 베고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가 2백여 인이었고 노획한 병장기(兵仗器)가 심히 많았다. 왕은 그 군의 성황신(城隍神)이 몰래 도와준 공이 있다 하여 신호(神號)를 더 봉해주고 현려를 군의 호장(戶長)으로 삼았다.《高麗史》卷23 高宗世家 고종 23년 9월)
- ② (고종 23년 12월) 계묘(癸卯)일에 대흥(大興)의 관리가 보고하기를 “몽고병이 성을 공격하기를 수일 동안 하니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를 크게 무찌르고 병장기를 많이 노획하였습니다” 하였다.《高麗史》卷23 高宗世家 고종 23년 12월)
- ③ (고종 23년 12월) 몽고병이 와서 대흥의 성을 공격하기를 수일 동안 하니 문을 열고 나가 싸워 이들을 크게 패퇴시키고 병장기를 많이 노획하였다.《高麗史節要》卷16)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온수군(溫水郡, 현재의 충남 온양)과 대흥현에서 몽고군과 싸워 이긴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전투는 틀림없이 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G-② ③을 통해 알 수 있고 G-①에서는 단순히 ‘개문(開門)’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도 ‘성문(城門)’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성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같이 산성(山城)에 입보

(入保)하여 싸웠다고 할 때 온수군의 경우는 배방산성(排方山城), 대흥현의 경우는 임존성(任存城)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시기 임존성은 또 한 번 국난극복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 태종대에 지방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 지역은 대흥현으로 강등되었다. 조선 숙종 7년에는 현종의 태실(胎室)을 모셨던 관계로 대흥군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대흥군은 면이 되어 예산군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예산군은 조선시대에는 내내 현으로 존재해 오다 1895년에 예산군으로 승격되어 있었다. 이로써 대흥은 입장이 바뀌어 예산의 통제를 받는 위치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대흥현의 임존성은 몽고의 침입 때 항전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그 후 숙종 7년 대흥군으로 승격하여 예산군과 동일한 지위를 누렸던 이곳은 1914년 예산군 휘하의 대흥면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V. 맷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후삼국 시대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신라시대 임성군(任城郡)으로 개명되었던 현 대흥면 지역은 후삼국기에도 여전히 백제 시대의 명칭인 임존성(任存城)으로 불렸다. 그것은 백제시대의 옛 전통을 고수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약하나마 후백제 세력의 영향을 받았던 임존성 지역은 궁예 말년 이흔암(伊昕巖)이란 장군이 웅주(熊州)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궁예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혼란을 틈타 웅주·운주(運州) 같이 후백제로 넘어 들어왔다. 백제 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이 지역이 후백제에 가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자 왕건은 919년 아직 후백제에 들어가지 않은 오산성(烏山城)에 예산현(禮山縣)을 설치하고 유민(流民)들을 안집(安集)케 함으로써 장래 남진 정책의 한 기지로 활용하려 하였다. 결국 태조 8년(925) 왕건은 군대를 휘몰아 임존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 전투는 후백제 측에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난 대규모 전투였다. 그리고 임존성을 대흥군(大興郡)으로 개명하였다.

둘째 임존성을 빼앗은 왕건은 곧 이어 태조 10년(927) 운주까지 공격하여 점령하고 웅주(공주)를 쳤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예산현과 대흥군(임존성)은 둘 다 고려와 후백제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 왕건은 태조 11년(928) 탕정성(湯井城)과 운주 옥산(玉山)에 성을 쌓고 운주에 군

사를 주둔시켰다. 이 때 운주의 일부 군대가 임존성에도 머무르게 되었다. 태조 13년(930)에는 왕건이 고창군(古昌郡) 전투에서 견훤군을 대파하고 천안(天安)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여 남진 정책의 총괄기지로 삼았다. 이 때 천안 지역의 군대 일부가 예산에 머무르게 되면서 예산진(禮山鎮)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후일 대흥군은 운주의 속군이 되고 예산현은 천안부의 속현이 된 배경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주군(主郡)인 임성군(任城郡)과 영현(領縣)인 고산현(孤山縣)으로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두 고을은 이제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태조 17년(934)의 운주 전투나 태조 19년(936)의 일리천(一利川) 전투에서 일정한 활약을 하였다.

셋째 임존성은 고려 후기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다시 한 번 국난 극복의 중심지가 되었다. 몽고 군과의 전투에서 온 군민이 합심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또 조선 태종대에 대흥현으로 강등되었던 이 지역은 숙종 7년(1681) 현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었던 관계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예산군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대흥면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임성군으로서 고산현을 관할하던 통일신라시대의 입장이 이제는 면으로서 예산군의 통제를 받는 위치로 바뀌었던 것이다. 결국 임존성은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후삼국기나 고려후기 몽고의 침입 때도 대규모 전투의 전장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설화와 소설화 양상 연구

- 내포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채길순(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우리 문학에서 동학농민혁명¹⁾을 소재로 쓴 문학 작품이 많았고²⁾,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문학 연구도 있었다.³⁾ 동학농민혁명사를 소설화 과정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되는 것이 설화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문학적 흥미를 내장하고 있거나와 사실을 뛰어넘는 진실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송기숙의 대하소설 『녹두장군』과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이 '선운사 미륵바위의 배꼽 비결 설화'를 중심에 두고 민중들의 열망이 담긴 '화소' 활용이 대표적인 예다.

1)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서는 2002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의 용어를 사용하며, 같은 맥락에서 당시 동학농민혁명 투쟁에 참가한 다양한 계층을 총괄하는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시는 그 편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소설에 국한하여 보면(채길순, 「동학혁명의 소설화 과정 연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동학소설은 69편, 현대소설은 20편으로 파악하고 있다.

3) 대략 초기에는 동학소설 연구로 출발하여 동학농민혁명사를 소재로 쓴 문학작품 연구로 확장되어간 양상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최원식, 「동학소설 연구」, 《어문학》 40, 한국어문학회, 1980.

강인수, 「동학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채길순, 「동학혁명의 소설화 과정 연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주형, 「동학농민운동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그 소설화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2001.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동학」, 《우리말글》 제31호, 우리말글학회, 2004.

임금복,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연구」, 《동학학보》 제6호, 동학학회, 2003.

김승종, 「동학혁명의 문학사적 의의」, 《동학학보》 제14집, 2007.

박병오, 「갑오농민전쟁」과 '녹두장군'의 비교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설화란 당시 사회 집단의 산물이며,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양식이라면 설화는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또 설화가 소설의 전 단계 양식이라 할 때,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설화에 대한 고찰은 동학농민혁명사의 사회적 배경이나 당시 민중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소재 설화나 소설에 나타나는 설화 양상 고찰은 당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화 변이 양상과 소설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역사적 진실과 당시 민중들의 사회적 인식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화와 역사, 설화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살펴,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민중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내포 지역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월하노인 설화’ ‘홍의소년 설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내포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

이 논의는 ‘선운사 미륵바위의 배꼽 비결 설화’ ‘월하노인 설화’ ‘홍의소년 설화’와 같은 서사 설화가 중심이지만 참고 동요를 포함한 모든 삽화 설화⁴⁾를 논의 범주에 포함 한다. 왜냐하면 짧은 노래라 할지라도 일정하게 구조화 된 서사를 배경으로 배태되었기 때문이다.

2. 설화와 역사, 문학과의 관계

설화란 특정 문화 집단이나 민족,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⁵⁾ 따라서 설화는 한 문화 집단의 생활, 감정, 풍습,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설화의 특징은 전승 방식이 구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구전이란, 서사의 내용이 구연자로부터 청자에게로 직접 소통되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구전되는 이야기는 일정한 문화 집단 내부의 관습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골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의 일부분을 구연자가 재

4) 삽화(插話)는 원래 어떤 이야기나 사건에 끼어든 토막 이야기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토막 이야기라는 의미로 써어졌을 뿐, 문학 전문 용어는 아니다.

5) 따라서 소설 텍스트라는 말은 가능해도 설화 텍스트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설화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화를 문자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그것이 바로 문헌 설화이며, 이는 곧 넓은 의미에서 문학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설화는 일반적으로 문헌 설화를 칭한다.

량껏 변형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구연자는 시간과 장소 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 말솜씨를 발휘해서 이야기의 세부(細部)나 형태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설화가 지니는 유동성 때문에 텍스트로서 설화의 원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화도 구전이라는 점에서 소설과 다르고, 픽션이 가미되고 구조화 된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소설과 유사하다. 또, ‘파랑새 요(謠)’ 혹은 ‘김개남 요(謠)’처럼 서사가 인식된 채 밖으로는 짧은 노래 형태로 전승되기도 한다.

2. 1 설화와 역사적 진실

설화와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의 본질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하는 질문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⁶⁾라고 하여 실증주의 사학계에 충격을 던져준 적이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와 주고 받은 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들이란 사가가 현재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과거에 대한 사실들 가운데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가려서 일정한 질서로 서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담론체계로 간주한다.’⁷⁾ 여기서 에드워드 카는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가의 현재적 인식 밖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역사라는 대화의 가능성은 보증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 이론은 역사적 사실이 아예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자료(text)로서 역사 서술이 형성하는 담론적 질서에 의해 구성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사실들(a facts about the past)’ 곧 실제 사실이 아니라 한갓 사료이거나 또는 사료에서 추론된 사실일 뿐이다. 왜냐하면 역사가 과거의 사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오직 사료에 나타난 과거에 대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 대한 사실 자체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들은 과거 사

6) E.H 카아 저, 길현모 역, 『역사란 무엇인가』(探究堂, 1984), 43쪽.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7) E.H 카아,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까치, 1997),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푸른역사, 2000), 21-22쪽 참고.

8)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푸른역사, 2000), 22쪽.

실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꿈과 의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역사로 보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과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의식사가 곧 역사라는 것이다. 역사가의 역사의식보다 역사를 산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더 주목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역사를 산 사람들의 의식사를 포착하더라도 그것은 역사가에 의한 것일 뿐,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역사 주체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증주의적 사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⁹⁾ 이 말을 설화의 전승자로 바꾸어도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설화를 구전해 온 민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역사, 나아가 자신들의 지역 역사 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지금 설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설화를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자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지역 주민들 또는 이 설화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수용하게 될 이 시대 민중들의 울림을 고려하여, 사가들의 미세한 문헌 고증과 실증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설화 사료로서 역사읽기가 가능하되, 사가나 해석자의 눈이 아니라 이 설화를 전승하고 들려주며 기록한 역사 주체자들의 시각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는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문헌을 통해서 규명되는 역사적 사실의 한계를 넘어 구전되는 역사와 구전되는 설화는 당시 민중들의 집단의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가령, ‘파랑새 요(謠)’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불려오던 노래이나, 민중들은 전봉준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실어서 불렀다는 것이다. 노래 안에 담긴 서사 배경에는 동학농민혁명 실패와 전봉준의 처형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비통한 심경이나 의지와 열망이 담겼다는 것이다.

2. 2 설화와 문학적 진실

앞의 논의와 같이 역사와 설화가 민중들의 현재적 재해석의 산물이라면,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한 문학 역시 현재적인 해석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설화는 구비 전승되는 서사 문학의 한 갈래다. 설화의 발생이 자연적 집단적인데, 이는 설화가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집단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한다. 그리고 사회의 민족적, 민중적 생활 감정과 습속을 담고 있다. 이는 설화의 발생과 연관된 특성으로서, 설화가 집단의 사회생활의 총체성을 담는 서사문학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설화는 개인의 상상이

9) 곽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역사, 2000), 46쪽. 재인용

나 독창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집단적, 민족적 상상력에 의지함으로써 가장 원형적인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즉, 독창적인 형식보다는 전형적인 형식 창출에 기여하고, 그 형식을 통해 사회 집단의 원초적인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설화는 수수께끼나 속담과 같이 서사 문학의 한 부문을 형성하지만 특히 소설 문학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 문학의 한 갈래이며, 민중의 현재적 삶을 반영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2. 3 동학농민혁명과 설화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설화는 구전되다가 동학농민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문헌에 기록 되었다. 황현의 『梧下記聞(오하기문)』, 『梅泉野錄(매천야록)¹⁰⁾』, 오지영의 『東學史(동학사)¹¹⁾』와 장봉선 『全琫準實記(전봉준실기)¹²⁾』는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채록된 기록물들인데, 서사 설화가 서사 또는 동요나 참요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비교적 동학농민혁명 전후시기에 쓴 황현의 기록을 보자.

- ① 이보다 수십 년 전에 호남에 동요(童謡)가 있었는데 말하기를,
상도(上道)의 참새,
하도(下道)의 참새,
전주 고부에 녹두 참새,
등근 박 전대,
전대는 후예

10) 황현(黃玹, 1855-1910)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구례에 은거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부분도 있으나 각 지역의 풍문(風聞)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성(史實性)에는 한계가 있다.

11) 『동학사』의 저자 오지영(1868-1950)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891년에 입교, 동학농민혁명 전투에 참가했으나 당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는 기술이라 왜곡된 부분이 많아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의 동학농민혁명사는 이 자료에 의존한 바가 크다. 9월 기포 때 자신이 남북접 대립과 갈등의 중재에 나섰다는 기록이 대표적인 왜곡이다. 뒤에 증보되어 간행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의 과정 기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26년 판을 기준으로 총 242쪽 중 195쪽을 최시형의 조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상 『동학사』는 최시형의 포교에서 순도까지의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1936년 장봉선이 정읍군지(井邑郡誌)를 편찬하면서 당시 ‘동학란’에 관한 목격자의 체험담과 4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촌로들의 고증을 통해 들어 엮은 기록이다. 비록 8쪽에 걸친 짧은 글이지만 전봉준의 행장이 집약되었다.(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1994)

(上道雀下道雀 全州古阜綠豆雀 圓瓠彙彙后弊)

라고 했다. 이 동요는 마을 어린이들이 참새를 쫓으면서 다투어 노래했으나, 그것이 무슨 응험(應驗)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48쪽.

② 봉준은 상모(狀貌)가 단소(短小)하고 성품이 경박하고 익살스러워서 사람들이 녹두(綠豆)라고 불렀다. 봉준은 그의 어렸을 때 이름이다. 난이 일어나자 민간에서는 모두 ‘동학 대장 전녹두(東學大將全綠豆)’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주와 고부의 피해가 더욱 혹독했으므로 동요가 비로소 맞았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49쪽.

①②의 ‘녹두요(綠豆謠)’ 혹은 ‘파랑새요’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무심코 불려오다가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어느 시기부터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의 전기적 생애’에 대한 서사가 결합되어 지역마다 다소 다른 가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개남 요(金開南謠)¹³⁾도 같은 맥락이다.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수천 군사 어디 두고
짚둥우리가 웬일이냐!

- 문순태, 『동학기행』(어문각, 1986), 52쪽.

③은 김개남이 잡혀갈 때 짚둥우리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른 노래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감영으로 끌려간 김개남은 재판도 없이 전주 초록바위에서 처형되었으며, 민중들이 그의 죽음을 조상(弔喪)하는 노래로 빚었다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④……호서(湖西)는 본래 사대부가 모여 사는 곳이요, 훈척(勳戚)과 향재(鄉宰)들의 원림(園林)이 서로 바라보여서 봉당(朋黨)을 이루고 있다. 또 무단(武斷)이 풍속을 이루어서, 억지로 장사(庄舍)를 사고 남의 산지(山地)를 억지로 빼앗아서, 의지 할 곳 없는 외로운 집이나 서민(庶民)의 집에서는 원통한 호소가 뼈에 사무치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학이 일어나자, 어깨를 치켜 올리고 한 번 소리치면 여기에 호응하는 자가 백만이나

13)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수천 군사 어디 두고/ 짚둥우리가 웬일이냐! 문순태, 『동학기행』, 어문각, 1986. 52쪽.

되었다. 이리하여 김씨·송씨·윤 씨의 세 대족(大族) 및 그 밖의 재상의 이름난 집이나 부자로 살던 집이 줄지에 피폐함을 당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22쪽

⑤ 신상응조(申相應朝)는 당시 진잠(鎮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손자 일영(一永)이 불법(不法)의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적이 일영의 아들을 결박해 놓고 그 음낭(陰囊, 불알)을 까면서 말하기를, “이 도둑놈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했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23쪽

④는 당시 전라도에 떠도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충청도 소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충청도 보수 양반 세력의 횡포와 동학농민군의 위세와 동향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⑤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충청도 양반에 대한 충청도 민중의 보복 사례인데, 당시 하층민들의 대리만족의 분위기에 실려 널리 퍼져나간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⑥ 또, 전하는 말에, 청주에서 옛 우물을 푸다가 돌에 새긴 것을 얻었는데, 거기 있는 시(詩)에 말하기를, “만리장성 큰 문에, 천교(天教)의 응진(雄鎮)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네. 팔왕(八王)이 난을 일으키니 누가 능히 평정하랴, 갑옷 입고 오히려 말에 오르는 사람 있네.(萬里長城大可門 天教雄鎮護東蕃 八王作亂誰能定 披甲猶餘上馬人)”라고 했다.

이것을 푸는 자가 말하기를, “팔왕(八王)이란 전(全)이요, 피갑상마(披甲上馬)한 자는 신(申)이니, 전(全)이 비록 떠들어도 마땅히 신(申)을 기다려 평정된다.” 했고, 또 참서를 좋아하는 자는 억지로 풀기를, “대가(大可)는 기(奇)자요, 팔왕(八王)은 전(全)자요, 넷째 귀는 신(申)자이다.” 해서 모두 맞았다고 했으나, 아직도 어느 때 (누가) 만든 참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시끄러운 거짓말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50쪽

⑥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으로, 결국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설화의 다른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⑦ 초 3일에 적이 북문으로 나오는데, 선봉(先鋒) 이복룡이 큰 기를 세우고, 유안대로부터 황학대(黃鶴臺)를 지나서 바로 완산(完山)으로 나와 죽 들어서서 전진한다. 그러나 적들은 다만 좌우만 보고 앞뒤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자가 자빠져도 뒤에 가는 자는 알지 못한다. 다만 용맹만 믿고 허우적거리며 오르는데 그 날랩이 몹시 날카롭다. 이에 계훈이 칼을 빼어 손에 쥐고 크

게 소리치면서 싸움을 독려하고, 경군이 계속하여 대포를 쏘니, 복룡(伏龍)이 탄환에 맞아 쓰러졌으나 아직 죽지는 않았다. 경군이 달려가서 이를 베니, 적은 기운이 빠져서 도로 달아났다. 이 싸움에 적은 도망한 자가 3백여 명이요, 2백여 명의 머리가 잘렸다.

초 2일에 적이 서문을 열고 몰려나와 바로 용두(龍頭)의 진(陳)을 범하려 한다. 이에 관군이 또 포를 쏘아 계속해서 공격하자, 적은 저항하지 못하고 도로 달아난다. 포환에 상한 자와 짓밟혀서 죽은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 황현 저·이민수 역, 『동학란』(을유문화사, 1985), 145쪽

⑦은 ‘홍의소년’ 설화의 한 형태인데, 어떤 구전 설화보다 사실적인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학농민군은 동학농민혁명 초기인 4월 7일 정읍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물리친 뒤 동학농민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읍 고부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으로 이동했다. 이 때, 동학농민군의 선두에는 ‘붉은 옷을 입은 신동을 태운 가마’가 앞장섰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동학 지도부의 의도된 계략으로 보인다. 즉, 신탁(神託)을 받은 붉은 옷을 입은 ‘신동(神童)’이 진을 지휘함으로써, 동학농민군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이다.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삽화 설화로 황룡대첩을 일궈낸 장태 설화¹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전주 성전투에서는 홍의소년 장수 이복룡의 죽음과 동시에 동학농민군은 처참한 패배를 맛본 셈이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전투 패배는 황토현 싸움, 황룡강전투 이후, 전주성 무혈입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패배이자, 동학농민군이 지니고 있던 신념 체계의 붕괴를 뜻한다. 이로 보아 초기 싸움은 신비한 요소로 승리할 수 있었고 신비감이 사라진 전투에서는 패했다.

이 밖에 고승당산 싸움에 등장하는 고시랑 골짜기 설화, 세성산 전투 뒤에 시체가 쌓여서 불여진 시성산(屍城山) 설화, 전봉준을 배신한 김경천을 질책하는 경천설화(일찌기 경천을 조심하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결국 옛부하 김경천 때문에 잡혔다.) 등이 있다.

14) 장태란 대나무로 만든 닭등우리로, 처음에는 장흥 접주 이방언 만들었다고 전해졌으나 담양 이용길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안자는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전봉준은 군중에 영을 내려 “청을(青乙) 자를 써서 등에 붙일 것이며, 수건으로는 머리를 싸매고 입은 앞 옷깃을 물고 엎드려서 장태를 끌려나가는데 옆을 돌아보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하면 적군의 포환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

2. 4 동학농민혁명 설화와 문학작품과의 관계

앞에서 들었던 동학농민혁명 관련 설화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소설화 과정에서 중요한 소설 소재가 되었다. 소설화 된 대표적인 설화로는 선운사 미륵 배꼽 비결 설화, 전주성 전투에 등장하는 흥의소년설화¹⁵⁾가 있으며, 실제로 이 설화는 송기숙의 『녹두장군』,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채길순의 『동트는 산맥』등에서 중심 소재로 소설화 되었다.

전주성 전투에 등장하는 흥의소년 설화는 예산 관자리 전투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에 앞서 벌어진 예산 역말 전투에는 월하노인이 관군에게 술을 먹이고 밤중에 대포에 물을 부어 동학 농민군이 승리했다는 ‘월하노인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또, 동학소설 「동학군의 아내」에서는 태안 지역 열녀의 설화를 소재로 써어졌다.

위의 사실들은 설화와 역사와, 또 문학과의 관계, 즉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 밖에 충청도에 떠도는 삽화 설화 혹은 설화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충청도 신례원 전투에서 활약했다고 알려진 소년 장수 이야기
- ②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러 내려온 관군의 대포구멍에서 물이 나왔다는 소문
- ③ 충청도 회덕(진잠)의 노비들이 양반의 불알을 깐 이야기
- ④ 예산 군수가 황망히 도망가면서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간 이야기
- ⑤ 전봉준의 체포와 관련하여 옛부하 ‘경천(敬天)’을 조심하라는 점괘이야기
- ⑥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전봉준이 부하들로 하여금 총을 쏘게 하였으나 가슴에서 탄알 껍질을 툭툭 털면서 아무렇지도 아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학농민군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이야기
- ⑦ 장성 황룡촌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태 이야기

15) 다음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14세의 동장사(童壯士) 이복용(李福用)의 선봉장이 되어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며, 살아남았거나 전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효문, 『전봉준을 위하여』, 한국문학도서관, 1993.

이이화,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04.

역사문제연구소,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역사비평사, 1997.

이밖에 역사적 사실과 설화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전봉준이 대원군을 만났을 때 말없이 손바닥에 ‘江(강)’이라는 글씨를 써줬다는 이야기
- ◉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 동학농민군이 갈재를 넘어 원평에 도착하여, 다음날 전주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원평대회를 열고 여기서 왕의 사자들을 처형한 이야기
- ◉ 김개남을 사로잡았으나 이도재가 산 채로 서울로 올리기 두려워 감영에서 처형하고 머리만 상자에 담아 올려 보낸 이야기

이런 설화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회에 떠돌던 설화들인데, 동학농민혁명 소재 소설 『녹두장군』에 풍부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파랑새요(謠)’와 ‘가보세 가보세요(謠)’는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민중들 사이에 회자되다가 시의에 맞게 덧입혀져 변형된 설화도 있다.

3. 내포 지역의 설화 양상

예산의 신례원 전투는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승리에 빛나는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투였고, 민중들의 열망이 실감된 전투였다. 따라서 역할 전투와 신례원 전투 설화에 등장하는 월하노인과 흥의소년은 민중과 같은 신분이며, 당시 민중들 열망을 실현시켜 줄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이어 벌어진 홍주성 전투를 고비로 내포 동학농민혁명은 지리멸렬 흩어지고, 관 유도군의 참혹한 보복 학살극이 자행되었다.

아래 예문은 《개벽》¹⁶⁾ 1924년 4월호에 실린 동학농민혁명 당시 내포동학 활동의 기록이다. 당

16) 《개벽開闢》 : 3·1운동 이후 천도교(天道教)를 배경으로 발행된 월간 종합지. 국판 160면内外에 국한 문호용체였다.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잡지였으므로, 일제에 대한 항쟁을 기본노선으로 삼았고,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개조와 민족문화의 창달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창간호에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1920년 6월 25일에 발행된 창간호가 일제 총독의 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압수되었고, 이를 후인 27일에 발행된 호외(號外) 역시 일제 당국의 기획(忌諱)로 압수되어, 부득이 사흘 후인 30일에 다시 임시 호를 발행했다. 이렇게 《개벽》지가 이렇게 창간호에서부터 모진 시련을 겪었으나, 독자들의 호응으로 1920년 8월 17일에는 임시호의 재판을 발행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개벽》지는 발행기간 중 발매 금지(압수) 34회, 정간 1회, 벌금 1회의 수난을 당하고, 1926년 8월 1일에 발행된 7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되었다.

시 월간지 『개벽』은 차상찬¹⁷⁾ 기자가 전국 13개 도 별로 문화 산업을 탐방하여 소개하는 특집 기사 형식인데, 충청남도 편만 유일하게 동학농민혁명의 내용을 꼭넓게 다룬 것도 특징이다.

①……當時 忠南의 東學黨은 德胞 禮胞 清胞 忠慶胞 山川胞 洪胞 等이 잇엇스니 德胞는 朴寅浩(今天道教 春菴 先生)을 中心으로 한 德胞, 禮山, 新昌, 溫陽, 洪州, 結城, 沔川, 唐津, 瑞山, 泰安, 天安, 木川 等 忠南 一帶와 京畿의 涇川 楊州 一帶를 結合한 教團이오 禮胞는 朴德七, 清胞는 孫天民外 文天正□, 李永範,(起兵 洪州 葛山) 忠慶胞는 申澤雨, 李鎮龜, (起兵結城) 山川胞는 韓明淳, 李昌九(起兵 沔川) 洪胞는 韓某 李某(姓名未詳起兵洪州)를 中心으로 한 教團이니 基中勢力이 強大한 者는 德胞다. 甲午東亂學을 際하야 以上諸胞는 亂蜂과 如히 一時兵을 起하야 海美郡 余美坪에 集中하니 不過數日에 基衆이 數萬에 達하엿다.

(……당시 충남의 동학당은 덕포 예포 청포 충경포 산천포 홍포 등이 있었는데, 덕포는 박인호(현재 천도교 춘암 선생)를 중심으로 한 덕포, 예산, 신창, 온양, 홍주, 결성, 면천, 당진, 서산, 태안, 천안, 목천 등 충청남도 일대와 경기도의 연천 양주 일대를 결합한 교단이고, 예포는 박덕칠, 청포는 손천민 외 문천교, 이영범(뒷날 홍주 갈산에서 기병) 등이고, 충경포는 신택우, 이진구(뒷날 결성에서 기병)였으며, 산천포는 한명순, 이창구(뒷날 면천에서 기병)였고, 홍포는 한모 이모(성명 미상이나 홍주에서 기병)를 중심으로 한 교단이니 그 중에 세력이 강대한 곳은 덕포였다. 갑오동란을 맞이하여 이상의 모든 포점은 난이 일어남과 동시에 군사들이 일시에 일어나 해미군 여미평에 모이니 불과 수일 만에 그 무리가 수 만 명에 달하였다.

② 最初 官軍과 沔川에서 炮火를 交하야 勝戰谷에서 官軍을 一擊大破하고(勝戰谷에서 勝戰함은 亦是 奇緣) 乘勝長驅하야 破竹의 勢로 또 新禮院에서 官軍을 擊破하고 禮山을 占領하엿다. 이 新禮戰은 忠南에서 東學亂이 起한 後 官軍과 最初 大激戰이오 最大勝利다. 官軍의 死者가 數千에 至하고 洪州軍官 金秉璥, 李昌旭 朱弘燮, 韓基慶이 또한 此戰에서 死하엿다(基時自政府皆敘功) 그러나 東學側에는 一人의 死傷者가 無하고 또 特記할 者는 十二歲의 一紅의 少年(瑞山人인데 姓名未知)이 砲煙을 冒하고 先登하야 一劍으로 官軍 數十人을 斬殺하고 城中에 居하는 七十餘歲의 老嫗가 官軍의 砲臺에 水를 灌하야 發火치 못하게 한 것이다. 此로 因하야 其時一般의 人民은 東學은 神技의 造化가 有하야 銃穴에 水를 生케 하고 矢彈에 中하야도 死치 안는다하고 附隨하는 者가 또한 甚多하엿다.

(최초 관군과 면천에서 교전을 벌였고, 승전곡에서 관군을 일격에 크게 물리치고(승전곡에서 승전한 것 역시 기이한 인연) 이 후부터 승승장구하여 파죽의 기세로, 또 신례원에서 관군을 격파하

17) 차상찬(車相贊, 1887~1946년) 춘천 출신으로, 한국 잡지 언론의 선구자. 일제강점기 민족잡지인 '개벽'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인이자 민족운동가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참고로 원문은 '車特派員'으로 명명되어 있다.

고 예산을 점령하였다. 이 신례원 전투는 충남에서 동학란이 일어난 뒤 관군과의 최초로 있었던 대격전이었고, 최대 승리였다. 관군의 사상자가 수 천 명에 이르고 홍주군관 김병돈, 이창욱 주홍섭, 한기경이 이 전투에서 죽었다.(뒷날 정부에서 공을 내렸다) 그러나 동학 측에는 한 사람의 사상자가 없었으며, 또 특기할 일은 십이 세의 붉은 옷을 입은 소년(서산 사람인데 성명을 알지 못한다)이 포와 연기를 무릅쓰고 먼저 올라가 한 칼로 관군 수십 인을 참살하고, 성 안에 있는 칠십여 세의 할머니가 관군의 포대에 물을 부어서 대포가 발사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동학은 신기한 조화가 있어서 총 구멍에 물이 생기게 하고 화살이나 탄환이 뚫어도 죽지 않는다 하여 따르는 이들이 또한 많았다.(요즘 문장으로 옮긴 이, 밑줄=필자)

- 차상찬, 《개벽》, 1924년 4월호. 123쪽

①은 동학농민혁명 초기 내포 동학의 기포나 전투 상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②는 덕산 역말 전투(지금의 기력재가 있는 삽교읍 역리)와 신례원 전투 상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에 등장하는 역말 전투와 신례원 전투 상황을 이 지역 향토사학자 이도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⁸⁾

1894년 10월 15일 박인호를 중심으로 재차 기병한 농민군은 당진군 사기소리에 있는 승전곡(勝戰谷)전투에서 승리한 뒤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홍주목사 겸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로 임명된 이승우의 관군을 대적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등 뒤의 적을 놔두고 한양으로 갈 게 아니라 홍주목을 접수하여 관군을 응징하고 한양으로 진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10월 27일 홍주를 향하여 가다가 덕산 역말, 지금의 기력재가 있는 삽교읍 역리에서 관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호연초토사 이승우가 이끄는 관군은 역말 주위에 대포를 은폐시키고 우물에는 독약을 풀고 풀 속에는 마름쇠를 숨겨놓고 농민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름쇠는 도둑이나 적군을 막기 위하여 끝을 날카롭게 몇 갈래의 무쇠로 만든 것인데, 진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 속에 숨겨 놓았다. 오늘날의 지뢰만은 못하겠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하였던 무기였다. 이때는 마침 때가 저녁이었다.

동학농민군은 밤이면 주문을 외는 규율이 있어서 청수를 떠놓고 주문을 외고 있었는데, 관군으로서는 공격하기에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대포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서 대포를 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관군은 주문을 외우는 규율을 가진 동학농민군이 대포구멍에서 물

18) 이도행,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 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 학술대회, 1994.

이 나오게 하는 조화를 가졌다고 지레 겁을 집어먹고 겁을 먹고 도망치기에 이르렀다. 동학농민군 쪽에서는 주문의 신통력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사기가 백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포구멍의 물은 역말에 사는 술장사 노파가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무죄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밤중에 몰래 우물에서 물을 펴다가 은폐시켜놓은 대포를 찾아 대포구멍에다 물을 부어넣은 것이었다고 한다.

덕산 역말 전투와 신례원 전투 정황 모두 설화와 역사 기록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진 승전곡 전투에 이어 연달아 승리한 두 전투는 내포 동학농민군에게는 일찍이 없었던, 믿기지 않는 신통력 같은 전투였을 것이며, 이는 민중들의 열망이 잠재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설화 인물은 현장 답사 중에 실명이 밝혀졌는데, 노파는 읍내 주막집 월하노인, 흥의소년은 김병현이다.¹⁹⁾ 여기서 확실한 것은, 실명자가 있는 예산 밖에서는 사실보다 더 신비하게 풍부하게 부풀려 나가는데, 비해 예산 땅에서는 더 부풀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장성전투에 나타나는 장태 설화 주인공도 담양 이용길과 장흥 대첩 주 이방언 두 인물이 등장한다. 이를 내포에 대응하면, 신례원 전투에 나타나는 흥의소년 설화의 주인공은 예산의 김병현과 성명 미상의 서산 소년으로 알려졌다.

위 사실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 당시 동학교도나 관군은 동학 주문이 신탁의 주술적 요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둘째, 술장사 노파는 민중들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민심을 배경으로 한 설화이며, 이는 민중 설화의 배태 요건인 셈이다.

③ 又 瑞山, 泰安에서 起한 一派는 泰安郡守 申百熙, 瑞山郡守 朴錠基, 忠淸兵營의 領官 廉道希, 軍屬 金慶濟를 殺하고, 魯城 附近에서 起한 一派는 恩津縣監 權鍾億을 捕縛하니 列邑이 다 望風歸降 하였다.

(또한 서산 태안에서 일어난 동학군 일파는 태안 군수 신백희, 서산 군수 박정기,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 군속 김경제를 살해하였고, 노성 부근에서 일어난 일파는 은진현감 권종억을 포박하니 모든 읍이 다 동학군의 손에 들어가고 관리들은 황망히 달아나 귀가하였다.)(필자가 요즘 문장으로 옮김=필자)

- 차상찬, 『개벽』, 1924년 4월호. 124쪽

③의 정황은 동학농민군이 태안 군옥에 갇혀 있는 동학교도를 구출하기 위해 전개된 관아 습

19) 향토사학자 박성묵 증언, 박성묵, 예산동학혁명사, 화담, 2007. 220쪽.

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성난 동학농민군은 태안을 떠나 연이어 서산 군아를 공격하여 서산 군수 박정기를 처단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원 병마산 전투에서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를 포함한 69명의 청주 영병 장졸이 동학농민군에게 몰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관기록에는 ‘동학농민군과 병마산 전투에서 장졸이 사망했다’고 썼지만 야사(설화)에 의하면 ‘백성들이 장졸에게 술을 접대하여 잠들게 하였고, 동학농민군이 야습하여 전멸했다’고 했다. 이는 역말전투와 상황이 유사한 셈이다.

이어 노성 부근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은진현감 권종억을 포박하여 충청도 내포 경계를 넘어 온 충청도가 동학농민군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 당시 정황을 기술하고 있다.

④ 此에 又 特記할 人物은 清胞의 文天교■ 李承範이다. 兩人은 原來 洪州 葛山 金某家의 奴婢다. 行力이 人에 過하고 氣概가 有하야 恒常 불평□□□思하다가 亂이 起함에 또한□□□하야 先히 自己 上典인 金某를 捕縛하고 睾丸을 取拔하니 今日에 所謂 兩班의 ‘불알 깐다’는 말이 此에서 出하였단……(이에 또 특기할 만한 인물은 청포의 문천교 이승범이다. 두 사람은 원래 홍주 갈산 고을 양반 김 모의 노비다. 행동과 힘이 남달라 기개가 있어 항상(양반이 종을 부리는 세상을 불평으로 여겨오다가) 동학난이 일어나자 먼저 자기 상전인 김 모를 포박하고 고환을 빼내니 요즘 소위 양반의 ‘불알 깐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불명확한 기록 추정, 필자 요즘 문장으로 옮김, 밑줄=필자)

- 차상찬, 『개벽』, 1924년 4월호. 124쪽

④는 ‘양반의 불알을 깐’ 설화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설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증을 넘어 사실적이다. 청포 소속의 동학교도 문천교 이승범이라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두 사람은 홍주 갈산 고을 양반 김 모의 노비라는 사실과 ‘동학난’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자기의 상전인 김 모를 포박하여 고환을 빼내어 ‘양반의 불알 깐다’는 말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설화가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진잠 고을의 신상응(申相應)의 손자를 결박해 놓고 그 음낭을 까면서 “이 도둑놈의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바뀌었다.

이는 두 지역에서 일어난 각기 다른 사건일 수도 있고, 한 사건인데 전달 과정에서 인명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4. 내포 동학의 몇 가지 설화

동학소설²⁰⁾은 1910년 이종린의 「모란봉」에서 1992년 「선구자」까지 약 90편에 이른다.²¹⁾

동학농민혁명 답사 때 가끔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 충청도 서산·태안 지역이 그 중 하나다. 내포 동학농민군은 승전곡 예산 지역 전토에서 연승했지만 흥성전투에서 패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흥주성 전투에서 패한 내포 동학군은 관·왜군에게 서해안 쪽으로 쫓기면서 연이어 참살당하고, 관 일본군은 유도군(儒道軍)²²⁾에게 동학농민군 토벌 임무를 넘겨줘 지속적으로 끝까지 토벌에 나선다. 특히 서산 태안의 관 유도군은 동학농민군 포로를 작두로 참수(斬首) 했을 정도로 참혹했다.²³⁾

동학소설 「동학군의 아내」는 저자²⁴⁾가 작품의 머리에 ‘서산 순회강연(巡講) 때 들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소설에서 참혹한 장면은 ‘개구랑목 시체더미에서 남편의 주검을 찾아내는’ 장면이다. 먼저, 설화 ‘동학군의 아내’의 원형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사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흥주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동학농민군은 쫓기기 시작하고, 관군 일본군 유회군의 추격 토벌전이 전개된다. 동학농민군은 해미성과 서산 매현(梅峴)에서 연달아 패한다. 태안으로 돌아온 동학농민군은 관·일·유회군의 습격을 받아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포로가 되었고, 백화산 ‘교장바위’에서 교수형·총살형 타살로 바위가 피로 물들였다. 뿐만 아니라 태안 군 아를 중심으로 현 태안여고 앞 개울의 ‘개구랑목 시체더미’뿐만 아니라 샘골 마을, 남문리 냇가,

20) ‘동학소설’이란 용어는 최원식이 <동학소설 연구>에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동학교인 자신들에 의해 동학 경험을 제재로 창작되어 주로 교단 기관지에 발표된 일군의 소설”이라 함으로써 용어를 체계화 시켜 사용하였다.(최원식, <동학소설 연구>, 어문학 제40집, 1980, 332쪽) 이 연구에 이은 강인수도 이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강인수, <동학소설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본고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동학소설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넓혀서 정의한다. 곧 동학소설은 “동학(천도교) 및 동학 계통의 교단에서 포교 목적으로 써어졌거나 또는 동학의 사상이나 교리를 선양할 목적으로 교인 혹은 교단에 우호적인 작가에 의해서 써어진 소설”로 정의한다.

21) 채길순, 「동학혁명의 소설화 과정 연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254-259쪽

22)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정 지역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봉건 보수 세력인 유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군 집단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유회군(儒會軍), 의회군(義會軍)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했다.

23) 졸고, 동학 1백주년 기념 기획연재 <동학기행> -서산·태안 편, 충청일보, 1994년 5월 4일. 당시 사용했던 작두가 독립기념관에 보존.

24) 조산강(曹山江, 본명 曹定昊)은 황해도 곡산 출신으로, 천도교인이면서 <신인간>과 <천도교회월보>에 133여 편을 발표했다.

정주내 등 여러 곳에서 관 일본 유회군의 살육 방화, 심지어 부녀자 겁탈 등 가혹한 보복전이 자행되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수많은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도량에 방치되었으며, 현장답사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참혹한 비극의 ‘개구랑목 시체더미’에서 설화 ‘동학군의 아내’가 생성되었다.

설화 ‘동학군의 아내’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동학소설 「동학군의 아내」 줄거리를 볼 필요가 있다.

태안군 장작리에 사는 윤 부인은 이웃집 노인에게 남편인 정씨가 동학한 죄로 읍북(邑北) 사정전(射亭前) 개구랑목에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윤 부인은 복수와 자살을 두고 번민하다가, 청수를 모셔놓고 기도를 하다가 남편의 장례나 치러주고 죽기로 작정한다. 남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를 받는 중에 이웃 노인이 찾아와 ‘개가하여 팔자를 고치라’고 권한다. 윤 부인은 노인의 재가 권유를 승낙하고, 새 남자에게 남편의 시체를 찾아 장례를 먼저 치러 줄 것을 청한다. 다음날 밤 윤 부인은 이웃 노인과 새 남자와 함께 개구랑목에서 남편의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러주는데, 장지에서 하관하자 윤 부인은 무덤에 뛰어들어 자결한다.

동학군의 죽음에 이은 여인의 죽음은 못내 처절하다. 동학소설 「동학군의 아내」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 설화와 실화의 간극은 커 보이지 않는다. 즉 동학군의 비참한 죽음과 뒤따라 죽은 비장한 여인의 죽음은 동학농민혁명의 비극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아비의 죽음을 애통해하다가 갈라진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변신했다는 ‘나비 설화’²⁵⁾의 한 변형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열녀 상’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실패에 따른 비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내포지역에 많은 조각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새댁 최장수 이야기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문장로 수접주가 체포되자 장남 문구석이 아버지 대신 죄를 자원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정주내 벼드나무 아래에서 총살당했다. 그의 새댁 최장수가 시신을 나무 동이에 묶어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와 나뭇간에 임시로 묻었다가 뒷날 장사지냈다. 최장수는 역적의 아내라 하여 태안 관아에 끌려가 군수의 집 종이 되었다가 시동생 문병석이 관료들에게

25) 정인섭, 한국의 설화,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118-119쪽. 나비 설화는 충청도 지역 설화로, “한 처녀가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그만 약혼자가 죽고 만다. 처녀는 약혼자의 무덤에 가서 천생연분이라면서 무덤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어느 날 무덤이 열려서 처녀가 뛰어들자 몸종이 말렸지만 치맛자락만 잡게 되자 치맛자락이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필자 요약 정리)

뇌물을 주어 풀려나게 했다. 최장수는 혈육이 없는 청상과부로 한평생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살았다.

*우는 할머니 이야기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용근(金鎔根, 1869~1894, 접주)은 동학교도를 인솔하여 전투에 참여했다, 흥주성에서 패퇴한 뒤 신진도 외가에 피신했다가 11월 16일 관군에 체포되어 토성산에서 작두로 나이 25세에 참수를 당했다. 그의 부인은 40년 동안 슬픔이 이어져 단 하루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우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열녀문을 세우려 했으나 일제 앞잡이의 밀고로 성사되지 못했다.

6. 나오며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설화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혹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예언적 기능, 동학농민혁명의 패배에 따른 자조적이거나 깊은 절망을 담은 이야기로 전한다. 체념이든 소망이든 설화화의 동기나 조건은 단순하게 규명되지 않는다. ‘김개남요’ ‘전봉준요’의 경우 두 장수의 죽음을 애도할 뿐, 그저 타령으로 읊조릴 뿐이다.

에드워드 카(E. H. Carr)의 말을 빌면, 소설가는 역사가의 하인이 아니다. 또 “소설가란 정치 종교 이념 도덕 집단의 정체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이는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 말끝에 “소설가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야 현실에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다.”고 했다.

위의 논리에 따르면, 설화의 주체인 민중 또한 역사가의 하인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민중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현실 조건에 따라 설화로 변이시킨다. 민중에게 있어서 역사나 설화에 대해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민중은 익명성에 숨어서 사실을 과감하게 분석하고 흥미 있게 또는 신비하게 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설화는 동학농민혁명 실패에 대한 분노 혹은 체념이 반영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특히 ‘선운사 미륵바위의 배꼽 비결 설화’와 ‘홍의소년 설화’는 송기숙의 『녹두장군』,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민중들의 총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소설 소재로 활용되었

다. 소설의 소재가 된 설화는 오랜 동안 억눌린 삶을 살아왔던 민중들이 평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배계급, 혹은 관 일본군에 대적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나 승전 공식의 한 전형으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에서 설화 시대의 전투는 승리했고, 뒤에 실화 시대에는 패했다.

충청도에는 당시 지배 계급인 양반에 대한 저항을 내용으로 하는 ‘양반 불알끼기’ 설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양반 지배계급에 시달려온 그 시대 민중들의 계급해방에의 열망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특히 예산 역말 전투 설화에는 관군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진영에 잠입하여 대포에 물을 부어서 동학농민군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월하노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민중들의 계급 저항적 인식을 보여주는 설화의 예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설화는 아직 문학작품으로 폭 넓게 다양하게 형상화 되지 못했다. 역사의 진실을 담은 생명력 있는 문학작품을 기대해 본다.

〈표-1〉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현대 소설 목록(발표 시대 순 / 부분 포함)

번호	작가	작 품 명	제재지면(발표지)	발표시기 (출판시기)	비고
1	이돈화	『동학당(東學黨)』	〈신인간〉	1935	
2	최인욱	『전봉준』	여문각(평민사에서 재출판)	1967	
3	이용선	『동학』상·하	성문각	1970	
4	서기원	『혁명』	삼중당	1972	
5	유현종	『들불』	세종출판	1976	
6	박연희	『여명기』상·중·하	동아출판	1978	
7	안도섭	『녹두』①-③	한마음사	1988	
8	박태원	『갑오농민전쟁』1·2·3부 총6권	공동체	1988	★
9	문순태	『타오르는 강』①-⑦(부분)	창작과 비평사	1989	
10	강인수	『낙동강』	남도	1992	★
11	채길순	『소설 동학』①-⑤(미완)	하늘땅	1993	
12	박 일	『이야기 동학』	태양출판사	1994	
13	한승원	『동학제』①-⑦	고려원	1994	
14	강인수	『최보파리』①②	풀빛	1994	
15	이병천	『마지막 조선검 은명기』①②③	문화동네	1994	
16	박경리	『토지』전 5부 총16권(부분)	솔 조선일보사	1994	
17	서기원	『광화문』(부분)	창작과 비평사	1994	
18	송기숙	『녹두장군』①-⑫			
19	채길순	『흰옷 이야기』①-③(부분)	한국문원	1996	
20	채길순	『조캡틴정전』(부분)	화남	2010	

* 강인수와 박일의 소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동학소설과 현대소설 양쪽에 실었다.

* ★ 이 책의 원본은 평양 문예출판사에서 『갑오농민전쟁』으로, 제1부(1977), 제2부(1980), 제3부(1986) 출간되었다. ★표는 중편소설임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예산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 윤 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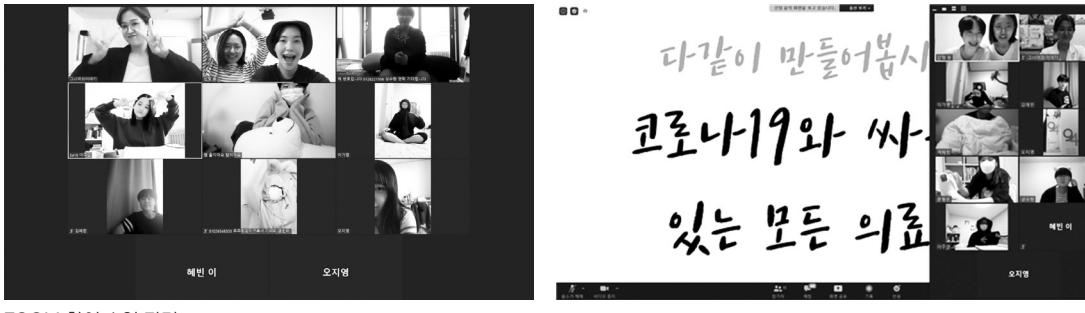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로서 8월 7일부터 청소년 대상인 10차시의 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후 운영하였지만 8월 27일 ‘코로나19’감염병 경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기관이 휴관에 돌입하자 진행 중이던 대면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는 오명을 남길 수도 없었다.

문화예술교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보다 현장성적 특성이 강한 교육이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현상으로 해당 분야가 위축되어 위기 상황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대 사회에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어느 때에 발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시류에 발맞추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현장성을 고려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즉 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지에 관해 물음을 던졌다. 생각의 끝에 창의력과 협동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답이 나왔고, 그렇다면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종료할 수 없음에 확신이 생겼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대면이 불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까? 다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방법으로써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만 했다. “Sin prisa pero Sin pausa.”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 명언이다.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나길 재촉하며 서두르기보다 프로그램 중단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면과 비대면, 단어 자체로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면 활동 진행 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 외에는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현장성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을 때, 같은 공간에 모일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로 가리지 않은 참여자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기관 사정을 고려한 비대면 활동 방식으로 첫째,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의 방식과 둘째, 영상 컨텐츠 제작 총 두 가지의 방식이 떠올랐다. 두 번째 선택지는 쌍방향적 소통이 불가하



ZOOM 참여 수업 장면

고 수동적인 참여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ZOOM 수업은 참여자들 간 서로의 상호활동보다는 참여자들 각각 스스로의 생각을 깨울 수 있도록 창의적인 주제를 던져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어린왕자 이야기를 차용하여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또는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 등의 상황을 제시하며 기존의 책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예술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전혀 다른, 어쩌면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내놓았고 프로그램 이름인 ‘내가 보고 듣는 세상, 그 너머의 이야기’에 걸맞은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전개였다. 참여자들이 수업 내용에 익숙해질 때 즈음 정적인 두뇌 활동뿐만 아니라 동적인 신체 활동을 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특정한 키워드를 제시해주면 참여자들이 각자의 캠 화면에 꽉 차도록 본인의 신체 모든 부분을 이용하여 그 키워드를 표현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코로나 시국 이전 대면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모두가 모여 있는 공간에서 주목받으며 표현해야 하는 상황의 압박감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있던 반면, 각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주변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 때의 참여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신체 표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면 프로그램이 현장성을 담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편견을 깨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위기 상황 극복과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전은 서로가 맞물려 돌아갔다.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짜인 틀을 벗어난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반대적 특성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고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도 ‘정답은 없다’가 모토인 문화예술교육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작은 불씨가 되어주었다.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 ‘내포보부상촌’

예산문화원 주임 장혜민

제가 소개 해드릴 곳은 금년도 내포에 새로 생긴 보부상촌입니다. 예산에 소개드릴 관광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이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보부상을 다룬 곳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제가 맡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보부상 단원들을 모시고 사업 진행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에서 열렸던 2018 청소년 민속 예술제라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어 보부상은 저에게 나름대로 인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청소년 민속예술제 당시 사진

보부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봇짐을 지고 다니는 봇짐장수와 등짐을 지고 다니는 등 짐장수 등이 모여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움직이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장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 하여 보부상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이 모인 조직을 상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덕산시장 운영에 큰 뜻을 했던 예덕상무사가 내포 보부상촌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덕산면 시동리에 위치한 내포보부상촌에서는 옛 보부상들이 즐겨먹던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니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포 보부상촌이 생기고 벤치마킹을 위하여 회사에서 한번 가 본 후 저희 가족들과 사촌동생들을 데리고 재방문을 하였습니다.

구분		대인 (만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만19세 미만)	소인/경로	임산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비고
개인	일반요금 (다자녀)	11,000 (8,000)	9,000 (7,000)	7,000 (6,000)	8,000	박물관/야외놀이 시설 무료
	예산군민	5,500	4,500	3,500	4,000	
단체	일반단체	8,000	7,000	5,000	7,000	20명 이상

- 대인 만19세 이상 / 청소년 만13세~만19세 미만 / 소인 만36개월 이상 12세 이하 / 경로 만65세 이상.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요금으로 결제입장(동반 1인 무료)
- 만36개월 미만은 무료 입장
- 임산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시시 할인 적용
- 다자녀 가족 할인은 증명서(다자녀(다동이)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 제출시 할인 적용
- 체험시설에 체험비 별도 요금

보부상촌의 요금을 보면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충남에 사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신분증 지참은 필수겠죠?^^

보부상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고 전통위주의 체험시설만 있을 것 같지만 시대에 걸맞게 숲속 슬라이드, 4D영상관 및 VR체험 등 신세대 적인 놀이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실내 및 실외 모두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이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21시 금, 토, 일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22시까지 연중무



내포 보부상촌 먹거리



후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대에 운영을 하니까 직장인들 또한 시간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보부상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리뷰를 봤었는데요, 주로 보부상촌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에 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음식에 대한 주된 리뷰는 음식이 쉬거나 가격에 비해 맛이 없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보부상촌이 개장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는 여름철이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날씨까지 더해지니 두부김치 같은 음식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가 한결 풀리고 나서 가서 그런지 음식이 쉬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맛은 전문 식당이 아닌지라 당연히 ‘정말 맛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격대는 어떠한 관광지를 가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다소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에 대한 불만은 딱히 갖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의 보부상촌이 더 매력 있게 느껴졌는데요, 야간에는 조명을 켜서 완전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될 뿐만 아니라 엘리디 장미도 예쁘게 설치해 놓아서 사진 찍기에 좋았습니다.



내포 보부상촌의 낮(원)과 밤 풍경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보부상촌의 후기를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보부상이라는 생소한 주제로 하여 재미와 교육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4D 영상관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부상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보부상 유통문화의 변천사를 가상현실 속 게임을 통해서 친근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한 점입니다. 몸으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시설물 중간중간 어른들도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 번쯤 찾아와서 즐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 내포 보부상촌을 소개했습니다.



예산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

예산문화원 차장 이충환

평균 연령 77세 충남 예산과 예산문화원을 대표하는 실버밴드 아코팝스 예능단을 소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예산문화원에서 아코디언 강좌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음악과 악기가 좋아서 함께 모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역에 사는 아코디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회 여러 직위에서 활동하시다 퇴임하신 분들로 아코디언의 매력에 끌 빠져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코디언은 소리가 좋고 원손과 오른손, 양손을 모두 활용하여 두뇌 발달과 정서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화려하고 다채로운 음색을 구사할 수 있어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가능하며 삶의 혜력소와 옛사람들의 정신까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아 건강 유지에도 좋은 악기입니다. 문화학교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자타공인 예산을 대표하는 실버밴드로 각 기관 행사 및 축제, 요양원과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희망의 연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아코팝스 예능단은 그동안 140여 회의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취미로 배우게 된 아코디언이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아코팝스 예능단은 연주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 출전하여 충청남도 예선전에는 1등하여 라이즈 스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단원들은 아코디언을 배워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하향길에 접어들었지만 너무나 멋지게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들 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음악으로 봉사하고 단원들의 화목하고 이런대서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100살 때까지도 함께 합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단순 동아리가 아니며 2019년 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예산문화원 아코팝스 예능단’으로 문화예술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코팝스 예능단의 유명세는 예산에서 충남, 충남에서 전국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 KBS ‘다정다감’에 출연하였고 올해는 대전 TJB ‘생방송투데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코디언 선율에 사랑을 싣고 ‘화목, 건강, 봉사, 보람’을 슬로건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아코팝스 예능단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 신년하례회



▶ 마을 동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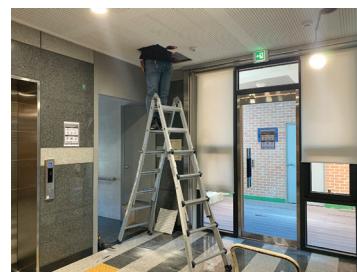
1. 고덕면 사2리
2. 호음2리
3. 대술면 마전1리
4. 마전2리
5. 방산리
6. 덕산면 상가리
7. 광천1리
8. 광시면 대리
9. 운산리
10. 가덕1리
11. 대흥면 갈신리
12. 탄방리
13. 덕산면 대치2리
14. 대흥면 교촌리
15. 동서리
16. 상중리
17. 삽교읍 신리
18. 오가면 분천4리
19. 봉산면 봉림리
20. 신양면 가지1리
21. 신암면 계촌리
22. 예림1리





23 봉산면 마교리 24. 신암면 신종2리 25. 조곡리 26. 신양면 녹문리 27. 차동리 28. 예산읍 예산4리 29 간양리

▶ 영선관리



▶ 문화답사



▶ 운영회의



1차 이사회(2.13)



임시 이사회(12.20)



임시총회(10.8 비대면 진행)



임시총회(10.8 비대면 진행)



월례회의(6월)



주간회의(1월)

▶ 대백제 부흥군 위령제



▶ 문화학교



건강요가



난타



라인댄스



민화



수채화



아코디언



어린이 발레



우리춤



월요서예



캘리그라피



코비늘



태평소



뮤전장구



필라테스



하모니카



한학



화요서예

▶ 추사인문학교



한국화



캘리그라피



대금반



추사민화



추사서예



추사체연서회

▶ 충남학 인문강좌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색소폰강의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예산학 인문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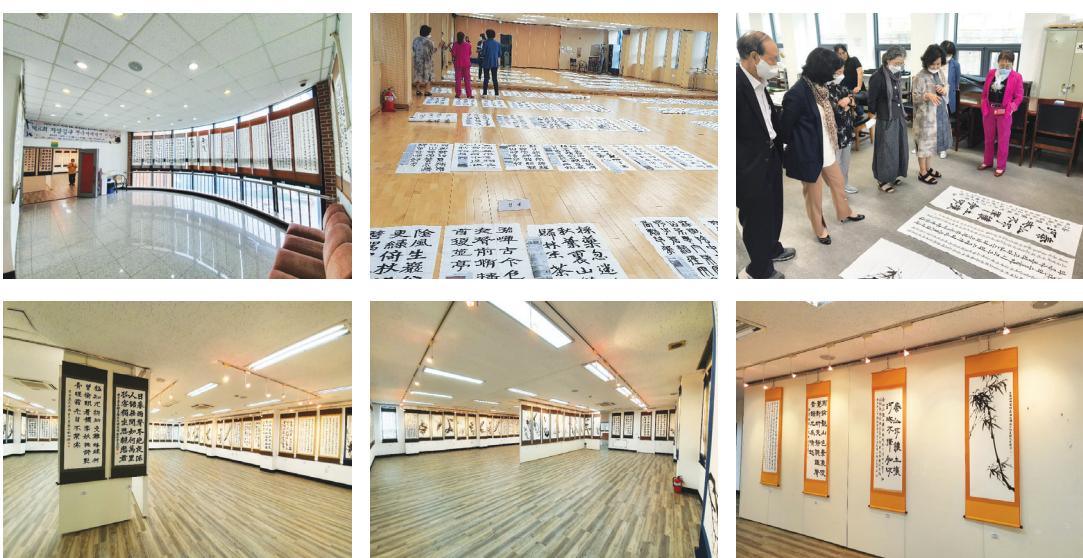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자암김구 서예대전



▶ 삼국축제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들과 함께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년교례회 및 전시회, 공연들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예산문화원은 이 숲에 물과 거름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문화원은 지역주민 및 출향인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문화발전기금 납부자

(주)대산산업, 양봉임, 성백유, 이진자

보내주신 회비 및 기부금은 조세제한특례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되며, 예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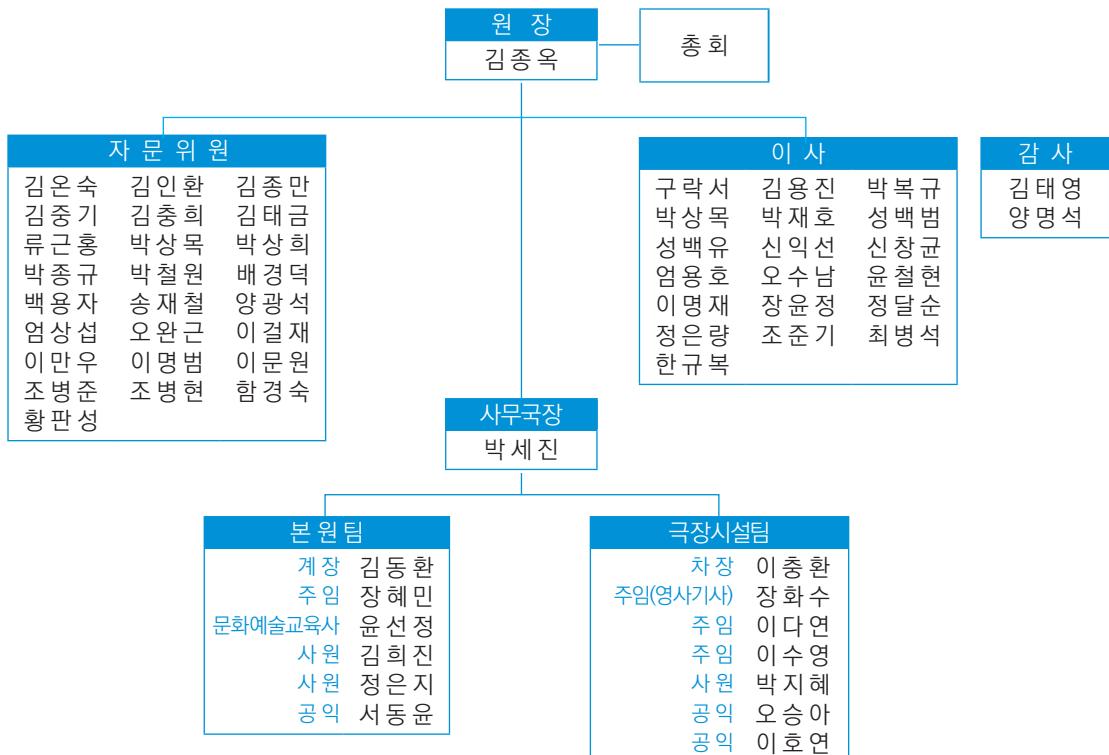
보내주실 곳 : 국민은행 463901-04-161758(예금주 예산문화원)



예산문화원 역대 문화원장(1955년~현재) ●

구 분	성 명	기 간
1대	장 영 복 원장	1955. 10. 15~1957. 12. 31
2대	김 경 환 원장	1958. 01. 01~1961. 12. 31
3대	박 병 선 원장	1962. 01. 01~1963. 12. 31
4대	장 영 복 원장	1964. 01. 01~1965. 05. 24
5대	서 창 재 원장	1965. 05. 25~1978. 02. 28
6대~10대	이 항 복 원장	1978. 03. 01~1995. 07. 16
11대~12대	이 지 호 원장	1995. 07. 17~2004. 11. 11
13대	이 진 자 원장	2004. 11. 12~2006. 06. 30
14대	이 용 면 원장	2006. 07. 01~2008. 11. 10
15대~17대	김 시 운 원장	2008. 11. 11~2020. 11. 10
18대	김 종 옥 원장	2020. 11. 11~현재

예산문화원 조직도 ●



(사)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철 원 / 회장 이 일 구

BEST VALUE, FIRST VALUE



(주)밸류엔지니어링은 반도체 Ion implanter 설비 부품을 중심으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여 SOLAR, LED, LCD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최적품질 유지를 위해 저희 임직원 일동은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황규태

(주)밸류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재면 제일리 640-5 TEL : 031-323-3511

산업용 탈취제

odor-kill 충남대리점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대산산업주식회사

대표 신창균

무료상담전화 **010-6633-8123**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예림안길 34-32 TEL: 041-332-8123~4



MG 새마을금고 예산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행복한 예산을
만들어 갑니다.

이사장 정 관영 전무 차 철회

MG 새마을금고 예산 예산읍 사직로2 TEL. 041-332-5487

전통 예산 옹기

4대를 이어온 전통 옹기의 名家

우리의 전통옹기를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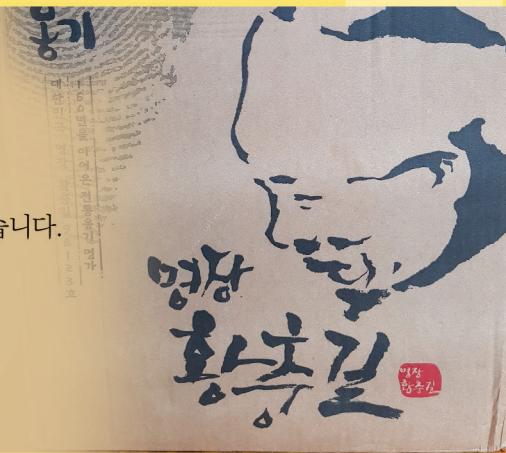
우리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전통예산옹기.

4대를 이어온 전통옹기의 명가!

대한민국 옹기명장(98-23호)

TEL. 041) 332-9888



知過必改
能莫忘

錄千字文句文聖愛



悔過楊柳形蜀
麻奈翁赤靈漢肉
向君家急時酒紅
亮麗觀陰尚弱紅

錄三峯先生詩庚子夏鹿野玄行



論事無疑知道力
讀書有味覺心榮

戊戌年立冬首—百林鄭賀善



客路春風發興狂每
逢佳處即傾醕還家
莫愧黃金盡剩得新
詩滿錦囊

松山張錫敦



예산문화원
YESAN CULTURAL CENTER

